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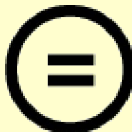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학위논문

아기장수형 부대각 설화 연구

2014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문학전공  
김 규 래

# 아기장수형 부대각 설화 연구

指導教授 趙 顯 高

이 論文을 文學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14年 4月

서울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國文學專攻  
金 奎 來

金奎來의 文學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14年 7月

委 員 長 \_\_\_\_\_ (인)

副委員長 \_\_\_\_\_ (인)

委 員 \_\_\_\_\_ (인)

## 국문초록

본고는 아기장수형 부대각 설화가 지니는 전승현장의 성격 및 서사문학적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이 설화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아기장수형 부대각 설화는 제주도의 ‘부대각’이라는 장수에 관한 설화로서 아기장수 설화의 독특한 변이형에 해당되는 작품이다.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부대각 설화의 양상을 총괄하여 분류하였다. 연구자가 채록한 새 자료 10편을 합하여 총 38편의 부대각 설화를 정리하고 그 중 아기장수 유형 22편을 연구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Ⅱ장에서는 아기장수형 부대각 설화가 전승되는 전승현장의 특성을 전승자 집단의 양상과 전승자 집단의 의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아기장수형 부대각 설화는 본풀이와 전설의 두 가지 갈래로 나뉘어 전승되는데, 본풀이는 심방과 집안 공동체의 전승이며 전설은 구좌읍(舊左邑)의 마을 공동체 및 제주부씨(濟州夫氏)라는 가문 공동체의 전승이다. 심방은 본풀이의 전문적인 연행자로서 계보 및 소속 지역, 개인적 특성에 의하여 보유한 사설이 달라진다. 집안 공동체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씨족 집단으로, 생활공동체의 성격을 지니며 여성 중심적이고 조상신에 대한 신앙을 공유한다. 한편 마을 공동체와 가문 공동체는 남성 중심적이며 집단의 대표가 전승을 이끌어간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전승 집단들은 모두 역사 전수 의식을 강하게 지니며 부대각 설화를 통하여 전승 집단의 정체성을 구성하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아기장수형 부대각 설화의 서사문학적 특성을 인물 · 구조 · 갈래의 세 가지 층위에서 분석해 보았다. 1절에서는 인물의 특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아기장수가 ‘살해된 아기장수’, ‘살아남은 아기장수’, ‘달아난 아기장수’, ‘영웅이 된 아기장수’의 네 가지 형상으로 다변화되어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다양한 형상은 상보적인 역할을 하면서 전승자들이 구체적인 맥락에서 현실을 사유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 다음으로 부대각의 적대자가 중앙 권력으로 일원화되어 있음을 밝혔다. 중앙 권력은 폭력적인 국가 체제이자 제주도의 무속 신앙을 거부하는 유교식 통치 체제를 상징한다. 따라서 부대각은 폭력적인

국가에 항거하는 제주도의 영웅이자 무속 신앙으로 대변되는 제주도의 정신적 뿌리를 상징하게 된다.

2절에서는 구조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우선 부대각 설화에서는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제주와 한양을 왕복하는 공간 이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제주는 탄생과 죽음의 공간으로, 한양은 성취의 공간으로 형상화되는데, 이를 통하여 지배체제의 속성 및 주변부로서의 제주의 한계가 드러나게 된다. 한편, 부대각은 공격 대상을 한양의 조정이 아니라 ‘대국’으로 간접화시키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중층화된 대립 구조가 형성된다. 여기에는 대국에 맞서는 한양의 욕망을 대리해 성취시켜 주면서 동시에 제주가 지닌 한양 극복의 욕망을 우회적으로 성취하려는 구조적 전략이 내재되어 있다.

3절에서는 갈래의 특성을 논하였다. 먼저 부대각 신화와 부대각 전설의 상호성을 살펴보았다. 부대각 신화는 전설의 신화화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자아와 세계의 역설적 관계를 통하여 신화적 성격을 획득한다. 그리고 이러한 신화적 성격은 다시 부대각 전설에 영향을 준다. 다음으로 부대각 설화가 송당계 본풀이로 대표되는 제주도 당신화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양상을 살폈다. 이를 통하여 부대각 설화는 송당계 본풀이와 영웅적 형상 및 ‘무쇠석갑’ 화소를 공유하면서도 이를 변형하여 창조적인 해결책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핵심어 : 부대각 설화, 아기장수, 제주 영웅, 민중영웅, 조상신본풀이

학 번 : 2011-20002

## 목 차

|                                   |    |
|-----------------------------------|----|
| I. 서 론 .....                      | 1  |
| 1. 연구목적 및 연구사 .....               | 1  |
| 2. 연구자료 .....                     | 5  |
| II. 아기장수형 부대각 설화의 전승현장 .....      | 14 |
| 1. 전승자 집단의 양상 .....               | 14 |
| 2. 전승자 집단의 의식 .....               | 21 |
| III. 아기장수형 부대각 설화의 서사문학적 특성 ..... | 29 |
| 1. 인물의 특성 .....                   | 29 |
| 1) 네 가지 형상의 아기장수 .....            | 30 |
| 2) 중앙 권력과 대립하는 아기장수 .....         | 37 |
| 2. 구조의 특성 .....                   | 43 |
| 1) 공간 이동과 결부된 영웅의 일대기 구조 .....    | 43 |
| 2) 중층화된 대립 구조 .....               | 53 |
| 3. 갈래의 특성 .....                   | 57 |
| 1) 부대각 신화와 전설의 상호성 .....          | 57 |
| 2) 부대각 설화와 당신화의 상호성 .....         | 63 |
| VI. 결 론 .....                     | 69 |
| * 부록: 부대각 설화 채록본 .....            | 72 |
| * 참고문헌 .....                      | 92 |
| * 영문초록(Abstract) .....            | 98 |

# I. 서론

## 1. 연구 목적 및 연구사

본고는 제주도의 ‘부대각 설화’ 중 아기장수 유형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전승 현장의 성격 및 서사적 특징을 고찰함으로써 이 설화가 지닌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아기장수 설화의 독특한 변이 양상과 여기서 드러나는 전승집단의 의식을 살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부대각 설화는 부씨 성을 지닌 장수에 관한 설화로서 아기장수, 장사, 오늬힘내기 등 다양한 서사 유형으로 전승되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갈래 또한 신화와 전설을 넘나드는 다채로운 모습을 보인다. 그 중에서 가장 활발한 전승을 보이는 유형이 바로 아기장수 유형이다. 이 유형은 아기장수 설화의 화소 및 구조를 수용하고 있으면서도 독특한 변이형을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부대각 설화는 아기장수 설화의 한 사례로서 거시적으로만 다뤄져 왔으며 본격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아기장수 설화에 관한 초기 연구는 형식주의적 · 구조주의적 분석이 중심이 되었는데, 최래옥은 최초로 아기장수 전설을 본격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아 자료를 직접 채록하고 그 공통된 서사 구조를 도출하였고<sup>1)</sup> 조동일은 문학사를 서술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건국신화, 서사무가, 고전소설, 신소설 등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민중영웅이야기의 구조를 제시하면서 아기장수 전설은 이러한 구조를 내포하고 있는 대표적인 전설 유형이라 주장하였다.<sup>2)</sup> 더 나아가 천혜숙은 박혁거세 신화와의 구조적 유사성을 분석하면서 아기장수 전설이 신화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논증하였다.<sup>3)</sup> 이러한

1) 최래옥, 「아기장수 전설의 연구 -한국설화의 비극성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11, 민속학회, 1979; 최래옥, 『한국구비설화의 연구』, 일조각, 1981.

2) 조동일, 『구비문학의 세계』, 새문사, 1980; 조동일, 「영웅이야기의 유형 : 분류 방법 모색을 위한 시도」, 『구비문학』 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1981; 조동일, 『민중영웅이야기』, 문예출판사, 1992.

3) 천혜숙, 「전설의 신화적 성격에 관한 연구」, 계명대 박사학위논문, 1987.

선구적 업적들은 아기장수 설화의 유형을 체계화하고 특히 그 비극적 결말의 의미를 문학사 및 문학의 제 갈래와의 연관 속에서 거시적으로 해명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나, 한편으로 작품 내의 공통된 구조 분석에만 치중하여 그 구조에 부합되지 않는 특성은 배제되었고 전승의 구체적인 역사적 · 사회적 맥락 또한 간과되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후 역사적 · 사회적 의미에 주목한 연구들을 통하여 ‘민중’들의 이야기로서 아기장수 설화가 조명되었는데<sup>4)</sup> 이러한 관점의 연구들은 구조주의적 연구에서 미흡했던 사회 현실의 맥락들을 여실히 다루었다는 강점이 있었으나 지배체제에 대항하는 민중의 저항성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다소 획일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아기장수 설화의 지역적 특성에 주목한 연구들은 연구 범위를 특정 지역의 설화로 한정시켜 지역사 및 지리적 · 문화적 특성 등을 함께 고찰함으로써 보다 미시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는데<sup>5)</sup> 이 또한 결국 해당 지역민을 ‘민중’이라는 하나의 거대집단으로 상정하고 지배집단에 대한 이들의 저항적 성격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임재해는 이러한 구조주의적 연구 및 민중론적 연구에서 도외시해 온 연행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현장론적 연구방법을 제시하면서, 연구자가 현장에 밀착되어 향유자의 의식의 내부로 들어가 해당 작품의 의미를 분석하여야 한다는

4) 강진옥, 「한국 전설에 나타난 전승집단의 의식구조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1; 하창수, 「아기장수전설의 형성과 기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장장식, 「아기장수전설의 의미와 기능」, 『국제어문』 5, 국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4; 조동일, 『설화와 민중의식』, 정음사 1985; 신동훈, 「아기장수설화와 진인출현설의 관계」, 『고전문학연구』 5,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0; 이경엽, 「장수전설의 전승양상과 전승의식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조동일, 위의 책, 1992; 김수업, 「아기장수이야기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임철호, 『설화와 민중』, 전주대학교출판부, 1995; 이미령, 「아기장수이야기 연구 : 집과 힘의 관계구조와 문화적 의미해석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1996; 강유리, 「〈아기장수〉 설화 연구 : 이데올로기 수용의 관점에서」, 『한국고전연구』 2, 한국고전연구학회, 1996.

5) 현길언, 『제주도의 장수 설화』, 흥성사, 1981; 부양숙, 「제주 날개달린 아기장수 전설」, 『백록어문』 2,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백록어문학회, 1987; 강봉근, 「중국 조선족 설화에 나타난 아기장수 설화의 변이 양상」, 『한국언어문학』 52, 한국언어문학회, 2004; 박종수, 「용인지역 구비설화에 나타난 인물설화의 양상」, 『인문사회논총』 15, 용인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8; 권도경, 「호남지역 ‘아기장수 전설’의 유형적 특징과 지역적 특수성에 관한 연구」, 『코기토』 64,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8; 도영록, 「『아기장수 전설』 연구 : 거창 「아기장수 전설」을 중심으로」,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2013.

주장을 하였다.<sup>6)</sup> 이는 연행 현장의 요건에 따라 매순간 새롭게 변형되는 설화의 본질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자료 분석의 명확한 방법론이 부재하여 실제로는 구조주의적 방법론 및 민중론적 분석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였다.

한편 김영희는 ‘전승력’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구조주의적 연구를 비판하고 현장론적 방법과 해석학적 방법을 결합해서 전승의 역동성을 고려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즉, 각편을 하나의 고정적인 구조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지속 지향’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과 ‘변화 지향’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을 구분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전승의 시간성을 고려한 연구를 행하였다.<sup>7)</sup> 이는 기존 연구방법론들의 한계를 적실하게 지적하고, 이를 넘어서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를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 지향’과 ‘변화 지향’이 본래 전승현장의 시공간적 역동성에 의해 나타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이 광범위하여 실제 현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될 수 없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김영희는 이후 특정한 연행 주체, 마을 단위의 이야기꾼 등으로 연구대상을 미시화하고 면밀한 현지조사를 실행함으로써 ‘지속 지향’과 ‘변화 지향’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연구 성과를 남겼다.<sup>8)</sup>

이와 같이 설화는 본질적으로 전승현장의 역동성에 의하여 다양한 변형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이질적인 틈들을 발견해 내고 그 의미를 추론해 내는 세밀하고 입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기장수 설화에

---

6) 임재해, 『설화작품의 현장론적 분석』, 지식산업사, 1991.

7) 김영희, 「아기장수이야기의 전승력 연구 -서사적 특성과 전승 의미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8) 이에 따르면 ‘연행 주체’는 동질적인 집단이나 개인으로 단순화할 수 없는 것으로 그 내부에 수많은 이질적인 틈이 존재하는데, 연행자의 연행 동기와 권력 관계, 연행 태도와 연행 목록 등 연행의 다양한 층위에서 이러한 이질성이 발생한다. 따라서 공동체 내에서 특별한 권위를 부여받아 공식적이고 지속 지향적인 연행을 하는 이야기꾼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의 승인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만의 창조적인 연행 능력을 표출하기 위하여 단독적이고 변화 지향적인 연행을 하는 이야기꾼이 있다. 김영희, 「구전이야기 연행과 공동체 경계의 재구성」, 『동양고전연구』 42, 동양고전학회, 2011; 김영희, 「마을 지형 및 지명 유래담의 공동체 구성력 탐구」, 『비교민속학』 46, 비교민속학회, 2011; 김영희, 「구술 전승 현장 분석의 시각 전환을 위한 시론 -‘연행 주체’는 누구인가」, 조동일 외, 『구비문학의 연행양상』, 민속원, 2011; 김영희, 「‘남성 토박이 이야기꾼’의 범주 구성과 이질화 양상 연구」, 김기옥 외, 『이야기꾼과 이야기의 세계』, 민속원, 2013.

관한 연구는 구비문학 연구의 초기부터 활발하게 행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대상의 광범위함으로 인해 전승 집단의 실상에 접근하여 그 전승 의미를 다각적으로 도출해내지는 못하였다. 이는 전승 집단에 관한 면밀한 현지조사가 부족하여 하나의 유형 내에 존재하는 역동적인 변형을 간과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아기장수형 부대각 설화로 연구대상을 한정하여 전승현장과 전승의 서사적 특성에 관한 정치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현지조사를 통해 부대각 설화를 채록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부대각 설화 연구가 부재한 가장 큰 이유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대각 설화의 전승 지역을 현지조사하고 최대한 많은 자료를 채록 및 정리하고자 한다. 둘째, 최근의 현장론적 연구의 성과를 받아들여 연행 주체와 이야기판 등 구체적인 전승현장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이 설화가 연행되는 현장의 역동성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앞서 분석한 전승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설화에 드러나는 서사적 특성을 인물 · 구조 · 갈래의 세 가지 층위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구조주의적 방법을 수용하되 하나의 유형구조를 상정하여 각편들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편이 다양하게 변형되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즉, 부대각 설화는 아기장수 설화를 어떤 방식으로 변형시키고 있으며 그 변형의 의미는 무엇인지 고찰해볼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부대각 설화의 특성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고 아기장수 설화가 갖는 의미가 더욱 풍부하게 파악될 것이다.

## 2. 연구 자료

부대각에 관한 설화는 현재 총 38편이 채록되었다. 이 중 27편은 기존의 문헌 자료에 남아있는 것이며 10편은 현지조사를 통하여 직접 채록한 것이다. 그리고 38편 중 아기장수 유형의 부대각 설화는 총 22편에 해당된다. 본고에서는 이 22편을 논의의 중점적인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부대각 설화 내에서 아기장수형 설화가 차지하는 위치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대각 설화를 총괄 및 정리해 보고자 한다. 현재까지 채록된 부대각 설화는 총 38편으로, 기존의 문헌 자료와 필자가 채록한 자료를 모두 합한 것이다. 참고한 문헌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 ㉠ 『고순안 심방 본풀이』 (허남춘 외 8인 편저, 보고사, 2013).
- ㉡ 『國文學報』 9(濟州大學 國語國文學會, 1988).
- ㉢ 『白鹿語文』 11(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편, 1995).
- ㉣ 『白鹿語文』 24(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편, 2008).
- ㉤ 『神들의 故郷』 (고대경, 증명, 1997).
- ㉥ 『양창보 심방 본풀이』 (허남춘 외 9인 편저, 보고사, 2010).
- ㉦ 『월간관광제주』 29(월간관광제주사 편집부, 월간관광제주사, 1987).
- ㉧ 『월간관광제주』 30(월간관광제주사 편집부, 월간관광제주사, 1987).
- ㉨ 『월간관광제주』 31(월간관광제주사 편집부, 월간관광제주사, 1987).
- ㉩ 『제주민속유적』 (제주도문화체육과 편, 제주도, 1997).
- ㉪ 『濟州 說話集成』 (金榮敦 · 玄容駿 · 玄吉彦,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5).
- ㉫ 『제주도전설』 (현용준, 서문당, 1996).
- ㉬ 『濟州道 傳說誌』 (濟州道文化公報擔當官室 編, 濟州道, 1985).
- ㉭ 『제주도 조상신본풀이연구』 (김현선 · 현용준 · 강정식, 보고사, 2006).
- ㉮ 『濟州의 人脈』, 강용삼, 泰光文化社, 1980).
- ㉯ 『耽羅遺史』 (탐라유사편집위원회, 夫氏門中會總本部, 1988).
- ㉺ 『坪代里』 (제주도. 북제주군 · 평대리지편집위원회, 평대리지편집위원회, 1990).

- ㉚ 『한국구비문학대계』 9-1(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 ㉛ 『한국구비문학대계』 9-2(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 ㉜ 『한국구비문학대계』 9-3(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 ㉝ 「평대리 부시흥 망사비」<sup>9)</sup>

자료의 유형 및 갈래를 중심으로 하여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 번호 | 유형             | 갈래         | 제목             | 채록 지역       | 채록 날짜       | 연행자         | 출처     |
|----|----------------|------------|----------------|-------------|-------------|-------------|--------|
| 1  | 아기 장수          | 조상신 본풀이    | 부대각본           | 제주시 용담동     | 2003. 2.6.  | 양창보 (남, 71) | ㉞      |
| 2  | 상동             | 상동         | 부대각 본풀이        | 제주대학교       | 2010. 1.15. | 상동          | ㉟      |
| 3  | 상동             | 조상신 본풀이 설명 | 부대각            | 제주시 삼도1동    | 2013. 2.19. | 상동          | 필자 채록본 |
| 4  | 상동             | 상동         | 부대각            |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 2013. 2.19. | 고산옥 (여, 61) | 상동     |
| 5  | 아기 장수 · 오늬힉 내기 | 조상신 본풀이    | 평대 부대각 하르방 본풀이 |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 2011. 1.24. | 고순안 (여, 65) | ㉠      |
| 6  | 상동             | 조상신 본풀이 설명 | 평대 부대각 하르방     | 상동          | 2013. 2.20. | 상동          | 필자 채록본 |

9) 제주부씨 종친회에서 평대리 중동 해안가에 세운 부시흥(夫時興)의 비석. 본고 <부록>에 전문을 수록해 두었다.

10) [각편 7]과 [각편 16]의 합본으로 보임.

| 번호 | 유형       | 갈래 | 제목                | 채록 지역          | 채록<br>날짜       | 연행자                                               | 출처               |
|----|----------|----|-------------------|----------------|----------------|---------------------------------------------------|------------------|
| 7  | 아기<br>장수 | 전설 | 평대<br>부대각         | 제주시 구좌읍<br>평대리 | 1959.<br>8.    | 김우현(남)                                            | ①                |
| 8  | 상동       | 상동 | 부대각 (1)           | 상동             | 2007.<br>8.5.  | 김형주<br>(남, 70)                                    | ㉔                |
| 9  | 상동       | 상동 | 부대각 (2)           | 상동             | 상동             | 부소윤<br>(남, 73)                                    | 상동               |
| 10 | 상동       | 상동 | 부대각<br>전설         | 상동             | 2013.<br>2.20. | 김성하<br>(남, 79)<br>이규경<br>(남, 77)<br>평대 노인<br>(미상) | 필자<br>채록본        |
| 11 | 상동       | 상동 | 부대각<br>(1)        | 제주시 구좌읍<br>한동리 | 1994.<br>7.30. | 고상옥<br>(남, 70)                                    | ㉓                |
| 12 | 상동       | 상동 | 부대각 (2)           | 상동             | 1994.<br>7.31. | 한복녀<br>(여, 67)                                    | 상동               |
| 13 | 상동       | 상동 | 부대각과<br>범천총       | 상동             | 2014.<br>1.26. | 오문봉<br>(남, 83)                                    | 필자<br>채록본        |
| 14 | 상동       | 상동 | 날개 돌헌<br>부대각      | 제주시 구좌읍<br>동복리 | 1983           | 박인주<br>(남, 64)                                    | ㉓                |
| 15 | 상동       | 상동 | 부대각               | 제주시 구좌읍        | 미상             | 미상                                                | ㉔                |
| 16 | 상동       | 상동 | 통정대부<br>만호<br>부시흥 | 미상             | 미상             | 미상                                                | ㉔                |
| 17 | 상동       | 상동 | 부대각               | 미상             | 미상             | 미상                                                | ㉔ <sup>10)</sup> |
| 18 | 상동       | 상동 | 무제                | 미상             | 미상             | 부대현<br>(남)                                        | ㉔                |

| 번호 | 유형 | 갈래 | 제목                | 채록 지역           | 채록<br>날짜       | 연행자             | 출처          |
|----|----|----|-------------------|-----------------|----------------|-----------------|-------------|
| 19 | 상동 | 상동 | 부대각 (1)           | 제주시 조천읍<br>선흘리  | 2013.<br>2.13. | 부봉룡<br>(남, 75)  | 필자<br>채록본   |
| 20 | 상동 | 상동 | 부대각 (2)           | 상동              | 상동             | 상동              | 상동          |
| 21 | 상동 | 상동 | 평대리<br>부시흥<br>망사비 | 제주시 구좌읍<br>평대리  | 미상             | 평대리<br>부씨종친회    | ㉔           |
| 22 | 상동 | 상동 | 부대각               | 상동              | 미상             | 부순언<br>(남)      | 제주특별자치<br>도 |
| 23 | 장사 | 상동 | 부대각<br>형제         | 제주시 오라동         | 1980.<br>12.3. | 양구협<br>(남, 71)  | ㉓           |
| 24 | 상동 | 상동 | 부대각과<br>힘센<br>쌀장수 | 서귀포시<br>중문동     | 1981.<br>5.16. | 김재현<br>(남, 85)  | ㉒           |
| 25 | 상동 | 상동 | 심돌<br>부대각         | 서귀포시<br>표선면 성읍리 | 1981.<br>5.17  | 송지준<br>(남, 83)  | 상동          |
| 26 | 상동 | 상동 | 상동                | 서귀포시<br>성산읍 시흥리 | 1975.<br>2.28. | 양기빈<br>(남, 69)  | ㉑           |
| 27 | 상동 | 상동 | 상동                | 상동              | 1981.<br>1.28. | 상동              | ㉐           |
| 28 | 상동 | 상동 | 팽이 편<br>부친충       | 제주시 조천읍<br>선흘리  | 1987           | 부용지<br>(1892년생) | ㉏           |
| 29 | 상동 | 상동 | 부친충<br>이야기 (2)    | 상동              | 상동             | 상동              | ㉍           |
| 30 | 상동 | 상동 | 소도독과<br>부친충       | 상동              | 상동             | 상동              | ㉌           |
| 31 | 상동 | 상동 | 부친충과<br>황세왓       | 상동              | 상동             | 상동              | 상동          |

| 번호 | 유형         | 갈래               | 제목                      | 채록 지역           | 채록<br>날짜              | 연행자            | 출처        |
|----|------------|------------------|-------------------------|-----------------|-----------------------|----------------|-----------|
| 32 | 상동         | 상동               | 장사<br>이야기               | 제주시 한림읍<br>귀덕리  | 1987.<br>7.27<br>~30. | 홍춘송<br>(남, 67) | ⑥         |
| 33 | 오늬힘<br>내기  | 상동               | 부대각<br>남매               | 제주시 오라동         | 1980.<br>11.23.       | 송기조<br>(남, 74) | ⑤         |
| 34 | 과거<br>급제   | 조상신<br>본풀이       | 하도<br>부대각<br>하르방<br>본풀이 | 제주시 구좌읍<br>하도리  | 2011.<br>1.24.        | 고순안<br>(여, 65) | ④         |
| 35 | 원사<br>(怨死) | 조상신<br>본풀이<br>설명 | 하도<br>부대각<br>하르방        | 상동              | 2013.<br>2.20.        | 상동             | 필자<br>채록본 |
| 36 | 상동         | 당신<br>본풀이<br>설명  | 시흥<br>본향당<br>유래         | 서귀포시<br>성산읍 시흥리 | 1994.<br>9~11<br>.    | 현금순<br>(여, 59) | ①         |
| 37 | 여걸<br>(女傑) | 전설               | 시흥리<br>부대각              | 서귀포시<br>성산읍 시흥리 | 2014.<br>1.26.        | 현무행<br>(남, 77) | 필자<br>채록본 |
| 38 | 상동         | 상동               | 상동                      | 상동              | 상동                    | 부종식<br>(남, 83) | 상동        |

[표 3] 부대각 설화의 개관

위의 [표 2]와 같이 부대각 설화는 그 내용에 따라 아기장수 유형, 장사 유형, 오늬힘내기 유형, 과거 급제 유형, 원사(怨死) 유형, 여걸(女傑) 유형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본고의 연구 대상인 아기장수 유형은 22개의 각편이 채록되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은 특히 선행연구에서 ‘날개’ 유형<sup>11)</sup>으로 분류된 것으로, 부대각이 날개 달린 아이로 태어나 그 능력으로

11) 아기장수 설화 연구의 선편을 잡은 최래옥 이래 아기장수 설화는 ‘날개’ 유형과 ‘곡물’ 유형의 두 가지로 분류되어 왔다. 날개 유형은 아기장수가 날개가 달린 채 태어나 비극적인

인하여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갈래를 살펴보면 신화와 전설을 넘나드는 전승임을 알 수 있으며 현재까지도 현장에서 채록이 가능한 유형이었다. 그리고 이 중에서 2편(#5, #6)은 오뉘힘내기 유형과 혼합형으로서 독특한 서사적 변형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많은 각편이 전승되고 있는 것은 장사 유형<sup>12)</sup>으로, 모두 10편이며 전설로만 전승된다. 그런데 2013년 2월에서 2014년 1월에 걸친 필자의 현지조사에서는 연행자를 찾을 수 없어 전승의 맥이 끊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유형에서 부대각은 날개 달린 장수가 아니라 힘 센 장사로 등장한다. 주로 부대각의 큰 힘을 증명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막산이, 정훈도, 오찰방 등 여타의 제주 장사 전설에서 나오는 화소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로 오뉘힘내기 유형 세 편이 발견된다. 이는 부대각보다 부대각의 누이가 힘이 더 세서 누이가 부대각의 버릇을 고쳐준다는 내용으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두 편은 아기장수 유형과 혼합형이기 때문에 오뉘힘내기 유형만 단독적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한 편밖에 없다.

그리고 과거 급제 유형과 원사 유형은 모두 제주도의 조상신본풀이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형<sup>13)</sup>이다. #34는 부대각이 과거에 급제하여 제주에 입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조상신본풀이 중 ‘홍부일월’<sup>14)</sup>을 모시는 본풀이들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35, #36은 조상신본풀이에서 여성주인공에게 신이 내려 억울

---

죽음을 맞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곡물 유형은 아기장수가 곡물을 가지고 땅 속으로 들어갔다가 관군 등에 의해 살해당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최래옥, 앞의 논문, 1979.

12) 제주도의 장수에 관한 이야기는 보통 날개가 달려 태어난 ‘아기장수’와 날개 없이 힘만 센 ‘장사’로 구분되어 연구되어 왔다. 현길언은 ‘장수 설화’ 안에 ‘아기장수’ 유형과 ‘장사’ 유형이 속한다고 보고 이들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허춘 또한 제주도의 인물전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장수(장사)’ 설화를 들고, 여기에 날개가 달려서 태어난 ‘아기장수’와 힘이 센 ‘장사’가 속한다고 보았다. 현길언, 『제주도의 장수설화』, 흥성사, 1981; 허춘, 「제주 설화의 특성 연구」, 『제주도연구』 16, 1999.

13) 김현선은 조상신본풀이의 유형을 ‘납녀 이합 · 애정담 유형’, ‘강신 · 원사 유형’, ‘과거 급제/벼슬살이/직업유형’, ‘부군칠성 유형’, ‘아기장수전설유형’, ‘영감(도채비) 유형’으로 분류한 바 있다. [표 1]에서 34~36번 각편은 조상신본풀이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서사 내용을 가지고 있어 이 분류를 참고하여 유형을 명명하였다. 김현선 · 현용준 · 강정식, 『제주도 조상신본풀이연구』, 보고사, 2006, 137~145면.

14) 홍부일월[紅牌日月]은 벼슬을 했던 혈연조상을 뜻한다.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246면.

한 죽음을 맞게 되는 ‘강신(降神) · 원사(怨死) 유형’과 유사하다. 그러나 신이 내리는 ‘강신’의 부분은 없고 억울하게 죽는 ‘원사’ 만 강조되어서 본고에서는 ‘원사 유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러한 독특한 유형의 본풀이들은 차후 조상신본풀이에 관한 총체적인 분석과 함께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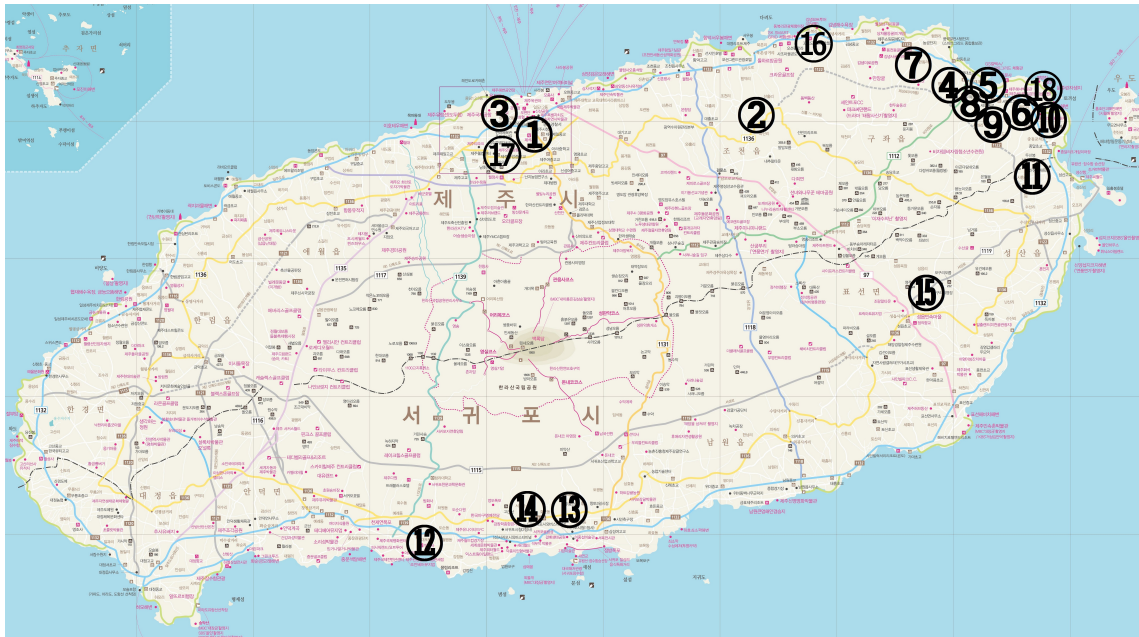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37, #38의 확인되는 여걸 유형은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심돌)의 부씨 집안의 며느리인 강씨 할머니가 힘이 센 장사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본래 이 각편들은 기존의 문헌자료에서 ‘심돌 강씨 할망’이라는 제목으로 부대각과는 별개의 이야기로 전승되는 것이나, 2014년 1월 26일 현지조사 당시 필자가 ‘부대각’에 관하여 묻자 제보자들이 부씨 집안의 힘 센 사람으로 강씨 할머니를 연상하고 이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었다. 따라서 이 자료는 부대각 설화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현장론적 관점에서 볼 때 시흥리 지역의 남성 영웅인 부대각에 관한 전승이 끊어지고 부씨 집안의 며느리인 강씨 할망에 관한 전승이 이를 대신한 상황을 말해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강씨 할망 설화의 증거물이 시흥리 부락의 상징인 들음돌과 결합하여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전승의 맥이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두 자료는 현장에서의 전승의 변모 양상을 보여주는 새로운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고 보아 부록에 실기로 한다.

이상의 유형 분류에서 알 수 있듯이 부대각 설화는 제주 전역에서 다양한 유형과 갈래로 전승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중 가장 활발한 전승을 보이는 아기장수 유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한편, 현지조사는 기존에 부대각 설화가 제보된 적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2013년 2월과 2014년 1월에 행하였다. 제보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 전승의 맥이 끊긴 곳이 많았으나, 전승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지역도 있어 그런 지역은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하였다. 조사한 날짜와 지역 및 채록 작품은 다음과 같다.

| 조사 날짜      | 조사 지역                           | 채록 작품    |
|------------|---------------------------------|----------|
| 2013.2.13. | ① 제주시 이도1동 (제주부씨종친회)            |          |
|            | ②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부봉룡 제주부씨종친회 부회장) | #19, #20 |
| 2013.2.19. | ③ 제주시 삼도1동 (양창보 심방)             | #3       |
|            | ④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1차)              | #4       |
| 2013.2.20. | ⑤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2차)              | #10      |
|            | ⑥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1차)              | #6, #34  |
| 2014.1.26. | ⑦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 #13      |
|            | ⑧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3차)              |          |
|            | ⑨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          |
|            | ⑩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2차)              |          |
|            | ⑪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 #37, #38 |
| 2014.1.27. | ⑫ 서귀포시 대포동                      |          |
|            | ⑬ 서귀포시 서홍동                      |          |
|            | ⑭ 서귀포시 동홍동                      |          |
|            | ⑮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          |
| 2014.1.28. | ⑯ 제주시 구좌읍 동북리                   |          |
|            | ⑰ 제주시 오라1동                      |          |
| 2014.1.29. | ⑱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차)              |          |

[표 4] 부대각 설화 현지조사 경위



[그림 1] 부대각 설화 현지조사 장소

## II. 아기장수형 부대각 설화의 전승현장

이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기장수형 부대각 설화의 장르적 형태가 본풀이 및 전설로 양분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각각의 전승현장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 특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풀이는 심방 및 부씨 집안 공동체의 전승이라 할 수 있으며 전설은 지역공동체 및 가문 공동체의 전승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전승 집단의 차이에 따라 전승 현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자세히 고찰해볼 것이다. 우선 전승의 주체와 연행 현장을 중심으로 하여 전승 집단의 양상을 살펴볼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전승자들이 어떠한 의식을 지니고 설화를 전승하는 것인지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기존의 문헌자료와 필자의 채록 자료뿐만 아니라 현지조사 시 연행자들이 보여준 전승의 태도 또한 함께 검토하려고 한다.

### 1. 전승자 집단의 양상

부대각 설화는 본풀이와 전설이라는 서로 다른 갈래로 전승되고 있는데, 본풀이는 심방 및 ‘집안’ 공동체를 통하여 전승되고 있으며 전설은 ‘가문’ 공동체와 ‘마을’ 공동체를 통하여 전승되고 있다.

우선 부대각 본풀이는 그 장르적 특성상 연행자 3인 모두 제주도의 심방들이다. 가장 길고 상세한 각편을 연행한 양창보 심방은 1934년생으로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에서 출생하여 20대 중반에 심방이 된 후로 제주도 전역을 돌아다니며 굿을 배웠다. 이 때문에 구좌읍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부대각 본풀이도 연행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짐작된다. ‘당맨심방’<sup>15)</sup>은 아니지만 제주칠머리당굿 전수자로서, 현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보존회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연행능력이 뛰어나고 다채로운 본풀이 사설을 연행한다는 점에서 제주도를 대표하는 큰 심방으로 꼽힌다<sup>16)</sup> 고산옥 심방은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의 당맨심방으로, 32

15) 마을의 본향당을 담당하는 심방으로 ‘본향당을 맨 심방’이라는 뜻이다.

세부터 심방일을 시작하여 신양리의 양정순 심방이 맡는 곳에 소미[小巫]로 참석하면서 무업을 익혔다. 큰굿을 할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평대리 본향당의 당맨심방인 동시에 하도리 면수동삼신당의 당맨심방을 맡고 있다.<sup>17)</sup> 고순안 심방은 제주에서 보통 ‘고복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1947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서 출생하였으나 구좌읍 하도리에서 자라 현재 하도리 본향당의 당맨심방을 맡고 있다. 이는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으로, 어머니 양기정 심방 또한 하도리의 당맨심방이었다. 고순안 심방은 어머니로부터 7세 때부터 무업을 배워 어린 나이부터 심방 일을 시작한 덕에 매우 풍부한 본풀이 사설을 지녔고 현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보존회 전수조교로도 활동하는 등 제주의 대표적인 심방으로 일컬어진다.<sup>18)</sup>

위의 세 심방들이 연행하는 본풀이는 모두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는 심방의 계보 및 소속 지역, 그리고 개인적 특성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양창보 심방은 제주도 전역을 돌아다니며 본풀이를 배워 풍부한 사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주 곳곳의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수용되어<sup>19)</sup> 조상신본풀이가 장편화되고 서사의 흥미성이 뛰어나다는 특징이 있다. 부대각 본풀이 전승의 뚜렷한 계보는 알 수 없으며 2013년 2월 19일의 인터뷰에서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배우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의 부대각 본풀이에서 보이는 평대리 부대각 전설의 영향 및 다양하고 흥미로운 화소들의 제시는 이러한 양창보 심방의 지역적 · 개인적 특성에서 연유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고산옥 심방은 아기장수형 부대각 본풀이의 근거지인 평대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심방으로, 평대리 본향당의 당맨심방이자 평대리 모든 당의 본풀이

16) 한진오, 「양창보 심방 본풀이 조사 경위와 생애담」, 허남춘 외 9인 편저, 『양창보 심방 본풀이』, 보고사, 2010, 31~58면.

17) 강정식, 「하도리의 민간신앙」, 제주특별자치도 · 국립민속박물관, 『하도리 민속지』, 국립민속박물관 2007.

18) 송정희, 「고순안 심방 본풀이 조사 경위」, 허남춘 외 8인 편저, 『고순안 심방 본풀이』, 보고사, 2013, 39~46면.

19) 김현선은 양창보 심방의 <부대각본>에서 설화의 주인공이 조상신본풀이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점과 <고전적따님아기본>에서 설화적인 흥미소가 풍부하게 드러난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양창보 심방의 조상신본풀이의 레퍼토리의 특징을 추론해볼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김현선 · 현용준 · 강정식, 앞의 책, 115~116면.

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20)</sup> 또한 고산옥 심방에게 부대각 본풀이를 전수해준 사람은 고산옥 이전에 평대리 본향당의 당맨심방이었던 박산홍 심방인데<sup>21)</sup>, 박산홍은 평대리 토박이로, 평대리에 거주하는 각 집안의 내력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한다.<sup>22)</sup> 이를 통해 고산옥 심방은 평대리 지역의 역사와 가장 깊이 관련된 본풀이 사설을 지니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고산옥 심방의 부대각 본풀이는 평대리의 부대각 전설과 서사적 접점이 가장 많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순안 심방은 하도리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심방으로, 앞의 두 심방과는 다르게 아기장수 유형과 오뎁힘내기 유형이 접합된 독특한 내용의 본풀이를 연행하고 있는 바 이는 전승 지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된다. 하도리는 고순안 심방의 본풀이 이외의 부대각 설화가 단 한 편도 채록되지 않았는데, 이처럼 본풀이가 부대각 전설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순안 심방 구연본의 경우 오뎁힘내기이야기와 접합된 독특한 서사를 지니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고순안 심방의 부대각 본풀이에서는 전설의 영향 대신 조상신본풀이에서 자주 등장하는 화소와 조상신격이 자주 등장하는 양상을 보여주는데, 하도 부대각 본풀이에서도 지역 전설보다는 조상신본풀이의 영향이 강하게 드러난다.

세 심방은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전승의 맥락을 보여주는데 이처럼 심방 간 전승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 이들이 서로 영향을 받아 접합될 여지는 매우 적다. 심방마다 모두 나름의 계보만을 이을 뿐이며 서로 사설을 공유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산옥은 2013년 2월 19일의 인터뷰 당시 고순안 심방 또한 부대각 본풀이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조사자에게 알려주었는데, 이와 더불어 심방들의

20) 북제주군, 『북제주군의 문화유적 II』, 북제주군 · 제주대박물관, 1998, 43면 및 85~87면.

21) 평대리 본향당 당맨심방의 계보는 박산홍-김씨 할망-고산옥으로 이어진다.

22) “우리는 박산홍이 할머니 산 때에 그 선생님이 나한테 이 팽대니까, 나가 팔자 굿영 막 하니까, 이디 일월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그렇게 말을 해준 거라. 우리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 산 때에 이렇게 이렇게 했다, 게난 벌써 여기는 친정애가 팽땃 고향이거든. 그래서 그 할머니는 친정에서 살아서 이 동네의 일을 다 알아. 경해서 다 말을 해주더라고. 어느 집에는 무엇이 있고, 어느 집에는 무슨 조상이 있다 허는 거를.” 고산옥 인터뷰 (2013.2.19.).

본풀이 내용은 모두 다르며 서로 잘 알려주지도 않고, 자신의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같은 본풀이의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심방 간의 서사 내용이 이질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부대각 본풀이의 전승 집단은 심방뿐만 아니라 본풀이의 연행 현장인 곳에 참여하고 해당 본풀이에 관한 신앙을 공유하는 사람들까지 포함되어야 하는데, 조상신본풀이의 경우 ‘집안’이라고 일컬어지는 공동체가 이에 해당된다. 이는 부대각 전설의 전승 집단인 ‘가문’ 공동체와는 다른 차원의 집단으로서, 혈연과 족보로 이루어진 남성 중심적 집단인 ‘가문’과는 다른 범위임이 거듭 지적되어 온 바 있으나<sup>23)</sup> 그 집단의 실체에 관해서는 현재까지도 명확하게 해명된 바 없다. 그러나 조상신본풀이의 서사 내용 및 현지조사의 결과를 참조해볼 때 이러한 ‘집안’이라는 집단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씨족 집단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중심이 된 집단이며, 생활공동체의 의미를 강하게 지니는 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 #3

지금까지도 이 부대각이라 이러면은, 어느 가집니까 흐믄, 평대 자손이라 그래. 이러면은 이집이 옛날 부대각 하르방이 이서난 집이로구나. 그거 평대 부침이가 그러한 유명한 하르방이 있었다는, 소위 말하면 전설이지. 전설이라기보다도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부대각 하르방은 본풀이가 들리지를 잘 알아.<sup>24)</sup>

다 이녁의 줄이 벌은 조상이나 누구가 있으면 그 조상을 본풀이를 하는데 내가 딱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그냥 곡지로만. “(본풀이)구좌읍~ 팽데리에~ 부대각 하르바님이~” 그렇게 막 곡지곡지 말해주지 안해.<sup>25)</sup>

위의 #3에서 양창보 심방은 부대각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평대 자손’이라는

23)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정진희, 「제주도와 미야코지마 신화의 비교 연구 : 외부 권력의 간섭과 신화의 재편 양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24) 본고 <부록> 74면.

25) 고산옥 인터뷰(2013.2.29.).

사실을 떠올린다고 말하고 있다. 즉, 부대각 설화에서 전승 집단은 다른 것들보다 지역성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조상신본풀이의 서두에 주인공의 성씨뿐 아니라 고향을 명시한다는 점과 상통한다. 또한 고순안 심방도 조사자가 부대각에 대해 물었을 때 ‘하도’의 부대각과 ‘평대’의 부대각으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이 점 역시 조상신본풀이와 지역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이는 과거 씨족집단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을 때의 전통이 남아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도 평대리와 하도리는 부씨 집성촌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점을 더욱 납득할 수 있다. 위의 고산옥 심방 인터뷰에서도 이러한 조상신본풀이에서의 지역성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데, 고산옥 심방은 자신이 평대리에 거주하면서 무업을 계승했기 때문에 무형문화재 전수자가 와도 자신처럼 자세하게 알 수는 없다고 했다. 즉 조상신본풀이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해당 지역의 구술 전통을 많이 꿰고 있는지의 여부라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부대각 설화는 지역의 구술 전통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sup>26)</sup>

또한 조상신본풀이가 진행되는 현장은 주로 여성들이 참여하여 씨족 집단의 무사와 안녕을 기원하는 곳의 현장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집안’ 집단은 여성 중심적이지아 생활공동체적 성격을 지닌 것임을 추론해볼 수 있다. 조상신본풀이는 주로 큰굿에서 초감제 이후 석살림 제차(祭次)에서 진행되는데<sup>27)</sup>, 이 제차는 신을 즐겁게 놀리면서 기원하는 단계이다. 여기서 심방과 해당 조상신을 모시는 집안 공동체 사람들은 함께 춤을 추면서 조상신을 즐겁게 하며 씨족 집단에 우환이 없어지기를 기원한다.

한편, 부대각 전설은 ‘가문’ 공동체와 ‘마을’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여 전승된다. [표 1]에서 아기장수형 부대각 전설에 해당하는 #7~#22를 보면 채록 장소의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7~#15는 모두 제주도 구좌읍에서 채록된 것으로,

26) 이는 조상신본풀이가 ‘가문 전설’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본 선행 연구도 이를 뒷받침한다. 강정식은 굿의 절차와 조상신본풀이의 관련성을 분석하면서 불도맞이의 석살림에서 진행되는 세 가지 본풀이, 즉, ‘군웅본판’과 ‘조상신본풀이’, 그리고 ‘선앙참봉본풀이’를 비교하였다. 이에 따르면 조상신본풀이는 구체적인 특정 집안의 내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두 본풀이에 비하여 역사적인 특수성이 부각되는 본풀이이며, 가문의 전설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고 밝혔다. 다만 여기서 ‘가문’이라는 용어는 ‘집안’이라는 용어로 수정될 필요가 있겠다. 김현선 · 현용준 · 강정식, 앞의 책, 189~202면.

27) 현용준, 앞의 책, 229면;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24면.

이들은 마을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전설에 해당된다. 그리고 그 중심이 되는 곳이 구좌읍 평대리인데, 부대각이 평대리 출신일 뿐만 아니라 부대각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평대리의 포구가 전설의 증거물로 남아있으며 최근 이곳에 부대각을 기리는 비석 또한 건립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편들이 세부적인 면에서는 서로 다른 화소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부대각의 탄생 및 최후에 관해서는 비교적 동일한 서사를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7~#10은 특히 평대리에서 직접 채록된 각편인데, 모두 전설의 증거물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서로 매우 유사한 서사를 지니고 있다.

또한 #11~#13은 평대리에서 채록되었는데, 한동리는 평대리의 서쪽 경계를 맞대고 있는 마을이며, 본래 평대리에 포함되어있다가 근래에 분리된 지역이라는 점에서<sup>28)</sup> 평대리와 동질적인 집단이라 볼 수 있다. 전승자들 또한 이러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들은 사실 부대각은 한동리 출신인데 한동리와 평대리가 나뉘어 각기 다른 리로 성립되면서 평대리로 넘어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고<sup>29)</sup> 한동리보다는 평대리 사람들이 부대각 설화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평대리에 비하여 한동리는 서사가 축소된 경우가 많으며 서사 내용 간의 이질성이 강하게 드러나는데, 이는 마을 내에 부대각에 관한 증거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채록 지역이 평대리와 한동리에 해당되지 않는 전설의 경우, #14는 구좌읍 동북리에서 채록되었는데, 연행자인 박인주는 동북리 및 조천읍 북촌리의 유명한 심방이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직업적 특성으로 인하여 부대각 전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각편은 심방이 연행하였지만 『제주도 전설지』에 실려있는 것으로 보아 연행자는 이를 전설로 인식하고 전설의 형식으로 구연한 것으로 보인다.<sup>30)</sup> 그리고 평대리 ‘배들인개’를 서사의 핵심으로 다루

28) 오창명, 『제주도 마을 이름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222~223면.

29) 본고 <부록> 84면 참조.

30) 박인주의 경우 전설의 형식을 하고 있더라도 본풀이에 관한 이야기를 본풀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연행한 것은 ‘신화’, 즉 본풀이로 구분되어 채록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현용준, 『제주도 신화』, 서문당, 1997.). 그러므로 현용준이 박인주의 부대각 전설의 연행을 『제주도 전설지』에 수록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설로 구분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내용 상으로도 평대리 ‘배들인개’의 유래가 중심이 되고 있어 연행자가 이를 증거물에 대한 전설의 차원에서 구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 있어 이 또한 평대리를 중심으로 한 전설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5번 각편은 채록된 마을이 분명하게 기록되지는 않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평대리 배들인 개에 얽힌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평대리 전설이다.

이와 같이 #7~#15는 구좌읍 전역에서 채록되나 특히 평대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전설이다. 즉, 마을 공동체를 전승 집단으로 하여 해당 마을의 영웅인 부대각에 관한 인물 전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평대리는 부대각의 활동 배경이자 그가 죽은 장소라는 비극성을 증거물로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써 전승력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특성을 보인다. 채록된 각편이 많을 뿐만 아니라 서사의 지속성 또한 가장 강력하다는 것에서 이를 잘 알 수 있다. 반면 구좌읍에는 속하나 평대리에 속하지 않는 지역의 전설들은 같은 증거물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이면서도 평대리 전설보다는 다소 간략화된 서사를 지니고 있으며 화소 또한 변형되어 있다.

한편, #16~#22는 마을이 아니라 가문 공동체를 전승 집단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채록 지역은 다양한 것처럼 보이나 연행자는 모두 제주부씨 종친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서, 이들 모두는 동일한 가문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마을 공동체와 가문 공동체를 통틀어 부대각 전설의 연행자는 거의 모두 남성이며 주로 해당 전승집단에서 대표직을 맡은 바 있는 사람들이다. [표 1]을 살펴보면 채록된 아기장수형 부대각 전설의 각편 중에서 한 편(#16)을 제외하고 모두 남성화자가 연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대체로 한학을 익힌 경험이 있으며 전승집단의 대표자였던 경력이 있다. 지역 전설로서 부대각 전설을 연행하는 화자들은 대개 해당 지역의 이장, 혹은 노인회장이었으며, 가문 전설로서 부대각 전설을 연행하는 화자들은 제주부씨 종친회 임원이었다. 평대리에서 채록한 전설을 살펴보면 제보자인 김형주(남, 70)와 부소윤(남, 73)은 모두 평대리 前 이장이었고 김성화(남, 79)는 평대리 現 노인회장이다. 한동리의 경우 또한 고상옥(남, 70)은 한동리 前 이장이었으며, 오문봉(남, 83)은 한동리 前 노인회장이자 現 한동리 상한동 노인회장으로, 모두 마을 조직의 위원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문 전설의 연행자를 살펴보면, 부봉룡(남, 75)은 제주부씨 종친회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앞의 평대리 前 이장 부소윤은 제주부씨 종친회의 前 총무로서, 종친회 차원에서 평대리에 부대각의 비석을 세우

고 비문을 새긴 사람이다. 그는 마을 임원일 뿐만 아니라 종친회의 임원으로서 양쪽이 중첩된 정체성을 지니고 지역 전설이자 가문 전설인 각편을 연행하고 있다.

## 2. 전승자 집단의 의식

앞서 살펴본 집단의 전승자들은 모두 역사 전수의 의식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먼저 집안 공동체에서는 지역의 역사와 전설을 중요시하고 그것을 잇는 것을 중시한다.

여기서는 이런 사람들백엔 모르지. 따른 사름덜은 역사를 모르지만, 우리는 이렇게 일을 헐라면, 그 집에 막 죽어가는 환자라도 살리게 될려면, 그런 본이라도 다 풀어가지고, 다~ 어둡은 가슴을 다~ 풀립서 해가지고 일을 허다 보면 살아나.<sup>31)</sup>

위에서 고산옥 심방은 조상신본풀이가 “역사”와 같은 것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본을 푸는 행위를 통하여 집안의 우환을 제거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즉, 심방은 자신이 소속된 지역에 속한 각 집안의 역사를 연행하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역사를 기억하고 전승하는 행위를 통하여 나쁜 일을 막을 수 있다는 믿음 위에서 전승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승의 맥이 끊어진다는 것은 곧 집단의 역사를 전수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하며, 이는 집단의 정체성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지게 된다. 조상신본풀이는 그 특성상 연행 빈도가 낮고 특히 최근에는 집안이 주체가 되어 직접 굿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으며, 특정 지역에 특정 집안 구성원들이 모여 사는 경우도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승의 맥이 점차 끊어지고 있는데, 특히 최근의 채록본에서 전승의 위기에 관한 의식이 거듭 포착되고 있다. 고산옥은 집

---

31) 고산옥 인터뷰(2013.2.19.).

성존의 해체 및 굿의 축소로 인하여 이제 부대각 본풀이는 심방들만이 기억하는 자료가 되어 버렸다고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sup>32)</sup> 그리고 본풀이 사실 또한 축소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는데, 고산옥의 경우 부대각의 업적을 고동지영감의 업적과 혼동하는 경향을 보이며<sup>33)</sup> 고복자 또한 선대의 심방들에게는 부대각에 관한 더 풍부한 사실이 있었으나 자신이 본풀이를 배울 때는 연행의 빈도가 높은 일반신본풀이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부대각 본풀이는 많이 잊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sup>34)</sup> 이는 조상신본풀이의 전승이 본원적으로 좁은 집단과 한정된 연행자를 기반으로 한 폐쇄적 성향이 강한 전승이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이러한 전승 환경이 폐쇄성은 공동체성을 강하게 드러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승 집단의 와해와 함께 본풀이의 소멸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연행자들은 이 점을 경계하고 있다.

한편, 부대각 전설 또한 역사 전수 의식을 강하게 드러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행자는 집단에서 주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화자의 집단 내에서의 위상을 고려해볼 때, 그들의 전승 태도는 공식적이며 사실적 · 교육적일 것임을 추론해볼 수 있다. 실제로도 그들은 부대각을 전승 집단의 역사적 인물로 인식하고 있으며 연행을 통하여 전승 집단의 구성원들에게는 교훈을 주고 외부인들에게는 집단의 탁월함을 각인시키고자 한다.<sup>35)</sup>

우선 가문 전설에서 부대각이 실제 인물임을 강조하기 위해 전승자들은 족보와 무과 급제 명부의 기록을 제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제주부씨 종친회에서

32) 이는 최근 구좌읍의 신앙의 해체 상황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현승환은 세화리와 평대리에서의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 주민들이 본풀이의 내용을 알지 못하며,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즉, 심방은 본풀이를 구술하는 입장에서, 그 내용을 철저하게 믿고 전달하고 있지만 단골들은 그걸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승환, 「제주도 신화와 공동체 그 현대적 변용 양상」, 『구비문학연구』 22, 한국구비문학학회, 2006.

33) 본고 <부록> 75~77면 참조.

34) 고순안 인터뷰(2013.2.20.).

35) 김영희는 특히 남성 동성(同性) 집단 내에서 연행되는 역사 인물 이야기가 ‘남성’이자 ‘토박이’이며 공동체에 대한 결속 의지와 자부심이 강한 자들만을 포섭하고 이들 내에서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연행을 주도하면서 집단이 공유하는 ‘문화적 기억’이 확정된다고 분석하면서 역사 인물 이야기가 공동체의 경계를 설정하는 효과를 창출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영희, 「인물 이야기 연행과 공동체의 역사」, 『구전이야기 연행과 공동체』, 민속원, 2013, 103~140면.

는 족보의 기록을 제시하면서 부대각이 ‘부시흥(夫時興)’이라는 실명을 지닌 실존 인물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21에서는 아기장수 유형으로 등장하는 평대리의 부대각(평대 부대각)과는 별개로, 장사 유형으로 등장하여 완전히 다른 서사 내용을 보여주는 시흥리의 부대각(심돌 부대각)도 존재함을 의식하여 이 둘의 정체를 모두 제주부씨 족보에 기대어 해명하려는 시도를 보였다.<sup>36)</sup> 부봉룡 제주부씨 종친회 부회장은 구연 시에 무과 급제 명부<sup>37)</sup>를 펼쳐놓고 부시흥이 제수된 벼슬명을 조사자에게 보여주면서 부대각이 1678년에 만호(萬戶) 천총(千總) 벼슬을 한 실존 인물임을 증명하였다. 지역 전설에서 부대각의 ‘대각’을 벼슬명이라고 오해하여 진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문전설에서는 문헌자료를 토대로 하여 보다 실증적인 전승을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sup>38)</sup>

한편, 지역 전설 또한 부대각의 실존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주로 화자가 역사적 배경을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가능해진다.

#### #8

별방진이 그러니까 숙종 때로 보는데 왜내하면 세종이 세종대왕이 대마도를 정벌했어. 정벌해가지고 대마도를 정벌하기 전에 왜구가 자꾸 침입을 했거든. 자꾸 침입을 하니까 제주도에 그저 환해장성 막 쌓아둔거 너네도 봤지? 그래서 그 별방진이라는 데가 아마 지금 같으면 대대본부 아니든 사단본부를 둔거야. 에 그 바로 그때에 아마 그 충청도 어느 큰 연못이 있었던 모양이라이. 나도 아버지한테 그 말을 들었어. 연못이 큰 연못이 잇었는데 백마가 때가 되면은 그 물 먹으러 산에서 내려가고 거기 와가지고 한번 크게 울음을 치고 헝 울음을 치고 물을 쪽쪽 마시고

36) “「제주도에 힘이 센 사람이 나타나면 부대각자손(夫大角子孫)이라」고 한다. 그 실제인물은 부씨 열송파의 시흥 통정대부만호묘(通政大夫萬戶墓)는 평대리전태역, 또 홍공파(弘公派)에도 실제인물인 심돌부대각이 있으나 생략한다.” [표 1]의 21번 각편 참조.

37) 고찬화 편, 「武科及第先生案」, 『耽羅史資料集錄⑤ 지난 歲月의 濟州人物錄 -國朝文科榜目外 16目案員簿記錄-』, 성민출판사, 2002, 47면.

38) 조선시대에는 ‘대각’이라는 관직이 없었다. 다만 고려사의 기록을 토대로 하여 ‘대각(大角)’이 고려시대의 군병(軍兵)의 한 종류였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춘정월 조충, 김취려가 몽고, 동진병을 모아 강동성에서 거란을 공격하여 항복하게 하니, 제군(諸軍)이 계엄을 풀었다. (……) 취려가 이에 지병마사(知兵馬使) 한광연과 더불어, 10장군이 거느렸던 군병 및 신기(神騎), 대각(大角), 내상(內相)의 정병(精兵)을 영솔하고 갔다.” 『고려사』 기묘년 고종 6년(송 영종 가정 12, 금 선종 흥정 3, 몽고 태조 14, 1219).

거기 있는 무슨 나문지 모르지 큰 나무에다가 목덜미를 비비고 또 돌아  
가거든.<sup>39)</sup>

위의 작품에서 화자는 부대각이 등장하여 본격적인 서사가 시작되기 전에 그의 업적이 가능했던 역사적 상황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화자는 별방진을 설치하게 된 까닭을 세종 대로 거슬러 올라가 설명한 뒤, 부대각이 공적을 쌓은 배경이 숙종 당시 충청도임을 진술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적인 배경 설명 뒤에 화자는 이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들은 것임을 말하고 곧이어 백마의 신이한 출현 사건을 제시한다. 여기서 백마의 출현은 현실성을 의심받을 만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인 배경 설명과 전승의 출처가 제시됨으로써 전승자 집단에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납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화자가 전승의 출처를 강조하면서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전언(傳言)적 서술’<sup>40)</sup>의 방식을 통하여 전승의 신빙성을 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다음의 자료들을 통해 살펴보자.

#8

키왔는데 아마 그 겨드랑이에서 날개가 났다고 하는데 나고 안 나고는 모르지만 하여튼 날생 날세게 동작 빠른 건 틀림없었던 모양이라이. (중략) 그러한 그 애길 내가 들었거든, 우리 조상님한테. 그렇게 그 마 지금 봐서는 날개는 안 났겠지. 안 났지만 아마도 그만큼 동작이 빨랐고, 힘이 셋고 아마 그렇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이.<sup>41)</sup>

39)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편, 「부대각(1)」 『백록어문』 24, 백록어문학회, 2008, 341면.

40) 신동훈은 역사인물담의 서술방식을 ‘해설적 서술’, ‘전언적 서술’, ‘재현적 서술’의 세 부류로 나누어 분석한 바있다. 여기서 전언적 서술은 화자가 전달자로서의 역할에 치중하여 자신이 전해들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 옮겨 전한다’는 태도로 서술하는 방식으로, 전설 장르가 ‘실제 있었던 일’을 문제삼는다는 특성과 잘 부합되는 서술방식이다. 이에 따르면 전설은 대부분 이러한 전언적 서술과 재현적 서술이 결합되면서 전개되어 전설의 진실성과 창조성의 균형을 잡고 있다. 신동훈, 『역사인물 이야기 연구』, 집문당, 2002, 210~234면.

41)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편, 앞의 책, 342면.

#11

그러면 소위 그 때 말로 허면은 예, 부모덜이 그 잉태 중에다가 그 대각 누이를 잉태헌 때는 소를 뭐 여덟 마린가 잡아 맥였다고 허고, 이러면 뭐 신빙성 없는 말 아니요? 그런데 또 뭐 부대각 혈때는 소 열 두 마리를 잡아맥였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그렇게 길러졌다 이런 말인디.<sup>42)</sup>

#9

그게 그거 나오는 것은 이 우리도 어려버리고 하니까 대충 흘러기는 소리에서 우리도 구절로 조상님한테 얻어들은거지. 그때 그저 요즘같이 이렇게 조살하고 막 여러 가지 그걸 남기려고 했다고 하계웨면은 더더욱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말이 나오고 이런 말이 나와서 흘러 흘러 내려온거야. (중략) 그런거 옛날에 잊었다고 하지만, 그러지 그게 말이야 뭐 전해 내려오는 위치에서 그렇게 없기 때문에 애가 아는 상식에서 이제야 뭐 그렇게 뭐 내 조상이 이런 꿈 태몽 꾸었다, 이렇게 해서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린 실지 잊었고 그렇게 해서 구전되어서 여튼 여러 사람 입과 입을 통해서 내려온 사령 뭐 고린 것을 전해들은 것 뭐 이런 말을 여러분들한테 뭐 얘기하며는 이제 뭐 이런 데 나온 그런 걸 참고적으로 이제 그 읽다보게 웨면은 이해가 갈 거 아니겠어? 그렇게 알아 뉘.<sup>43)</sup>

위의 자료들에서 화자는 부대각 전설은 자신이 웃어른으로부터 들은 것을 전달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전언적 서술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어투 또한 ‘-엿던 모양이라이(-엿던 모양이다)’, ‘-엿다고 허고(-엿다고 하고)’, ‘-엿다 이러는 거예요’, ‘-엿다 이런 말인디(-엿다 이런 말인데)’, ‘-엿다고 하지만’ 등으로 전언적 서술의 어투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8과 #11을 보면 모두 화자가 전달받은 내용을 부정하고 이를 합리적인 내용으로 변형시키고 있어서 전언적 서술이 아

42)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편, 「부대각(1)」, 『백록어문』 11, 백록어문학회, 1995, 267면.

43)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편, 「부대각(2)」, 『백록어문』 24, 백록어문학회, 2008, 352면.

닌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화자의 전달자로서의 위치를 부각시키는 방식이다. 화자는 전해받은 이야기에서 부대각이 날개가 달렸다는 설과 부대각 탄생 시 부모가 소를 잡아먹어 부대각이 아기장수로 태어났다는 설에 대하여 논평을 하면서 이는 사실이 아닐 것이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승의 창조적 변용의 차원이 아니며 오히려 기존의 전승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서도 여기에 현대적인 설명을 부가한 것일 따름이다. 즉, 화자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진실성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현대의 전승자들도 납득하여 옹호할 수 있는 설명을 부가함으로써 오히려 전승의 지속성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9는 조사자가 화자의 구연을 들은 뒤에 다른 각편들에서는 부대각의 탄생신이담이 등장하는데 혹시 알고 있는 것이 없느냐고 묻자 화자가 대답한 내용이다. 이 화자는 부대각의 탄생신이담에 관한 내용은 들은 바 없다고 하면서 그것은 사람들이 부대각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흘러내려온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그리고 전해 내려오는 위치(位紙)에도 그런 내용이 없으므로 거짓으로 말할 수도 없다고 하면서 선부른 이야기의 변형과 창조를 경계하고 있으며, 자신은 실제 있었던 일이 구전되어 전해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화자의 전달자로서의 위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화자는 전승 집단에서 특별한 권한을 지닌 사람으로서 사실을 전달한다는 의식을 지니고 전승을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전승되는 이야기는 전승 집단의 역사와 동일시된다. 조사자가 부대각 전설을 요청했을 때 전승 집단의 구성원들은 해당 전설을 구연하는 것은 곧 집단의 역사를 서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전설을 “내력”이라 칭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들은 “내력”의 전문가로서 마을의 이장 혹은 노인회장, 종친회의 부회장 등을 소개해 주면서 이들에게서 전해 듣도록 하였다. 즉, 부대각 전설은 집단의 역사, 즉, 공동의 기억으로서 해당 집단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권위적인 텍스트로서, 이것의 구연은 권한을 인정받은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승 의식에도 불구하고 부대각 전설 또한 점차 전승의 균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야기판이 해체되면서 전설을

전승할 공간이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인데, 현재는 각 집단의 대표들을 제외하고는 부대각 전설에 관해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또한 공동체의 대표들도 문헌의 고정된 기록으로 의도적으로 전승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sup>44)</sup> 즉, 역사 전수 의식은 자연스럽게 문헌의 고정된 텍스트가 지닌 권위와 이어져 구비 전승의 맥락은 점차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 #10

그래서 부침이서(부씨 집안에서) 그래도 자기네 조상들이기 때문에 저런 기념비<sup>45)</sup>라도 하나 해 놓자 해가지고 전설에 의해서 일케(이렇게) 해 놓은 거고. 거기 보면은 내용이 대강 써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이상은 아시는 분 없을 겁니다. 부씨 집안 사람들도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야 이제 저희 또래들밖에, 그 이상 어르신들은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셨기도 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뭐 관심도 안 갖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마을 그런 어떤 유래들 뭐 이런 것을 머릿속에는 넣어두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흐당(하다가) 들은 풍월로 이야기하는...

(중략)

이규경 : 경 험에 이제 잡으레 온 거주게. 잡으레 오니까 도망 간 게 그렇게 해서 그냥 쉬어가젠 한 게 이게 흐롤, 등돌(들음돌)을 들러메고 강가정가분 게(가져가 버린 것이) 가라앉언...

평대리 노인(이름 미상) : 비석에는 그런 건 적어있지 안 해.

이규경 : 거 전설이주.

김성화 : 예, 게난(그러니) 하나의 전설인데. 우린 그 정도밖엔 뭐...

평대리 노인 : 그 전설도 있고, 산[墓]에다가 돌이 두 개 나왔는데, 하날 찰라부니까(잘라버리니까) 부대각이 죽었다는 전설이...

김성화 : 아니, 아니, 건 날개고.

평대리 노인 : 날개? 게, 전설이 여러 가지야.<sup>46)</sup>

44) “그 읍지라든지 리지라든지 거기 보면은 그렇게 나와있어. 그거 뭐 세세한 것은 거 다 한 번 읽어보면 알테니까.” 위의 책, 344면.

45) 제주부씨 종친회에서 평대리 중동 해안가에 세운 부시흥(夫時興)의 비석을 말한다.

46) 본고 <부록> 80~81면.

위의 자료를 보면 가장 강력한 전승력을 가진 평대리에서조차 전승이 균열되는 지점을 볼 수 있다. 위에서 평대리의 노인들은 부대각 전설에 관하여 문자 증거물과 관련된 죽음의 상황만을 단편적으로 제시하며 잘 모르겠다고 하고 있으며, 그것마저도 서로 무엇이 옳은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즉, 평대리 부대각 설화의 가장 강력한 전승자였던 부소윤이 얼마 전 타계한 뒤 전승의 맥락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부대각 설화는 집단의 역사를 전수하는 권위를 가진 전승으로서, 사명감을 지닌 집단의 대표가 없으면 전승 또한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Ⅲ. 아기장수형 부대각 설화의 서사문학적 특성

앞서 II장에서 아기장수형 부대각 설화가 다양한 전승자 집단을 바탕으로 하여 전승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각의 전승 집단들은 역사 전수 의식을 공유하며 과거와 동질적인 전승을 유지해나감으로써 집단의 정체성을 수호하려는 모습을 보이지만 한편으로 그 의식이 균열되고 변화하면서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되는 지점도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집단 정체성의 지속과 변화의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한 분석이 요청되는 바, 이 장에서는 아기장수형 부대각 설화의 특징을 분석하되 각편마다 드러나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양상을 면밀히 고려하면서 분석을 진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인물 · 구조 · 갈래의 측면에서 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인물의 특성

프로프는 민담의 기본성분으로 등장인물의 기능을 들면서 모든 민담은 일정한 수의 등장인물의 기능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만들어진 하나의 유형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여기서 등장인물의 기능이란 인물의 행위가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말하는 것으로 그는 인물의 행동영역을 31개로 분류하여 민담을 형태론적으로 분석하였다.<sup>47)</sup> 이를 이어받은 강현모는 인물의 기능을 ‘주체자, 적대자, 원조자’의 세 부류로 정리하여 장수설화의 인물을 기능별로 분석하였다. 여기서 주체자는 서사의 중심인물을 말하며 적대자는 주체자의 행위에 적대의식을 가지고 대립하는 존재이고 원조자는 주체자에게 직 ·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인물을 말한다. 아기장수 설화에서 주체자는 설화의 주인공인 아기장수이며 적대자는 아기장수를 살해하는 부모, 혹은 관군이고 원조자는 용마라 할 수 있다.<sup>48)</sup> 그런데 부대각 설화의 경우 주체자, 적대자, 원조자 모두

47) 블라디미르 프로프, 『민담형태론』, 유영대 옮김, 새문사, 1987.

48) 강현모, 『장수설화의 구조와 의미』, 역락, 2004, 157~187면.

여타의 아기장수 설화와는 구분되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는데, 각각의 경우를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 1) 네 가지 형상의 아기장수

부대각은 평범한 집안 출신이나 날개를 단 영웅으로서 그 존재 자체로 주변인의 두려움을 사고 결국 죽음을 맞게 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아기장수형 인물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기장수형 인물은 주변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희생당하고 마는 실패한 영웅일 뿐이며 독자적인 의지나 동기를 갖지 못하고 플롯에 종속된 존재로만 등장하지만<sup>49)</sup> 부대각 설화의 아기장수는 이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날개가 잘리는 것이 아기장수 설화의 핵심 서사임에도 불구하고 부대각은 날개가 잘리지 않고 살아남아 영웅적 업적을 성취한다고 서술되어 있는 각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날개가 잘려도 살아남는 각편도 다수 존재한다. 그리고 아기장수가 형제로 태어나 둘, 혹은 셋으로 등장한다는 점도 부대각 설화의 주요한 특징인데, 이들 형제가 같은 아기장수임에도 서로 다른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의 각편에도 다양한 형상의 아기장수가 등장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부대각은 일반적인 아기장수들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특징들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형상들을 ‘날개’ 화소의 성격 및 영웅의 일생을 중심으로 하여 크게 네 가지 인물형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우선 날개 화소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아기장수의 날개가 제거되고 죽음을 맞는 부분일 것이다. 부대각의 경우 유년기에 날개가 발각된 뒤 제거되는 경우와 제거되지 않는 경우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먼저 날개가 제거되는 경우 아기장수가 바로 죽는 경우와 죽지 않고 살아남아 현실에 적응하는 경우가

---

49) 조동일은 아기장수 설화를 실패한 영웅담으로 분류하고 아기장수가 민중 출신이기 때문에 영웅의 자질을 가지고도 과업 성취에 실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김영희는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아기장수이야기의 유형을 특히 “<날개-지속> 유형”, 즉, 아기장수의 날개가 잘리는 것이 핵심 서사인 ‘날개’ 유형 중에서도 전승 과정에서 서사가 변형되지 않고 지속 지향이 강한 특성을 보이는 유형이라 보았는데, 이 유형에서는 인물의 동기와 의도가 배제되고 행위만이 제시되어 인물보다는 플롯의 인과율이 강조된다고 주장하였다. 조동일, 앞의 책; 김영희, 앞의 논문, 34~41면 참조.

있는데, 이를 각각 ‘살해된 아기장수’ 유형과 ‘살아남은 아기장수’ 유형으로 명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과는 달리 날개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는 아기장수가 날아가 자취를 감추는 경우와 현실에 남아 다양한 영웅적 과업을 성취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을 각각 ‘달아난 아기장수’와 ‘영웅이 된 아기장수’로 명명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네 유형의 아기장수는 각편마다 부대각, 혹은 부대각의 형제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를 해당 각편과 함께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유형            | 날개<br>제거<br>여부 | 일생                      | 해당 각편                                                              |                          |
|---------------|----------------|-------------------------|--------------------------------------------------------------------|--------------------------|
|               |                |                         | 부대각                                                                | 부대각의 형제                  |
| 살해된<br>아기장수   | 제거             | 뜻을 이루지 못하고<br>유년기에 살해됨  | #10, #18                                                           | #1, #2, #8, #22          |
| 살아남은<br>아기장수  |                | 현실에 적응하여<br>평범한 장사로 살아감 | #7, #15, #17, #19                                                  |                          |
| 달아난<br>아기장수   | 미제거            | 살해 위협을 피하여<br>날아가서 사라짐  | #11, #22                                                           | #3, #7, #15,<br>#17, #19 |
| 영웅이 된<br>아기장수 |                | 영웅적 과업을<br>성취하고 죽음      | #1, #2, #3, #4, #5,<br>#6, #8, #9, #12, #13,<br>#14, #16, #20, #21 |                          |

[표 5] 아기장수의 인물형에 따른 부대각 설화 분류

우선 ‘살해된 아기장수’ 유형은 일반적인 아기장수 설화와 가장 차이가 적은 경우로 아기장수는 날개가 발각된 뒤 부모, 혹은 관군에 의하여 곧바로 살해된다. 그런데 부대각이 살해된 아기장수로 등장하는 경우는 #10, #18의 두 가지 경우만 해당된다. 즉, 총 22편의 아기장수형 부대각 설화 중에서 일반적인 아기장수 설화의 서사와 유사한 각편은 단 두 편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편도 결말에서는 일반적인 아기장수 설화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부대각이 날개가 발각된 후 적대자에게 일방적으로 살해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바다에 빠져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대각은 단지 수동적으로 죽음을 맞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는 적대자에게

끝까지 저항하면서 살아날 길을 모색하는 주체적인 인물로 묘사된다. 즉, 아기장수가 비록 현실에서 거부당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더라도 그러한 현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의지가 드러나 있는 것이다.

한편, 나머지 #1, #2, #8, #22에서는 ‘살해된 아기장수’가 부대각이 아니라 부대각의 형, 혹은 동생으로 등장하여 부대각이 죽지 않도록 해주는 원조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아기장수 설화에서는 원조자가 주로 ‘용마’로 등장하여 아기장수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데 비하여<sup>50)</sup> 부대각 설화에서는 아기장수가 다른 아기장수의 원조자로 등장하는 독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 #1

가만히 물러서 집이 모른 척 허고 와서, 그날 밤이 아이덜 삼형제가 누워 자는디, 아바님이 들어간 팔덜을 이렇게 들어보니, 아이고 즈드랑이 알로 날개가 솟아났구나. ‘아이고, 이것덜 낫당은 우리 부씨 가문이 망힐 거난,’ 옛날 거 옷 허멍 다리는 윤디 불에 다 달과 놓고 뜨겁게 헤여 누워 자는 애기덜 그 날개를 가서 윤디로 지저 버리니, 큰아덜, 셋아덜은 죽었구나.

‘죽은아덜 이거 어리고 미웁헌 거사 무신 걸 알 꺼냐.’ 그냥 내버리난 죽은아덜이 점점점점 커가 열 다섯이 넘어가니,<sup>51)</sup>

#### #2

부대각 아방이 이것덜 보젠 헤연, 가서 영 [왼팔을 들고 오른팔로 왼쪽 겨드랑이에 작댄다.] 팔 들런 좇갱이를 영 보난 예로 놀개가 나오람주게. 경 허난 “이것덜 낫당 우리 방상에 씨(氏) 멜족(滅族)헌다. 요것덜 어땡하리오.” 그러면 솟불을 피와놓고 윤디를, 인두를 지저난 그거 불이 팔팔 헐 거난 그걸 오꼴허게 지저부럿주게. 지저부난 그냥 우로 성제는

50) 강현모는 원조자가 주체자에게 직 ·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인물이므로 주체자가 어떠한 위치나 장소에 있게 하는 파송자도 원조자에 해당되며, 외적으로 주체자와 대립 갈등의 요소가 보이더라도 내면적으로 주체자에게 화합하려는 성격의 인물이라면 원조자로 상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용마를 아기장수 설화의 원조자로 분류하고 있다(강현모, 앞의 책, 174면 참조).

51) 김현선 · 현용준 · 강정식,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보고사, 2006, 328면.

죽어버렸구나—. “죽은 것사 무슨 승폐(凶廢)가 시랴.” 그냥 네버렸주.<sup>52)</sup>

#8

처음에 부대각의 부모님이 부대각을 낳았을 적에 거드랑이에서다가 털이 나오고 날개가 나오기 시작했거든? 그러니 그 당시 정치 상황으로 봐서는 이렇게면 역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역적이 되면은 자기네가 오죽이 멀히고 그니까 일단은 부대각을 처음에 난 사람을 이제 남몰래 물어둔거야. 생매장한거지. 그래서 이제 또 다음에 난 것이 또 그렇게 낫단 말이야. 근디 두 부부가 의논하기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쫓기 때문에 다신 죽일 수가 없다, 게서 키운 거지.<sup>53)</sup>

#22

어느날 외출했다 귀가해 보니 그 형제가 안방에서 청으로 청에서 뒤뜰로 날아 다니고 있었다. 이것이 관가에 알려지면 큰일이다 하고 동생놈을 붙잡아 날개를 찍어 없애버리니 죽어버렸지만 형은 어느새 바다로 행적을 감추고 말았다. 영영 돌아오지 않아서 혼백을 모시고 묘를 삼았다.<sup>54)</sup>

#1, #2에서는 부대각 삼형제가 등장하는데 아버지가 삼형제의 날개를 발견한 뒤 위의 두 형은 날개를 인두로 지져 죽이나 어린 막내는 차마 죽일 수 없어 그대로 살도록 놓아두고 있다. #8에서도 부모가 먼저 태어난 아기장수는 생매장하였지만 그 뒤 또 아기장수가 태어나자 하늘의 뜻으로 알고 키운다. 이 세 각편에서 부대각은 모두 형이 죽은 덕에 날개가 잘리지 않고 살아남는다. 그리고 성장하여 네 번째 유형인 ‘영웅이 된 아기장수’가 된다. 반면 부대각의 형들은 날개가 달렸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살해되어 ‘살해된 아기장수’가 된다. 한편 #22에서는 형이 아니라 동생이 ‘살해된 아기장수’로 등장하는데, 부대각이 쌍둥이로 태어나 부모가 둘의 날개를 모두 제거하려 하였지만 동생은 날개가 제거되고 형은 날아가 행적을 감춘다.<sup>55)</sup> 이처럼 이 각편들에서 ‘살해된 아기장수’인 부대

52) 허남춘 외 9인, 『양창보 심방 본풀이』, 보고사, 2010, 344면.

53)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편, 앞의 책, 342면.

54) [표 1]의 22번 각편 참조.

각의 형, 혹은 동생은 주인공인 부대각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조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아기장수 설화에서 ‘살해된 아기장수’의 출현은 서사의 종결을 의미하지만 부대각 설화에서 그것은 서사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는 아기장수로 대변되는 민중영웅의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준다. 민중영웅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제거된다 해도 또 다른 민중영웅이 끊임없이 나타나 현실에 도전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살아남은 아기장수’형은 아기장수의 날개가 제거되더라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 현실에 적응한 장사가 되는 경우이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7, #15, #17, #1는 모두 ‘달아난 아기장수’형과 중복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이들 각편에서 부대각은 날개가 잘린 뒤 현실에 적응하여 사는 ‘살아남은 아기장수’로 등장하고 부대각의 형제는 날개가 잘리지 않은 채 자취를 감추는 ‘달아난 아기장수’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 #7

순간 쌍둥이는 깜짝 놀라 후닥닥 일어났다. 날개를 끊는 줄 알자 큰아들은 날개를 펴고 퍼뜩 밖으로 빠져 나가 훨훨 멀리 날아가 버리고, 작은아들은 마당까지 날아가다가 날개가 한쪽 잘렸기 때문에 더 날지를 못하고 떨어졌다. 그 후, 큰아들은 영영 돌아오지 않고 작은아들만이 남았다. 이 아들은 어떻게 힘이 세었던지 그 힘을 당할 자가 세상에 없었다. 이 작은아들이 부대각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힘센 사람을 보면 ‘부대각 증손’이라 한다.<sup>55)</sup>

#7에서 부대각의 형은 날개 제거의 위협을 피해 집 밖으로 도망갈 수 있었던 반면 부대각은 날개가 제거되어 집에 남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놓인 현실에 적응하여 힘센 장사로 활약하며 살아간다. 여기에는 우선 아기장수가 날개를 지닌 채로는 현실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

55) 쌍둥이 중에서 누가 부대각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둘 다 신이한 아기장수로서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형제 모두 설화의 중요 인물이다. 그러나 결말 부분에서 증거물인 부대각 묘의 주인공이 형이라고 되어 있다.

56) 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문고, 1996, 152~153면.

여 ‘살해된 아기장수’의 상황처럼 아기장수가 현실에서 완전히 제거되는 것도 아니다. 즉, 아기장수로 태어나더라도 날개로 상징되는 능력을 발휘하지만 않는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아기장수와 같은 비범한 인물이 태어났을 때 그가 주어진 현실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모색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아기장수와 같이 날개가 달려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이 만든 사회체제를 쉽게 뛰어넘을 수 있으므로 중앙 정부를 비롯한 지배층에게는 항상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날개로 상징되는 그 우월한 능력을 제거하는 것인데, 날개가 제거된 뒤의 아기장수는 단지 소속 마을에서 물리적 힘이 타인보다 조금 더 강한 사람일 뿐이다. 이제 체제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시골 마을의 농부라는 사회적 위치에서 그 과업을 남보다 뛰어나게 수행할 수 있는 현실순응적 존재가 된 것이다. 이처럼 ‘살아남은 아기장수’ 인물형은 제주라는 주변부의 평범한 민가에서 태어난 장수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더라도 그 능력을 온전히 발휘해서는 현실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므로 이를 포기하고 현실에 순응하는 길을 택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아기장수 설화와는 달리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함으로써 더 쉽게 체제에 동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 인물형이 아기장수의 무조건적인 현실 적응과 복종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이는 ‘달아난 아기장수’가 부대각의 형제로 항상 함께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명의 아기장수는 날개가 잘려 능력을 잃은 채로 현실에 적응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날개를 보존한 다른 아기장수가 언제나 존재한다. 이처럼 전승자들이 날개가 잘려 현실에 적응한 아기장수를 이야기할 때 날개를 온전히 보존하고 날아간 아기장수의 형상을 반드시 언급한다는 사실은 그들이 현실에 체념하지 않고 새로운 희망, 즉 날아간 아기장수의 도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말이 된다.

한편, 부대각이 ‘달아난 아기장수’로 등장하는 경우는 #11, #22이다. 이 인물형에 해당하는 작품들의 경우 달아난 아기장수가 주인공이므로 현실에서의 갈등 상황이 적을 수밖에 없어 서사가 간략하고 각편의 수도 적다.

#11

또 부대각이라고. 그 당시에 도 이제 사람이 춤 기인으로 태어났제이. 뭐 이 저드랭이에 날개가 나고, 뭐 장숫감 아니여? 이러다 보니까 이제 관가에 알리몬 이런 사람은 제거해 불어야 된다 허는데 소위 저 요기 평나무덜 있잖여, 풍낭 저런거. 이런 놈은 살려서 안되겠다, 이렇게 해서 소위 쇠악배 허면 알까? 모르지? 옛날은 소 질메에 짐 실을 때는 쇠악배 저 열두발이요 으섯발 씩 해서 평나무에 풍풍 부대각을 묶었거던.

묵영 딱 놔서 이놈은 이래서 죽여야 된다. 험디 워낙 장사라서 이 양반이 힘을 ‘북’ 쓰니 그 놈의 배가 끊어지고 나무가 매어져서, 딱 뛰어당 바다 위로 날렸다 이러는 거예요.<sup>57)</sup>

위에서 부대각은 날개가 달렸다는 사실로 관가의 견제를 받아 나무에 묶이지만 그 나무를 뽑아 바다에 던지고 사라진다. 아기장수가 자신을 거부하는 현실을 도리어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즉, 날개가 잘리지 않은 영웅은 현실과 양립하기 힘든 존재이므로 차라리 현실에서 사라지는 선택을 하고 있다. 이런 선택에는 양가적인 의미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제주라는 주변부에서 영웅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을 전복시킬 능력이 있는 영웅의 출현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기장수가 날개가 제거되지 않은 채 계속 성장하여 영웅적 과업을 성취하는 ‘영웅이 된 아기장수’형이 있다. 이는 총 22편의 각편 중 14편을 차지하며 가장 활발한 전승을 보인다. 여기서 아기장수는 날개를 감춘 채 성장하여 마을의 도둑을 잡고 백성을 해치는 국마를 퇴치하는 등 현실에서 훌륭한 업적들을 성취한다. 즉, ‘영웅이 된 아기장수’는 일반적인 아기장수들과는 달리 명확한 의지와 동기를 지닌 주체적인 인물로서, 영웅으로서의 자의식을 지니고 끊임없이 집단을 위한 과업을 달성하려고 노력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부대각은 주변부의 영웅이라는 현실적 한계에 부딪혀 결국 죽음을 맞게 되지만 죽음 이후 그는 집단의 영웅으로 인정받게 되며 나아가 본풀이에서는 신으로 좌정하여 신앙의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이 부대각이 아기장수임에도 불구하고 날개를 지닌

57)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편, 「부대각(1)」, 『백록어문』 11, 백록어문학회, 1995, 267면.

채 현실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달성하는 각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부대각이 성공한 민중영웅에 대한 기대가 강하게 투영된 인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부대각은 집안, 가문, 혹은 마을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집단의 모범이 되는 인물인데, ‘영웅이 된 아기장수’형에서 이러한 모범적인 행위가 가장 두드러지게 형상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대각 설화에서 아기장수는 각편마다 다양한 형상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다양한 모습은 제주의 현실적 한계를 진지하게 인식한 후 그 안에서 취할 수 있는 태도를 다각적으로 모색한 끝에 도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네 가지 형상의 아기장수는 모두 현실의 부당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그것을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간단히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현실의 문제를 환상을 통하여 임시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최대한 가능한 해결책을 보여주려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하나의 각편에 서로 다른 아기장수가 함께 등장하여 현실성을 보완하면서 다양한 해결책을 보여주기도 한다. 다시 말해, 부대각 설화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부대각의 형상과 다채로운 결말은 상보적인 역할을 하면서 전승자들이 구체적인 맥락에서 현실을 사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 2) 중앙 권력과 대립하는 아기장수

일반적인 아기장수 설화에서 아기장수의 적대자는 주로 아기장수의 부모, 혹은 친지로 등장한다. 그러나 부대각 설화에서는 중앙 권력이 적대자로 부각되고 있다. 부모가 부대각의 적대자로 등장하는 경우는 #7, #10, #15, #17, #19, #22의 6편밖에 없는데, 이 중에서 #7, #15, #17, #19의 4편은 앞서 살핀 ‘살아남은 아기장수’형으로서 부모가 부대각의 날개를 자르긴 하지만 부대각은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경우이다. 그리고 #22는 ‘달아난 아기장수’형으로, 부모가 부대각의 날개를 자르려 하지만 부대각은 날개가 잘리지 않고 날아가 사라진다. 마지막으로 #10은 부대각이 날개가 잘려 살해되는 ‘살해된 아기장수’형인데, 여기에서도 부대각을 살해한 주체는 부모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sup>58)</sup> 이처럼 부대각의 적대자가

부모로 등장하더라도 부모는 단 한 번도 부대각을 직접적으로 살해하지 않는다.

반면 중앙 권력이 부대각의 적대자로 등장하는 각편은 #6, #8, #9, #10, #11, #12, #14, #16, #17, #18, #20, #21의 12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여기에서 중앙 권력은 부대각을 폭력적으로 살해하는 주체로 묘사되며 부대각의 부모 및 친지, 동네사람들 등은 부대각과 같은 편을 형성하여 중앙과 대립한다.

#### #8

처음에 부대각의 부모님이 부대각을 낳았을 적에 거드랑이에서다가 털이 나오고 날개가 나오기 시작했거든? 그러니 그 당시 정치 상황으로 봐서는 이렇게면 역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역적이 되면은 자기네가 오죽이 멀히고 그니까 일단은 부대각을 처음에 난 사람을 이제 남몰래 물어둔거야. 생매장한거지. 그래서 이제 또 다음에 난 것이 또 그렇게 낫단 말이야. 근디 두 부부가 의논하기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쫓기 때문에 다신 죽일 수가 없다, 게서 키운 거지.<sup>59)</sup>

#### #12

경 허니까 이젠 삼일궤장은 일뤼궤장은 몰랐다가 일뤼 넘은 후로는 아 빠한티 말했주게. 애기가 이제 좇갱이 아래 놀개 달고 방안에서 막 놀아 땡긴다고 허난. 이걸 알아나면은 그 때는 이제는 순경이여 뭐여 해도 그 때는 스령, 스령 해났주게. 스령이 왕 잡혀가면은 우리는 애기를 못 본덴 허난, 게민 아무한티도 말허지 안허기로 헐.<sup>60)</sup>

위의 각편들에서 부모는 모두 부대각의 날개를 발견하고서도 그를 살해하지 않는다. 우선 #8은 부대각이 형제로 태어났다는 서사적 장치를 통하여 부모의 살해를 막고 있다. 처음에 아기장수가 태어났을 때 부모는 역적으로 몰리는 상

58) [각편 10]은 세 명의 연행자가 함께 연행하였는데, 부대각에게 위협을 가한 주체가 부대각의 어머니라고 하는 연행자도 있었고 관군이라고 하는 연행자도 있었다. 누구의 전승이 옳은 것인지 연행자들도 확신하지 못했다. 본고 <부록> 80~81면 참조.

59)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편, 「부대각(1)」, 『백록어문』 24, 백록어문학회, 2008, 342면.

60)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편, 「부대각(1)」 『백록어문』 11, 백록어문학회, 1995, 274면.

황을 두려워하여 그를 매장함으로써 중앙의 법을 충실히 지킨다. 그러나 아기장수가 거듭 태어남으로써 부모는 그것이 하늘의 뜻이라 믿고 그를 죽이지 않게 된다. 즉, 형제 아기장수의 탄생이라는 장치를 통하여 부모는 중앙 권력이 만든 ‘인간의 법’을 뛰어넘는 ‘하늘의 법’을 호명함으로써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모는 중앙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부대각의 생명을 보존한다. #12에서 부모는 아이가 사령(使令)에게 잡혀가거나 역적으로 몰리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아예 날개의 존재를 감추는 방법을 쓴다. 즉, 부모 또한 중앙의 법을 어기면서 부대각과 한 편이 되는 것이다. 또한 부모는 중앙 권력을 거스르는 이유로 ‘우리 아기를 보고 싶은 마음’, 즉, 인성을 거론함으로써 중앙 권력의 비인간성과 독단성을 폭로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처럼 위의 각편들은 중앙에 대한 부모의 전면적인 대립을 보여줌으로써 중앙을 유일한 적대자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 #9

마 뭐 그 웨에 이제 이런 책들을 보게웨면은 뭐 형제가 탁 긴장하게 나가지고선 이제 그 날개 돌헸다하지. 그니까 이제 그 누가 날개 돌헸다 하게 웨면은 그때는 이제 역적으로 몰리고 여튼 하니까 명주를 둘러가지고 날개를 이래 감앗다 이제.<sup>61)</sup>

#### #14

옛날 제주도에 이형상 목사가 부임한 적이 있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제주도 400여 리 길을 여러 군졸들을 거느리고 순력 길에 나섰다.

순력꾼들은 성안에서 출발하여 우선 동쪽으로 돌기 시작했다. 여러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온 백성들은 명석을 지고 나와 펼쳐 놓고는 그 위에서 큰절을 올렸다. 북촌리(朝天面 北村里) ‘정지폭낭’에 이르러서 다시 동쪽으로 행차를 계속했다.

거의 한동리(舊左邑 漢東里)에 이를 무렵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한길 저쪽에서 뿔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움직거리는 물체가 하나 있었다.

61)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편, 「부대각(1)」, 『백록어문』 24, 백록어문학회, 2008, 352면.

한 형방(刑房)이 목청을 돋구며, ‘목사님의 순력이신데 길을 비켜라’고 외쳐도 막무가내였다.

목사도 그 광경을 보고는 패섬하게 생각했는지 여러 군졸들을 향하여 소리쳤다.

“여봐라, 저게 뭇이나?”

“귀신인지 생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길을 비키라고 해도 반응이 없는 줄로 아옵니다.”

“모두들 하마(下馬)하고 어서 가서 확인하고 와라!”

목사의 명령을 받은 여러 나졸들이 창과 활을 들고 달려가서 보니 연자매(碾子磨) 밀돌을 등에 지고 조심조심 걸어가는 것이다. 그 거대한 돌덩이 하며 부리부리한 눈망울과 몸집에 모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중 한 형방이 나서서는,

“너는 오늘 목사님이 순력하시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나?”

“동네 사람들의 부탁으로 밥이나 얻어먹고 살기 위하여 이런 상일을 하는 막일꾼이 되옵니다.”

슬며시 다가선 목사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여러 나졸들에게 저 밀돌을 들어보라고 지시했다. 60여 명이 힘을 모아도 연자매 밀돌은 끄덕거리지도 않았다. ‘대단한 장사가 이 마을에 있구나!’ 하며, 일단 순력을 마치고 이 사실을 어전(御前)에 보고했다.

(중략)

임금은 침착하게 부씨 장사의 옷을 벗겨보도록 형방에게 지시했다. 형방은 부씨 장사에게로 다가가서 옷옷만 하나 하나 벗겨나갔다. 깜짝 놀라서 뒤로 나자빠지는 바람에 임금은 물론 거기에 모인 관원들 모두가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다. 날개였다. 제주에서 잡아 온 부씨 장사의 양겨드랑이에 날개가 돋혔는데, 그것이 새끼줄로 허리에다 딱 붙게 잡아 묶여 있었다.

임금은 모든 벼슬아치들을 조용히 불러세워 놓고, 제주에서 온 장사를 죽일 계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날개 돋힌 부씨 장사를 살려둘 경우에는 반드시 제주도에서 용마(龍馬)도 따라서 태어나게 될 것인데, 만약 그럴 경우에는 우리들은 모두 죽고야 만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sup>62)</sup>

위의 각편들은 부모가 아예 등장하지 않고 오직 중앙 권력만이 부대각에 대한 적대자로 등장하는 경우로, 모두 7편이 이에 해당되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9에서는 부대각이 날개가 달린 사실을 발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그저 날개를 명주로 감아서 감추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는 부모가 자식의 날개를 발견하고 날개 제거를 시도하는 화소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인데, 따라서 이 각편에서 부대각의 적대자는 중앙 권력으로 일원화된다. 그리고 #14는 탄생 및 성장에 관한 화소 없이 부대각이 청년이 된 이후부터 이야기가 전개되는 경우인데, 따라서 날개를 발견하는 역할 또한 부모가 아니라 임금 및 관원들이 대신하고 있다. 즉, 다른 아기장수 설화에서는 날개를 발견한 부모가 아이와 집안의 몰살을 걱정하는 반면, 여기에서는 임금과 관원들이 직접 아기장수의 날개를 발견한 후 그것을 놓아두면 “우리들은 모두 죽고야 만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 또한 부모 대신 중앙을 부대각의 유일한 적대자로 상정하여 부대각과 중앙의 대립적 관계를 부각시키고 있는 경우이다.

그런데 #14의 경우 부대각의 정체를 알아보고 임금에게 보고한 사람이 당시 제주 목사였던 병와 이형상(瓶窩 李衡祥, 1653~1733)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형상은 28세(1680, 숙종 6)에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부터 76세(1728, 영조 4)까지 관직생활을 한 인물로서<sup>63)</sup> 지방관을 역임하면서 지역의 민생 안정 및 유교적 풍속 교화에 힘을 써 부임하는 곳마다 많은 치적을 남겼다.<sup>64)</sup> 제주 목사로는 50세(1702, 숙종 28) 때 부임하여 이듬해

62) 제주도문화공보담당관실 편, 『제주도전설지』, 제주도, 1985, 193~194면.

63) 그러나 서인과 남인이 분열 대립하고 있는 봉당정치의 상황으로 인해 실직에 종사한 기간은 12년에 불과하였으며 그중 8년을 외직으로 보냈다. 부영근, 「병와 이형상의 한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3~8면 참조; 임성원, 「병와 이형상의 악부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4~9면 참조.

64) 이형상은 34세에 광주 경력(廣州 經歷)이 되어 당시 흉년이던 광주에서 구휼사업에 힘썼고 35세에는 성주목사(星州牧使)로 부임하여 충근(忠勤) · 효제(孝悌) · 근학(勤學) · 수신(修身) 등의 20조를 반포하고 충렬사(忠烈祠)를 건립하는 등 유교를 장려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37세에는 금산군수(鎭山郡守)로 덕유산의 산적을 소탕하고 38세에는 청주목사(淸州牧使)로 기아에 허덕이는 백성을 구제하였다. 이후 동래부사(東萊府使)와, 양주목사(楊州牧使)를 거쳐, 47세에 경주부윤(慶州府尹)에 이르기까지 부임하는 곳마다 실천적 목민관으로서 많은 치적을 남겼다. 이형상의 생지시(生誌詩)에는 이러한 이형상의 목민관으로서의 자세가 잘 드러나 있다. 박정희, 「병와 이형상의 삶과 도학의 시적 표현에 대한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81~89면 참조.

봄에 파직당해 돌아왔는데, 『무오정시문무과방목(戊午庭試文武科榜目)』에 따르면 부대각(부시흥)은 1678년(숙종 4)에 급제하였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형상과 부대각이 동시대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이형상은 제주에 부임한 1년 동안 제주도민의 민생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도민들의 환영을 받았으나<sup>65)</sup> 이러한 치적에도 불구하고 신당 철폐 정책으로 무교를 숭상하던 도민들과 심각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신당 철폐 정책은 무속의 신앙 체계를 유교 제사 체계로 대체함으로써 유교식 지배 체제를 확립하려는 정책이었는데, 이는 지역의 전통적인 무속 신앙과 일체의 타협을 거부한 급진적인 정책이었기 때문에 많은 반발을 샀다. 그리고 이형상 목사가 임기를 마치고 돌아간 뒤 무력화되어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이 되었다. 특히 이형상의 신당 철폐에 관한 설화 세 편에는 모두 그가 부정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는데<sup>66)</sup> 이를 통해서도 이형상이 신당 철폐 정책과 관련하여 대다수 제주도민들의 반발을 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제주도민들의 반발을 샀던 이형상이 부대각 설화에서 부대각을 체포하여 중앙 권력에 넘기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은 전승자들이 이형상과 부대각을 각각 중앙 권력과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인물로 바라보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이형상은 민생을 위하여 다양한 선정을 베풀었으나 본질적으로 중앙 권력에 속한 지배계층으로서 제주도민에게는 정신적 뿌리를 위협하는 이질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다.

65) 구체적으로 다음의 여섯 가지 정책을 펼쳤다. 1) 국영 목장에 소속된 목자(牧子)는 마소가 죽거나 사라졌을 경우 이를 변상해야 하는 법이 있어 그 부담으로 인해 인신매매가 행해지는 상황이었으므로 목자가 말을 징출하는 수를 반으로 줄이고 인신매매를 금지하였다. 2) 잠녀(潛女)와 포작인(浦作人)에게 지나친 공납이 요구되었으므로 진상하던 전복을 관가에서 값을 쳐 지급해 주도록 하였다. 3) 환곡 가운데 모곡(耗穀)을 줄여 백성들의 부담을 줄였다. 4) 공물을 진상하고 물자를 구입해 오기 위한 배가 부족하여 퇴역한 전선(戰船) 4척을 사들임으로써 백성들의 부역을 줄였다. 5) 제주 내의 군문 장교(軍門 將校)들도 벼슬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6) 양자 들이는 것에 예조(禮曹)의 승인이 필요했는데 거리상 불가능하여 대가 끊긴 집안이 많았는데 이를 목사가 직접 허가하도록 하였다. 조성윤 · 박찬식,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지배체제와 주민의 신앙」, 『탐라문화』 19,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8, 201~204면 참조.

66) 현길언의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인식 -이형상 목사의 신당 철폐에 대한 설화적 인식-」(『탐라문화』 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3)에 이러한 설화들에 관한 분석이 상세하게 되어 있다.

반면 부대각은 제주도민의 대표로서 이러한 중앙 권력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로 등장한다. 특히 그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뒤 자신의 한을 곳으로 풀어달라고 하면서 조상신본풀이를 남기는데, 도민들은 이를 받아들여 부대각을 위한 본풀이를 전승하게 된다. 즉, 부대각은 중앙에 대립되는 주변부의 영웅일 뿐만 아니라 제주의 무속 신앙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신당을 철폐하고 유교식 제사체계를 확립하려 한 이형상과 대비되는 인물인 것이다. 그리고 부대각은 결국 중앙 권력에 의해 살해되지만 신앙의 주체자인 민중들은 유교 통치체제를 대변하는 이형상을 거부하고 부대각을 위한 조상신본풀이를 연행하면서 자신들의 정신적 뿌리인 무속신앙을 수호하려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대각의 적대자는 중앙 권력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주변부를 힘으로 굴복시키는 중심부이자 폭력적인 국가 체제를 의미하며, 또한 제주도의 무속 신앙을 거부하는 유교식 통치 체제를 의미한다. 그리고 부대각은 이에 맞서는 제주의 영웅이자 무속 신앙으로 대변되는 제주도의 정신적 뿌리를 상징한다. 그는 결국 비극적으로 살해되지만 그 죽음으로 인해 전승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고 동일화시킬 수 있는 인물이 되며 이를 통하여 중앙 권력의 통치체제와 대립하는 전승의식을 대변하게 되는 것이다.

## 2. 구조의 특성

### 1) 공간 이동과 결부된 영웅의 일대기 구조

일반적인 아기장수 설화는 아기장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의 이야기를 일대기적 구조로 다루면서 그 가운데서 주인공인 아기장수와 그를 해치려 하는 부모의 갈등을 중점적으로 보여준다. 아기장수 설화의 구조적 측면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아기장수를 피지배층을 대표하는 민중영웅으로 상정하면서 부모에 의

해 살해당하는 아기장수는 신분적 한계로 인하여 좌절할 수밖에 없는 민중영웅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민중영웅 구조 연구의 선편을 잡은 조동일은 귀족적 영웅과 평민적 영웅을 구분하면서 평민적 영웅의 이야기는 ‘미천한 혈통을 지닌 인물의 탄생 - 범인과는 다른 탁월한 능력 소유 -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음’의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분석하고 이러한 평민 영웅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기장수라고 주장하였다.<sup>67)</sup> 심정섭은 아기장수 설화에서 아기장수의 일대기가 ‘탄생 - 갈등 - 죽음’, 혹은 ‘탄생 - 갈등 - 재생의 좌절 - 죽음’의 구조로 형상화되면서 신분의 한계로 인해 패배할 수밖에 없는 평민적 영웅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분석하였다.<sup>68)</sup> 이를 발전시킨 이해화는 아기장수가 체제저항자라는 측면에서 체제순응적인 영웅소설의 주인공들과 구분된다고 보고 아기장수 설화는 피지배층의 체제저항자가 그 부모로 대표되는 비굴한 민중과 지배층의 공모로 인해 좌절과 비극의 종말을 거두게 되는 내용이라고 보았다.<sup>69)</sup> 이상의 논의를 받아들여 박성순은 아기장수 설화의 구조의 변이형에 담긴 민중의식을 고찰하였는데, ‘출생 - 죽음’, 혹은 ‘출생 - 대결 - 죽음’의 구조를 보이는 아기장수 설화가 ‘출생 - 죽음 - 재생(재출현)의 암시’, 혹은 ‘출생 - 대결 - 죽음 - 대결 - 죽음 - (득천)’으로 변이됨으로써 민중은 자신들의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sup>70)</sup> 또한 강유리는 이데올로기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구조적 대립을 더욱 세밀히 분석하였는데, ‘날개형’의 아기장수 설화에는 반대세력의 성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지배이데올로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지배층의 가능성을 상징하는 아기장수를 그 부모인 피지배층이 스스로 살해함으로써 그 책임을 전적으로 피지배층 자신들의 어리석음으로 돌리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sup>71)</sup>

67) 조동일, 「영웅의 일생, 그 문학사적 전개」, 『동아문화』 10,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1971.

68) 심정섭, 「전설의 문학적 구조」, 『문학과지성』 27, 문학과지성사, 1977.

69) 이해화, 「아기장수 전설의 신고찰」, 『한국민속학』 16, 한국민속학회, 1983.

70) 박성순, 「아기장수 전설과 민중의식」, 『국어국문학 논문집』 16,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부, 1993.

71) 강유리, 「<아기장수> 설화 연구 -이데올로기 수용의 관점에서-」, 『한국고전연구』 2, 한국고전연구학회, 1996.

위의 분석과 같이 부대각 설화도 부대각의 탄생부터 죽음까지의 이야기를 ‘탄생 - 갈등 - 죽음(혹은 사라짐)’의 일대기적 구조로 다루며 부대각이 선천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제주 출신의 평민이라는 신분의 한계로 인하여 억울하게 희생되고 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민중영웅으로서의 아기장수가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좌절하는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부대각 설화의 경우는 이러한 서사구조가 제주와 한양(서울) 간의 공간 이동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부대각은 제주에서 탄생하나 한양으로 올라가 다양한 사건을 겪고, 다시 제주로 돌아오는 길에서, 혹은 귀향했다가 다시 떠나는 길에서 죽음을 맞게 된다. 이와 같이 공간의 이동과 서사구조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이 설화에서 제주와 한양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서사구조를 분석하기 전에 우선 제주와 한양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대각 설화에서 제주와 한양은 사건이 일어나는 공간적 배경일 뿐만 아니라 갈등을 직접적으로 야기하는 상징적 장소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아기장수 설화의 핵심적인 대립이라 보았던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대립이 부대각 설화에서는 제주와 한양의 공간적 대립으로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대각 설화에서는 부대각을 부모가 직접적으로 살해하는 각편이 단 한 편도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부대각의 부모 및 주변인들은 부대각과 함께 중앙 권력에 대립하는 피지배 민중들의 집단으로 묶이게 되는데, 이들은 다른 한편으로 한양에 대립하는 제주도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보여준다.

#### #4

경헨에 그 하르바님이 와가지고 모든 정리를 흐고 방상에 다 흘 일을 다 해놓고 서울을 올라가게 되니까, 그 선후 사공들 있잖아. 막 뒤에 딸르는 사람들.

그니까 이제 서울에서 흐는 말이, 한양, 옛날은 한양이라 했거든, 서울을 보고. 서울에서 이제 흐는 말이,

“제주 대각 하르바님이 오면 우리는 못 산다, 게니까 죽여불자.”

해서 이제 막 패 들러 오난,  
 “나는 나 혼자 죽지, 왜 선후 사공들이 죽게 하겠느냐.”  
 겐 그 대각 하르바님이 무쇠방석을, 거기서 준 거라. 게난 무쇠방석을  
 탄 오고 무쇠방석을 탄 갈 때에, 이제 그 선후 사공ㄴ라,  
 “무쇠 방석을 노래으라.”  
 겐 무쇠방석을 노랜 헨, 물 아래 솔솔 끌아전,  
 “나 혼자 죽으면은 너네들은 다 살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살아나가지고 그랫덴 해여, 그 하르바님이. 그래서 몇 명  
 을 위해가지고,  
 ‘나 혼자 목숨을 죽어버리몬 너네들은 살지 안하겠느냐.’<sup>72)</sup>

## #12

그 백저나던 시대에 그 제국시대 말고 그 전에 이제 군승이엔 헌건  
 군인이지 군수가 이제 전부 다 이제 제주도 이제 몰사허래 온다고 이제  
 군함 뗏척 이제 군인 뗏척 오니까 이제 그때 나문 주의허라 이제 해염  
 시니까. 그 할아버지 영을 보니까 나왓시난 이제 우리 제주도 백성을  
 살리젠 허민 어떻게 살리느냐 해연 이제 제주도 출신들을 다 모여가지  
 고 이제 허는 말이 그 부대각 하르방이 허는 말이 저재불치 혼 집이 대  
 도 혼 섬씩만 모여 오라고 불치 이제 대고 혼 섬씩만 모여 오면은 바닷  
 가로 영 뱅뱅 놓고 이제 영 해연 돌아거네 제주섬을 다 앓당 믈마다  
 노면은 이제 군함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나가 비름 뭉생  
 이 타가지고 이제 한다.

게민 전부 이제 그 불치를 이젠 대도(大斗) 혼 섬씩도 가져오고 배에  
 이제는 뭐 안해도 그때는 맥이 이서났주게 큰 맥을 담으명 다 이런 바  
 닳가에 앓다 놔그네, 하니까 아무시에 아무 날 들어온다 이렇게 허니까.  
 이젠 그때 들어오곡 헌덴 허난 말을 이젠, 비름 뭉생이를 그 하르바지  
 강 알에 영 태와가지고 이제 불치 헨 뿌려노난 제주섬을 하루에 다 돌  
 앓다는 거라. 하루바지는 입으로 푸푸 재를 불면서 물을 타가지고 물  
 또꼬냥에는 썬썬레 비차락 이젠 달아매고. 경 헨 가면서 일루 저래 영  
 헨 제주도를 혼 뗏 바퀴 돌아가니까 군함은 완 보니 하늘이 크게 불치

72) 본고 <부록> 75면.

로 그냥 해부니까. 이젠 못 들어완. 그때는 우리 살았다 헐 이젠 백성들을 다 모여오라. 허난 전부 다 모여와가지고.<sup>73)</sup>

#### #14

대각 벼슬을 받고 온다는 소식에 접한 친척들은 물론 동네사람들까지도 모여 잔치 준비를 서둘렀다. 부씨 장사가 어전에 올라가서 대각 벼슬을 받고 온다는 사실도 기뻐지만, 배가 준 죄로 늘 굶주리던 사람이 이제는 나라에서 주는 봉록(俸祿)으로 주린 배를 채우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기대가 더없는 기쁨이었다.

기다리던 배는 평대리(舊左邑 坪垈里)에 있는 포구로 입항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대각은 안 보이고 칙령만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었다. 어전에서 온 나졸들은 거짓으로 섭섭한 표정을 지으며 뒤따라오던 대각님은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죽고 말았다고 전하고 나서 칙령만 남긴 채 떠나 버렸다.

부씨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은 너무나 침통했다. 바로 그날 밤 한 친척의 꿈에 부대각이 나타났다. 눈물을 글썽이며 겨드랑이에 날개 돋힌 죄로 무쇠상자에 담긴 채 바다 속에서 영원히 잠자고 있으니, 나의 원한을 큰굿 및 마당(석)으로 풀어달라고 애원하며 사라져 버렸다.<sup>74)</sup>

#4에서는 부대각이 벼슬을 하게 되어 한양에 가게 되는데 이를 알게 된 한양 사람들이 부대각을 경계하여 그가 타고 오는 배를 공격하려 한다. 그러자 부대각은 자신 때문에 죄 없는 사공들이 해를 입을 것을 염려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 각편에서 부대각을 살해하려 하는 주체는 한양 사람으로 형상화되어 있는데, 사회적 신분 등을 명시하지 않은 채 소속 공간의 이름만을 따서 적대자로서 명명하고 있는 것은 전승자들이 대립의 핵심적인 요소가 지역적 차이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양은 제주와는 달리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인물을 배척하는 공간이며, 사공으로 대표되는 제주도민을 살해하려 하는 폭력성을 지닌 공간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2에서는 조정에서 군인을 파견하

73)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편, 「부대각(2)」, 『백록어문』 11, 백록어문학회, 1995, 275면.

74) 제주도문화공보담당관실 편, 『제주도전설지』, 제주도, 1985, 195면.

여 제주를 침략함으로써 실제 전쟁이 발생하는 장면이 드러나 있는데, 제주도민들은 부대각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 군인들의 침략을 막아내고 있다. #14에서는 친척들 및 동네사람들이 부대각의 출사를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먹성 좋은 장사인 부대각이 이제는 굶주림을 면하게 되었다며 안심하고 있는 반면 한양에서 파견된 나졸들은 부대각을 수장시켜 살해한 후 제주도민들에게는 배가 침몰한 탓에 부대각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즉, 제주도민들은 부대각의 생활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한편 조정은 권력의 논리만을 따르며 인간성을 몰살하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대각 설화의 중점적인 대립이 제주와 한양의 공간적 대립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설화의 서사구조가 공간의 변화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아기장수 설화에서는 모든 사건이 아기장수의 가정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공간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반면, 부대각 설화에서는 부대각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주와 한양을 거둬 왕래하게 되므로 서사구조 또한 이러한 공간적 이동과 관련하여 형성된다.<sup>75)</sup> 구체적으로 부대각의 일대기가 크게 ‘탄생 - 갈등 - 죽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때, 그 배경이 되는 장소는 ‘제주 - 한양 - 제주’로 변화하고 있다.

| 일대기 구조 | 탄생 | 갈등     | 죽음 |
|--------|----|--------|----|
| 공간 변화  | 제주 | 한양(서울) | 제주 |

[표 6] 부대각 설화의 일대기 구조와 공간 변화

우선 부대각은 제주에서 태어나고 자라지만 성장과정에서 서울로 이동하게 된다.

75) 물론 모든 각편이 이러한 공간적 이동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 #7, #10, #11, #13, #18의 다섯 편에서는 여타의 아기장수 설화의 경우에서처럼 공간적 이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약 77%를 차지하는 나머지 17편에서는 모두 부대각의 공간 이동이 사건 발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부대각 설화의 서사구조 분석에서 공간적 이동의 양상은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1

친척덜은 전부 제사 보레(보러) 오고. 펫짝허니 시(市)에 가서 제주 성 안 오란 이렇게 바레보니, 오양간(외양간)에 쉼막이라느니 소가 매여져 시난, 도둑놈은 들어서 그 쉼을 도둑질허여 가젠 들어오니, 그것이 성안 잇는 부대각 하르방은 그거를 보앗구나. 펫짝허게 놀아간 그 도둑을 심언(불잡아서),

“너 이 집이 어떤 집인디 너 소를 도둑질 허레 왔느냐?”

심언 답도리(잡도리) 허여두고 소는 도둑질 못허연.

잇는 가운데 아이고, ‘난 여기는 살 수가 없구나.’ 펫짝 허게 놀아드는 것이 장안, 한양(漢陽) 장안으로 들어갑디다. 들어가 산에서만 이레 놀고 저레 놀고 다님더니(다니고 있더니), 흐를날은 방(訪)을 지어 부찌는(붙이는) 게 이 산에 국매(國馬)를 잇어, 혼 번 을 내려 오민(오면) 사람에게 해치고, 사람들을 죽여가는 국마가, 큰 말이 하나 있으니, ‘이 국마를 잡아주는 자가 있으면 천금상(千金賞)을 봉(封)허여주마.’ 방을 씌어 부찢 걸 보고 부대각 하르바님이 들어갓구나.<sup>76)</sup>

#8

연못이 큰 연못이 잇었는데 백마가 때가 되면은 그 물 먹으러 산에서 내려가고 거기 와가지고 한번 크게 울음을 치고 흥 울음을 치고 물을 쪽쪽 마시고 거기 잇는 무슨 나문지 모르지 큰 나무에다가 목덜미를 비비고 또 돌아가거든. 그것이 자꾸 벤복허는거라. 그런데 그 말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사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방을 부친거라. 이 말을 잡는 사름에게는 만호라는 벼슬을 주겠다. 그 만호라는 벼슬이 머냐면 지금의 대대장격인 모양이라, 만호. 만호를 별을 주겠다, 방을 붙이니까 제주도에서 부대각이 가게뎌거지. (중략) <조사자 : 아~ 그 제주도에 잇었는데 충청도에 간 거 마썸?> 으, 응, 그렇지 그렇지. 그 방을 봐가지고 방을 보니까 제주도 사또도 아마도 봐가그넹 연락을 헛겅지. 그 물 잡으래 한 번 가봐라 벼슬준다흐니까 게서 갓어, 해서 또 물을 잡앗잖아.<sup>77)</sup>

76) 김현선 · 현용준 · 강정식, 앞의 책, 329면.

77)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편, 「부대각(1)」, 『백록어문』 24, 백록어문학회, 2008, 341면.

#15

어느 해 인가 어전에서 무과과거를 본다고 하여 부(夫)씨 청년도 서울로 올라갔다.

남들은 문으로 들어갔으나 이 청년은 한 손으로 담을 짚고 나는 듯이 넘어 과거장으로 들어갔다.

힘도 장군이고 달리기도 일등이었는데 낙방하고 말았다. 삼천선비들이 모두 급제를 하여 돌아갔으나 이 청년은 그대로 과거장에 앉아 있었다.

이상하게 여긴 상시관(上試官)이 물어봤다.

“너는 어떤 인간이길래 안 가는 거냐?”

“나는 제주도 고양부 부씨요. 나는 왜 급제를 안 주는 거요?”

화가 난 부(夫)씨 청년이 눈을 부릅뜨자 놀랜 상시관이 무서운 김에 「대각」 벼슬을 내려줬다. 그래서 이때부터 부(夫)대각이라고 불리게 됐다.<sup>78)</sup>

#12

그루 후제 이젠 해녀벌이엔 현 건 이 해녀덜 시꺼가지고, 육지 가거병에 스선에 시꺼가지고 이젠 그 해녀들 벌이 해 오민, 그 하르바지네 배가 최고 잘 됐어. 최고 강 벌어 오면은 뭘 현다 허면은 그 하르바지가 막 받도 사고. 뭐 허곡 해여도 그것이 욕심을 안 나가지고 평대 중동네 이제 전부 몰래밭이라 집은 안 지스곡 숨부기허고 모래만 이슨 밭인디, 그 몰래를 이젠 그 하르바지가 절(겨울)은 들면은 우리가 이거 헐 필요가 없다. 이 몰래 전부 갈아가지고 농사지면은 우리가 헐 꺼 아니겐 헐. 그거 이젠 개 가죽 이젠 열두 장. 개 가죽이 열두 개 들면은 이제 옷 하나 만드는 거라. 옛날은 거민 눈 온 때고 뭐 현 때고 이제 강 그 가죽 해가지고, 쇠스렁 앓안 강 손으루도 굵으곡 발로도 굵으곡 허면서 그 동산을 전부 해 가지곡, 이제 몇 천만 평을 그 평대 밭을 중동네엔 서민 이제도 알아 그 마을을 이젠 벌레동산을 전부 헤싸가지고, 이젠 몬 부대각 밭이 되어 부렀어. 그 동네가 경 헐 밭을 만들어 농곡, 또 경

---

78) 고대경, 「부대각」, 『신들의 고향』, 중명, 1997, 373면.

허다가 이제 봄은 나면은 잠수 벌이를 육지로 나가고.<sup>79)</sup>

#1에서 부대각은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한양으로 떠난다. 어렸을 때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특별한 자각 없이 형제들과 소를 던지고 받는 놀이를 하는가 하면 평대리와 제주시내 사이를 수시로 날아다니고 집안의 소도둑을 잡아내는 등 거리낌 없이 자신의 힘을 발휘하였으나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깨닫게 된 이후에는 제주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서울로 올라가는 것이다. #8에는 백성에게 위해를 가하는 백마를 퇴치하기 위해 한양으로 떠나는 장면이 나타나 있는데, #2, #3, #4, #9, #20에 모두 동일하게 ‘백마(호랑이) 퇴치 화소’가 삽입되어 있다. 그리고 #15에서는 과거를 보고 벼슬을 얻기 위하여 한양에 간 부대각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12는 독특하게 벼슬이 아니라 해녀벌이를 위해서 부대각이 제주와 육지를 왕복하는데, 이는 연행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생활상에 관련된 부대각의 업적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상의 각편에서는 모두 부대각이 자신의 능력을 깨닫고 스스로 한양으로 가서 더 큰 업적을 이루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여기서 한양은 벼슬로 형상화되는 정치적 · 사회적 지위 및 경제적 풍요를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제주에는 없는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한양은 영웅이 자신의 포부를 펼치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성취’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대각이 아무리 큰 성취를 했다 해도 태생이 제주도라는 사실은 항상 부대각의 발을 묶는다. 의도했던 성취를 이룬 후 부대각은 반드시 귀향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그는 살해되고 만다.

#### #8

그래서 이젠 부대각이 배를 타그뽕 지금 저 평대리가면 그 비석이 잇잖아? 거기 중뽕이. 그 앞바다에서. 그 지금 그 사방에 안개가 캄캄히 끼고 말이지 아마도 화살을 맞았는지 뭘 맞았는지 이제 그 잠복했던 사름들 때문에 부대각이 이제 그 마침내 죽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췌방색

79)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편, 「부대각(2)」, 『백록어문』 11, 백록어문학회, 1995, 275~276면.

인가 된 방색을 물에 던져서 폭닥 날아가지고 그냥 앉았는데, 에 가라  
앉아가지고 이제 죽은거지.<sup>80)</sup>

#9

그러니까 무관들이 그땐 그 득세한 때니까 경민관 벼슬을 주고 내려가  
고 잇으니깐 수증수장식이라고 해서 제주 목사한테 이제 그 저 암캐치  
시를 내린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저 경인 벼슬을 받고 배를 타고  
제주도에 부임하는 도중에 바다에서 죽었어. 수장시켰단 말이지, 목사  
가.<sup>81)</sup>

#15

병졸들을 내주자 부(夫)대각은 제주로 배를 띄웠다. 앞 배에는 전령들  
이 타고 뒷 배에는 자신이 타고 제주바다를 다 건너올 때였다.

한라산봉우리가 조그맣게 보이자 기세가 좋은 부(夫)대각이 펄쩍 뛰  
어 올랐다. 어릴 적 생각에 단숨에 날아갈 것 같아 뛰어오른 것인데 그  
만 바다에 빠져 숨지고 말았다. 바닷속에 빠진 그는 간 곳이 없어져 시  
체도 찾지 못했다.<sup>82)</sup>

위와 같이 부대각은 한양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벼슬을 받고 제주로  
돌아오는데 그 과정에서 바다에 빠져 죽게 된다. #8, #9에서는 부대각의 능력을  
견제한 중앙 권력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살해되고 #15에서는 스스로의 능력을 자  
만한 끝에 어리석게 죽는다. 죽음의 원인은 다르게 형상화되어 있으나 모두 부  
대각이 귀향길에서 죽는다는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성취’의 공간으  
로 설정된 한양의 부정적인 이면이 드러나 있다. 즉, 부대각이 한양 내에서 뜻  
한 바를 성취하는 것은 용인되지만 한양을 벗어날 경우 중앙 권력의 견제를 받  
고 목숨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양은 성취의 공

80)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편, 「부대각(1)」, 『백록어문』 24, 백  
록어문학회, 2008, 344면.

81)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편, 「부대각(2)」, 위의 책, 352면.

82) 고대경, 앞의 책, 374면.

간이나 그곳을 벗어나는 경우 가차 없이 위해를 가하는 냉정한 지배 권력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제주는 한양과는 달리 단지 영웅이 태어나고 죽는 공간으로만 형상화되어 있다. 즉, 아무리 뛰어난 영웅이라도 제주에서는 훌륭한 업적을 이룰 수 없으며 단지 비극적으로 살해되기만 할 뿐이다. 부대각은 제주의 평범한 민가에서 태어나 농부이자 목자로서 배고픔에 시달리며 살아가는데, 이러한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한양에 가서 더 큰 업적을 이루고 벼슬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한양에서 새로운 성취를 하지 않는 이상 제주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도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평범한 촌부로 평생 굶주리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제주가 부대각의 탄생과 죽음의 공간으로 등장하는 현상에는 주변부로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제주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부대각 설화는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공간의 이동에 따라 전개되면서 제주를 민중영웅의 탄생과 죽음의 공간으로, 그리고 한양을 성취의 공간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부대각이 영웅으로서의 큰 포부를 품고 주체적으로 탈향하는 장면과 결국 바다에서 수장된 채 귀향하는 장면이 대조되며 비극성이 극대화된다. 이를 통하여 지배체제의 속성 및 주변부로서의 제주의 한계가 나타난다.

## 2) 중층화된 대립 구조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대각은 한양과 대립되는 제주의 영웅으로 등장한다. 그는 영웅으로서의 포부를 품고 한양으로 떠나지만 결국 한양에서 중앙 권력의 견제를 받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대각은 단 한 번도 한양을 직접 공격하거나 그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지 않는다. 오히려 죽기 전까지 그는 한양의 중앙 권력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며 도움을 주고받는다.

#1

경 허영 부대각 하르바님이 펴작 허게 가는 게 남산으로 올라가 베려  
보니(살펴보니) 우으(위)로 ㅎㅎ하게 내려오는 게 국마가 내려왓시난(내  
려오고 있으니), 주먹을 불끈(불끈) 쥐고(쥐고),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누군 줄 아느냐. 여기 와서 무릎(무릎)을 꿇어  
라.”

허여 호통으 허니, 물이 바바막 떨어면서 오란(와서) 떡 무릎을 꿇으니,  
그걸 잡아 앓언(가지고) 어전(御殿) 상시왕(上試官)에 들어가,

“국매를 잡아십네다.”

“과연 기특(奇特)허구나. 니 소원이 무엇이냐?”

“군사덜 삼천 명만 내여주고 군함(軍艦)을 서른 세 척을 지어주십서.”

“무엇 허겟느냐?”

“흔번 대국(大國)을 치겟습니다.”

“그걸 그럴라면 흔는 수 엇이 다 출려주마(차려주마).”

군사 삼천명을 내여주니, 돌아앗언(데리고)

내려오는 것이 울진(蔚珍) 강진(康津)

삼십삼포(三十三浦)로 내려온다<sup>83)</sup>

#4

국매를 죽였던 허는 사람도 있고, 거기 있는 사람이, 옛날 말 흔는 것  
도 다 틀려. 들은 대로 곧는(말하는)거니까. 이 사름 저 사름 마을을 못  
살게 군 그런 사람이 이서가지고 기운이 세니까 그 사람을 죽였던, 그  
국매를 죽였던, 그 잡으니까,

“너는 무슨 벼슬을 받겠느냐?”

“대각 벼슬을 받겠습니다.”

부대각, 대각. 계난(그래서) 부대각 하르바님이라.<sup>84)</sup>

83) 김현선 · 현용준 · 강정식, 앞의 책, 329면.

84) 본고 <부록> 7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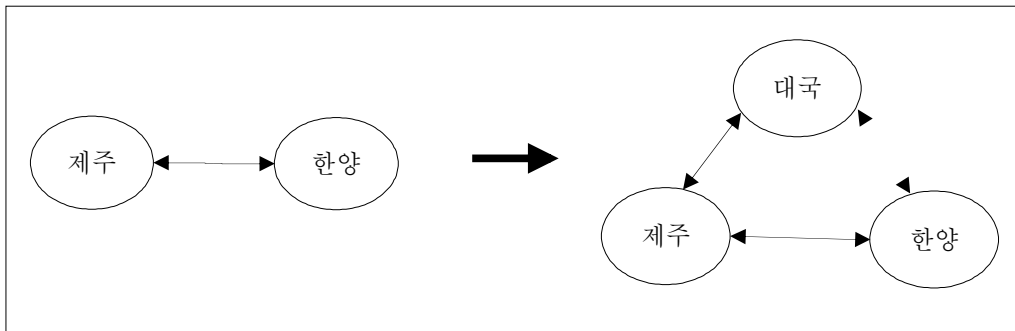
#6

경흐난(그러니까) 부대각 하르방이 저걸로 해서 나라의 군사들 내노면  
은 하르방이 나가면은 그 싸움을 이경 오지만은 하르방이 안 나가며는  
싸움을 못했지. 경흐니까 한국 일대 나사서(나서서) 그 하르방이 칼을  
일러서 짹 그걸 흐나 싸움을 흐나 해도 그 하르방을 이길 수는 어서 나  
서.<sup>85)</sup>

#1과 #4에서 부대각은 국마를 물리침으로써 국가의 우환을 없애주고 임금  
그에 대한 보답으로 부대각의 소원을 들어주고 있다. 이와 같이 부대각은 지배  
체제 내에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음으로써 한양과 우  
호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부대각이 적대감을 가지고 공격하려 하는 대상  
은 오히려 ‘대국’이라는 국가체제 외부의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다. #1에서 부대  
각은 임금에게 대국을 치겠다고 하면서 군사와 군함을 요구하고 임금도 이를  
흔쾌히 허락한다. 그리고 #6에서도 부대각은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 항상  
승리하는 용맹한 장군으로 묘사된다. 즉, 부대각은 제주를 대표하는 영웅으로서  
한양으로 형상화된 중앙 권력과 본질적으로 대립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대  
국’이라는 공동의 적을 상징함으로써 한양과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다. 이는 부대각이 공격 대상을 한양에서 대국으로 대치함으로써 대상을 간접화  
시키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제주와 한양이 맞서는 이  
항대립 구조는 대국이 제3항으로 삽입된 중층적 대립 구조로 변화하게 된다. 이  
러한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85) 본고 <부록> 78~79면.



[그림 2] 부대각 설화의 중층적 대립 구조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제주, 한양, 대국은 각기 서로 대립하면서 중층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공격 대상이 ‘대국’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격 대상의 간접화는 ‘한양 - 제주’의 관계와 ‘대국 - 한양’의 관계가 구조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양 - 제주’의 대립 관계는 지배와 피지배, 중심부와 주변부의 대립 관계를 뜻하는데, 이는 한양과 대국의 대립 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화이론(華夷論)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대국은 정치경제적인 중심부로서 한양과 책봉 - 조공의 위계를 갖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유사성에 의하여 ‘한양 - 제주’의 관계가 ‘대국 - 한양’의 관계로 자연스럽게 치환되고 부대각은 대국을 공격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격 대상의 간접화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주변부의 영웅인 부대각이 중앙 권력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지배체제를 전복시키는 인물로 묘사될 수 없기 때문이다. 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대각 설화는 전승자들에게 역사적 사실로 인식되며 전승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배체제를 직접적으로 전복시키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 따라서 쟁취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욕망을 다른 대상으로 전이시켜 한양이 아니라 대국과 대립하는 부대각의 형상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일차적으로 제주가 한양의 지배 이념을 받아들여 순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부대각의 공격 대상은 한양이 아니라 대국, 즉, 한양이 적대감을 지닌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인용한 #1에서는 부대각이

대국을 치러 전장에 나서자 한양에서 이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처럼 부대각은 대국을 극복하고자 하는 한양의 욕망을 받아들이고 이를 대리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를 단순히 부대각이 한양에 동화된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 여기에는 제주의 한양 극복의 욕망을 우회적으로 성취하려는 구조적 전략이 내재되어 있다. 한양에서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대국 침략을 부대각이 시도한다는 것에는 이미 부대각이 한양의 능력을 넘어서는 영웅이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대각은 한양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영웅적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대각의 대국 침략 행위는 한양의 대국 극복 욕망을 실현해주기 위한 행위처럼 보이지만 이는 동시에 제주의 한양 극복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인 것이다.

### 3. 갈래의 특성

#### 1) 부대각 신화와 전설의 상호성

아기장수형 부대각 설화의 가장 큰 특성은 그 갈래가 전설뿐만 아니라 신화(본풀이)<sup>86)</sup>로도 존재한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아기장수 설화를 전설에 한정하여 분석해왔는데, 이와 같은 분석은 조동일이 신화 · 전설 · 민담을 자아와 세계의 관계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에 따르면 자아는 의식과 행동의 주체이며 세계는 의식과 행동의 대상에 해당된다. 이에

---

86) 본풀이는 ‘심방’이라는 무속적 사제가 의례 때 신의 강령을 청하며 부르는 노래를 말하며 대표적인 구비신화이다. 정진희, 앞의 논문, 19면.

따라 신화에서는 자아와 세계가 상호 보완적이고 동질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신화적 질서를 형성하는 한편, 전설에서는 자아에 대하여 세계가 일방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민담에서는 반대로 세계에 대하여 자아가 일방적인 우위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세 갈래가 구분된다. 그리고 조동일은 이러한 측면에서 아기장수 전설이 세계의 일방적인 우위로 서사가 전개됨으로써 “전설적 좌절”이 형상화되는 대표적 유형이라 논하였다.<sup>87)</sup> 그리고 이후의 연구들 또한 주인공의 좌절과 비극적 세계관 등 전설 장르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아기장수전설에 주목하였다.<sup>88)</sup>

한편 천혜숙은 이러한 삼분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아기장수 전설은 단지 전설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신화적 성격을 지닌 “신화적 전설”임을 논하였다. 이에 따르면 아기장수 전설은 건국신화에 대한 상대적 인식의 맥락에서 형성된 것으로, 건국신화와 동일한 신화소를 지니고 있으나 신화적 총합에는 실패한 결과물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신화 · 전설 · 민담을 전승집단의 세계인식적 차원과 구술양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신화는 동질적 인식, 전설은 규명지향적 인식, 민담은 향유지향적 인식을 지닌다고 분석하였다.<sup>89)</sup> 그 어떤 하나의 각편도 하나의 갈래로 규정될 수 없으며, 모든 각편들은 어느 정도 각 갈래의 특성을 혼합적으로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sup>90)</sup> 천혜숙의 이러한 문제제기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신화 · 전설 · 민담의 세 갈래가 순차적으로 발생하였다는 통시적 관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각각의 갈래에서 특유의 세계관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 세계관이 순차적으로 발생한 것이었는지는 논증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부대 각 설화와 같이 한 인물에 관한 이야기가 다양한 갈래로 전승되고 있는 경우에

87) 조동일, 「자아와 세계의 관계에 대한 전설의 설문」, 『한국문학의 갈래 이론』, 집문당, 1992, 155~166면(『어문학』 27(한국어문학회, 1972)에 수록된 것을 채수록).

88) 김정섭, 「전설의 문학적 구조」, 『문학과지성』 27, 문학과지성사, 1977 봄; 김재용, 「전설의 비극적 성격에 대한 일고찰」, 『서강어문』 1,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1; 장장식, 「아기장수전설의 의미와 기능」, 『국제어문』 5, 국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4; 김기설, 「패배형 전설 연구」, 『월산 임동권 박사 송수기념논문집』, 집문당, 1986; 전신재, 「아기장수전설과 비극의 논리」, 『한림대학교 논문집』 8, 1990.

89) 천혜숙, 「전설의 신화적 성격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26~33면.

90) “개개의 어떠한 작품도 (……) 한 장르의 완전한 표본이 아니다. 모든 작품들은 다소간 혼합된 장르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달리 말하면 장르들은 여러 특성들의 복합적 구성체이다.” 시모어 채트먼, 『이야기와 담론』, 푸른사상사, 2003, 17면.

는 신화와 전설이 더 복잡하게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립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와는 다른 분석을 요한다.

먼저 부대각 신화는 부대각 전설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된 것으로서 ‘전설의 신화화’의 측면을 강하게 보여준다는 특징이 있다. 역사적 인물에 관한 전승이 해당 인물에 관한 신앙으로 정착되는 현상은 일반적인 것으로서 이기태는 경북 영주시 순흥면 읍내리의 성황당 및 단종을 신으로 모시는 영월과 그 주변부를 조사하여 지역사와 관련된 역사적 인물이 제의의 대상신으로 모셔지게 되는 과정을 분석하였으며<sup>91)</sup> 서종원은 서해안 지역에서 임경업이 신격화되는 과정을 밝혔고<sup>92)</sup> 이경엽은 순천의 성황신앙 및 산신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의 토착 세력이 지역 수호신으로 신격화되는 현상을 분석하였다.<sup>93)</sup> 그리고 특히 최명환은 단종설화가 역사시대에 전설이 신화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설화라고 주장하면서 전승자들이 일차적으로 역사적 사건을 수용하는 전설을 전승한 후 여기에 신성성이 가미되어 신화가 되는 것임을 밝혔다.<sup>94)</sup> 부대각 또한 조선 후기의 인물로서 역사시대에 전설이 신화화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부대각 설화는 지역민들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고 전승하고 있으며 증거물이 설화의 내용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비극적 죽음으로 원혼이 된 대상을 제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sup>95)</sup>

91) 이에 따르면 지역민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적 맥락에 기반한 정치적 상징을 재생산하면서 제의 전통을 창출한다. 지역민들은 계층에 따라 역사적 인물에 대한 상징화를 상이하게 시도하며 자기중심적으로 문화를 재생산하려 한다. 그리고 이렇게 상이한 인물 해석을 통하여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되면서 제의의 전통이 창출된다. 이기태, 「사회계층에 따른 역사적 인물의 신격화 과정과 제의 전통의 창출」, 『비교민속학』 15, 비교민속학회, 1998; 이기태, 「역사적 인물의 신격화 과정과 전통의 창출」, 『비교민속학』 17, 비교민속학회, 1999.

92) 역사적 인물인 임경업이 신격화 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 용맹성을 지닌 장군이라는 점, 민중들의 삶을 대변한 존재였다는 점, 그리고 억울한 죽음에 대해 민중들이 공감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지역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면서 신앙이 정착 및 확대된다. 서종원, 「서해안 임경업 신앙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93) 순천에 기반을 둔 토착 세력의 선조인 김충(金攄), 박영규(朴英規), 박난봉(朴蘭鳳)은 지역의 수호신으로 신격화되었는데, 토착세력이 지배세력을 통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황당 및 산신제를 설치 및 운영하고 후손들은 이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심으로써 지역 내 주도권 장악하게 된다. 이경엽, 「순천의 성황신앙 · 산신신앙과 역사적 인물의 신격화」, 『남도민속연구』 6, 남도민속학회, 2000

94) 최명환, 「단종설화의 전승양상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그런데 인물이 신격화되는 양상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신앙에 관한 역사적 기록 및 증언에 기초하여 행해진 것으로 구체적인 본풀이 사설은 찾기 어려운 상황이나, 부대각의 경우에는 본풀이가 존재하여 신화와 전설의 상호 관계에 관하여 면밀히 고찰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우선 부대각 신화는 내용의 측면에서 아기장수 전설에 대부분 빚지고 있으므로 앞서 살핀 자아와 세계의 관계 및 전승집단의 세계인식의 차원이 중층적이고 복잡하게 교차되어 나타나고 있다. 일차적으로 부대각은 뛰어난 영웅적 과업을 성취함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음으로써 자아가 세계의 횡포에 좌절하는 전설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부대각은 오히려 이러한 죽음을 통하여 오히려 신적 존재로 상승되고 있다. 유효한 신화 속 영웅들이 맞는 결말의 한 유형으로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지만 죽은 후 신의 지위에 오르는 유형을 꼽으며 헤라클레스의 예를 든 바 있다.<sup>95)</sup> 온갖 고난을 겪은 뒤 스스로 불에 뛰어들어 죽음을 맞은 헤라클레스를, 온갖 고난을 겪은 뒤 스스로 물에 뛰어들어 죽음을 맞은 부대각과 겹쳐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마감한 뒤 인간을 초월한 존재가 되는 헤라클레스와 같이, 부대각 또한 죽음 이후 신성성을 부여받으며 부씨 집안의 수호신으로 좌정하게 된다. 즉, 부대각의 희생적인 결단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부분은 부대각의 영웅적 성격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그가 영웅을 넘어 신의 존재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는 부대각의 주체적인 결단은 부대각 본풀이의 신화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는 의의가 있다.

이렇듯 부대각 신화에서 부대각은 세계의 횡포에 좌절하면서도 세계를 완벽히 초월하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부대각의 출정 소식을 전해들은 부씨 집안 사람들은 부대각을 그대로 놓아두면 집안이 망할 것이라 생각하여 선산에 있던 장군 모양의 바위를 부수게 된다. 부대각은 눈이 멀어 출정도 못하고 군사들이 굶어 죽자 옥황상제에게 무쇠 방석을 내려달라고 빌어 물 위로 내려온 무

95) 비극적 죽음으로 원혼이 된 역사적 인물은 신성성을 가지고 제의의 대상이 된다. 이창식, 「단종전승의 구조와 의미」, 『강원민속학』 12, 강원도민속학회, 1996; 김의숙, 「단종신앙과 제의 연구」, 『강원문화사연구』 2, 강원향토문화연구회, 1997; 최명환, 위의 논문.

96) 유효한, 『우리 시대의 신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31~37면.

쇠 석갑(혹은 무쇠 방석)에 앉아 가라앉아 죽는다. 즉, 부대각의 죽음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을 포용한 후 주체적으로 선택한 결말이며 또한 이러한 죽음을 통하여 부대각이 신적 존재가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는 다시 자아의 우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부대각은 자아에 대한 세계의 우위로 인해 죽음을 맞으면서도 스스로의 영웅적 자의식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세계와 대결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설적인 관계는 작품 내 · 외의 차원을 구분함으로써 보다 면밀하게 설명해볼 수 있다. 앞서 살핀 선행연구에서 조동일은 자아와 세계의 관계를 토대로 전설을 분석하면서 작품외적 자아와 작품외적 세계, 그리고 작품내적 자아와 작품내적 세계를 상정한 바 있다. 여기서 작품외적 자아는 이야기판의 화자와 청자이며, 작품외적 세계는 이야기에 언급된 바 있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이다. 그리고 작품내적 자아는 이야기에서 허구적으로 설정된 의식과 행동의 주체인 인물이며 작품내적 세계는 이야기에서 허구적으로 설정된 의식과 행동의 대상이다.<sup>97)</sup> 이와 같이 조동일은 자아와 세계의 관계를 문제 삼으면서 그것을 작품내외로 나누어 고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르적 일반화를 할 때에는 작품내적 자아와 세계의 관계만 가지고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작품 내의 자아와 세계의 관계뿐만 아니라, 작품 외의 자아와 세계, 즉, 이야기를 전승하는 향유자들의 의식과 실제 존재하는 의례의 대상에도 주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부대각이 신이 되어 전승자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작품외적 차원을 고려해 본다면 부대각이 단지 작품내적 세계에 의한 희생에 그치는 자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부대각 신화는 굿의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연행됨으로써 다시 전설에 영향을 주게 된다. 대부분의 부대각 전설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논평과 함께 신화와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내용이 심심찮게 등장하는데,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14

부씨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은 너무나 침통했다. 바로 그날 밤 한 친

97) 조동일, 앞의 책, 156~163면.

척의 꿈에 부대각이 나타났다. 눈물을 글썽이며 겨드랑이에 날개 돋힌 죄로 무쇠상자에 담긴 채 바다 속에서 영원히 잠자고 있으니, 나의 원한을 큰곳 및 마당(석)으로 풀어달라고 애원하며 사라져 버렸다.

그 후로 이 마을 부씨 집안에서는 굿을 할 경우, 심방은 이 부대각의 원통한 내력담인 ‘조상본풀이’를 창하고 난 후, 서우젯소리로 그 영혼을 흥겹게 놀린다.<sup>98)</sup>

#### #16

또한 만호 부시흥의 행적은 지금까지도 전설과 무당들의 구술로서 무성하게 전해지고 있다.<sup>99)</sup>

#### #20

그런 전설 아닌 전설처럼 내려오는 입장이 있고, 그 옛날에 무당들이 굿을 할 때 이 본풀이를 하는 것이 전설로 내려오는 거야.<sup>100)</sup>

#### #9

고런 것이 부대각 우리 할아버지의 전설이고 또 그래서 지금까지 평대리는 수호신으로써 또 무당들이 뭐 굿풀이를 한다던지, 이제 그 관혼상제가 있을 당시만 하더라도 옛말엔 전부 무속인으로 불러다가 집집마다 그 축원을 드렸어요. 축원을 드릴 때 꼭 부대각 이름이 나와, 지금도 평대리에서 굿 하는데 뭐 솔직히 해서 무당 입에서 부대각 할아버지 말이 안 나오면 안 돼겠지요. 그만큼 이 부락에서 칭송도 자자할 뿐더러 우리 평대리 그 수호신 위치를 지키면서 이제 그 일반 우리 사회에 이제 그 귀감이 음 도움이 되고 잇는거야. 뭐 이것이 대략적인 우리 부대각 할아버지의 전설이라구.<sup>101)</sup>

이처럼 부대각 전설들에서 부대각 본풀이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부대각이 지

98) 제주도문화공보담당관실 편, 앞의 책, 196면.

99) 탐라유사편집위원회, 『탐라유사(耽羅遺事)』, 부씨문중회총본부, 1988, 278~279면.

100) 본고 <부록> 86면.

101)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편, 「부대각(2)」, 『백록어문』 24, 백록어문학회, 2008, 341~344면. 『백록어문』 24, 352면.

닌 수호신으로서의 신격을 예찬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난다. 이는 앞서 부대각 신화와 같이 세계의 횡포로 희생되면서도 또다시 세계에 대한 초월을 꾀하고자 하는 자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될 수 있다. 즉, 부대각은 소외된 존재로서 중앙 권력에 의하여 억울한 죽음을 맞았지만 그것은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풀이라는 형태 속에서 공동체의 신앙을 통하여 영원히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위의 전설들은 부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억을 해원(解冤)의 형식으로 거듭 풀어 나가면서 공동체는 계속하여 이어져나갈 것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대각이 서사 내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는 부대각 전설에서도 부대각이 신앙 속에서 존재할 수 있다고 제시함으로써 자아의 완전한 패배는 보류되고 있으며, 도리어 자아가 세계를 초월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2) 부대각 설화와 당신화의 상호성

부대각 신화와 전설은 모두 제주도 당신화(堂神話)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송당계 본풀이의 영향을 강하게 보여주는데, 이러한 연관성은 부대각 설화의 전승 지역의 특성상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앞의 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대각 설화의 근거지는 구좌읍 지역인데, 이곳은 송당계 본풀이의 영역권에 해당되며 현재까지도 당신 신앙이 가장 강력하게 남아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부대각 본풀이를 연행하는 심방들 또한 구좌읍 평대리와 하도리의 당맨심방으로서 송당계 본풀이를 전문으로 연행하는 직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대각 본풀이와 송당계 본풀이가 자연스럽게 영향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부대각의 영웅적 형상은 송당계 본풀이의 주인공 신들과 상당히 유사하다. 특히 <세화본향당본풀이>에 등장하는 ‘금상’, 그리고 <송당본향당본풀이>와 <김녕케네깃당본풀이>에 등장하는 ‘문국성’ 및 ‘케네깃도’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금상은 부대각과 같이 땅에서 솟아난 신격이며, 임금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역적으로 몰리는 영웅이다. 그리고 대국을 쳐서 큰 공을 세우나 중앙 권력과 거리를 두고 제주의 신으로 좌정한다. 궤네깃도 또한 전쟁 영웅이지만 부귀영화를 마다하고 제주로 입도하여 신으로 좌정한다. 따라서 부대각이 땅에서 솟아난 제주의 영웅이라는 점, 중앙 권력을 넘어서는 초인적인 능력을 타고났다는 점, 역적으로 모함을 받는다는 점, 입도하여 제주의 신이 된다는 점은 모두 이들과 동일한 모습임을 알 수 있다. 조현설은 이러한 금상과 궤네깃도의 형상이 모두 중앙에 의해 타자화된 남성권력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그들이 지닌 ‘타자성’에 주목한 바 있는데<sup>102)</sup> 따라서 부대각도 이와 유사한 ‘타자성’을 지닌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부대각은 금상이나 궤네깃도와는 달리 신으로 좌정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죽음을 맞는다. 즉, 금상과 궤네깃도는 스스로 벼슬을 마다하고 제주로 입도하여 영생을 누리는 신으로 좌정한 반면, 부대각은 벼슬을 하고 입도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살해되며 이 죽음을 통하여 신으로 좌정하게 된다. 이는 부대각이 금상이나 궤네깃도와는 달리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전설의 주인공이므로 중앙 권력에 의해 박해받았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대각은 죽음을 통해 신이 되는데, 이러한 신격화가 ‘무쇠석갑(무쇠방석)’ 화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화소는 송당계 본풀이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화소이기 때문이다.

송당계 본풀이에서 금상이나 궤네깃도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 스스로 중앙의 권력을 마다하고 주변부인 제주로 입도하여 신이 된다. 그러나 부대각은 전쟁에 출정해 보지도 못하고 역적으로 간주되어 무쇠석갑을 타고 바다에 가라앉아 최후를 맞게 된다. 이러한 모습은 문국성과 궤네깃도, 그리고 <평대본향당본풀이>에 등장하는 ‘공주아미’, 그리고 <송당본향당본풀이> · <세화본향당본풀이> 등의 ‘백주또’가 무쇠석갑에 담겨 바다에 띄워지는 장면을 연상시킨다. 이들은 불효를 저지르거나 태생적인 거식성(巨食性)으로 인해 무쇠석갑에 담겨 바다에 버려지게 된다. 즉, 이들은 부모로 대변되는 기존 집단의 권력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무쇠석갑에 담겨 바다로 가게 되는데, 이는 부대각이 중앙 권력에 위협이

102) 조현설, 「제주 무속신화에 나타난 이중의 외부성과 젠더의 얽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되는 존재라는 이유로 무쇠석갑을 타고 바다에 잠기는 최후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러나 이들 당신본풀이의 주인공들이 담긴 무쇠석갑은 부대각의 경우와는 달리 바다에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 이들은 무쇠석갑을 타고 바다에 떠다니며 배필을 만나거나, 전장에 나가 장수의 힘을 과시하거나, 제주에 도착해 신으로 좌정한다. 즉, 부대각과는 달리 그들에게 무쇠석갑은 ‘죽음’이 아니라 ‘이동’을 의미한다. 본풀이에서 ‘죽음’으로서의 무쇠석갑의 의미는 주인공인 좌정한 신들이 아니라 그 신들의 부모에게 해당된다.

아방국은 강안도 어멍국은 철산도. 어멍눈에 불효나고 아방눈에 불효나고, 무쇠설갑을 차 놓고 죽으라고 동바당에 내떡와불고, 쫓물나민 동바당 든물나민 서바당 홍당망당 터 땡이단 천상배필이 신선또가 됩네다. 땡되알(평대리 아래) 쉬는 모살(모래) 들먹고 개로(浦口로) 올르난 곱닥흔 무쇠설갑을 신선또가 넘어가단 보난, 이선. 그 무쇠설갑을 봉가다가 올안 보난 공주아미 공주부인이 이서, “어딴 애기씨우파?” “강안도 철산이우다. 아방국은 강안도우다. 어멍국은 철산이우다. 이 내 일름은 공주아미 공주부인이우다.” “어떤 일로 읍디까?” 공주아미가 흐는 말이 “신선또가 천상배필이라 신선또를 츠산 오는 절이우다” “나가 신선또우다” 둘안 오란 천상배필이 됩네다.<sup>103)</sup>

위의 자료는 부대각의 고향인 평대리의 <평대본향당본풀이>의 일부이다. 여기서 공주아미가 부모에게 불효를 저지르자 그 부모는 무쇠석갑을 짜서 바다에 띄운다. 그러나 공주아미는 죽지 않고 평대리의 포구로 들어와 천상배필인 신선또를 만나게 된다. 위에서 분명히 부모는 공주아미가 “죽으라고” 무쇠석갑에 담아 바다에 띄운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평대리에 도착해 신선또를 만난 공주아미는 자신이 평대리에 온 이유가 “신선또가 천상배필이라 신선또를 찾아 오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부모는 잘못을 저지른 자식의 죽음을 의도한 것이었지만 그들의 의도는 관철되지 않으며, 무쇠석갑은 그들의 자식인 주인공의

---

103)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428~429면.

의도를 따르고 있다. 다시 말해, 여기서 무쇠석갑은 ‘죽음’이 아니라 ‘이동’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는 기존의 집단에서 벗어나고자 한 주인공의 의도를 따른 것이다. 주인공들은 무쇠석갑을 통해 자신을 억압하던 부모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기회가 있는 공간으로 나아가 애정과 업적을 성취하고 결국에는 신으로 좌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 본풀이들에서 무쇠석갑은 ‘죽음’이 아니라 ‘이동’이자, 이를 통한 ‘새로운 생존’이다.

반면 부대각의 경우는 무쇠석갑이 ‘죽음’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다. 그래서 일견 송당계 본풀이들과 정반대의 양상으로 보일 수 있다. 이들은 오히려 김통정 등의 제주 장수들이 무쇠방석, 혹은 돌 위에 앉아 바다로 가라앉는 비극적 최후와 더 깊은 연관을 지닌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김통정은 삼별초의 난을 일으킨 역적이며 중앙과의 전쟁 중에 바다에서 무쇠방석을 타고 가다가 죽음을 맞는다. 이러한 김통정의 최후와 부대각의 최후는 분명히 닮아 있으며 동일한 구술 전통의 자장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대각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승 집단을 대표하는 상징적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전승 집단의 수호신의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반면 김통정은 제주도 외부의 인물이며 뚜렷한 전승 집단의 상징도 될 수 없었다. 특히 애월읍 고내리 본풀이의 경우 김통정은 오히려 당신에 의해 무쇠방석 위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 당신의 적대자로 등장한다. 양자의 차이는 극명하다. 곧, 무쇠석갑을 통해 초래된 부대각의 ‘죽음’은 사실 ‘주인공의 의도’를 충실히 따른 결과라는 점에서는 김통정보다도 송당계 본풀이의 주인공들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1

‘나부떠 죽어부러야 이 군사덜이 살아날 거니, 죽어보자.’허여, 죽젠 허연 옥황(玉皇)에 등소(等訴) 등장(等狀)을 드는 게, “무쇠설캅을 내리와 줍서.” 방석을 떡 내리우난(내리니), 물 우에 무쇠방석이 둥굴둥굴 뜨난, 그 부대각 하르방은 펴짜허니 그 무쇠방석드레 떡 앓아, 그래도 물 알르레(아래로)내려가질 아너니(아니 하니),

“나를 누군 줄 아느냐. 어서 물 알르레(아래로) 인도(引導)허라.”

영 허여 서르르 허게 이제는 물 알려레 골라앗아(가라앗아).<sup>104)</sup>

다른 본풀이들에서 무쇠석갑은 주인공보다 상위의 신이 강제로 동원한 것임에 반해 부대각본풀이에서 무쇠석갑은 주인공인 부대각이 스스로 선택하여 내려달라 요청한 것이다. 부대각은 무쇠석갑을 통하여 ‘죽음’에 이르기를 스스로 바라고 있으며 무쇠석갑은 주인공에게 소속되어 충실히 그 의도를 수행하고 있다. 부대각보다 상위의 신인 옥황은 무쇠석갑을 내렸지만 처음에는 부대각이 원하는 대로 가라앗아 죽도록 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대각이 물 아래로 인도하라고 명한 다음에야 비로소 가라앓는다. 이처럼 무쇠석갑은 송당계 본풀이에서처럼 주인공보다 상위의 신의 의도에는 반하지만 주인공 신의 의도는 충실히 구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무쇠석갑을 통하여 부대각의 몸은 죽지만, 그 희생적인 행위를 통하여 신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여기서 무쇠석갑은 여타의 제주 장수전설에서처럼 주인공 장수의 비극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면서도 신적 존재를 향한 또 다른 차원의 ‘이동’이자 ‘새로운 생존’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차원의 생존으로서의 부대각의 죽음은 본풀이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전설에서도 이러한 신화소를 자유롭게 차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12

또 이제 그래 허다가 팔십이 이제 딱 그 할아버지가 전명(全命)이노랜, 당신 양으로 헌디, 팔십이 되노난 이젠 가젠 해신디 그 저승서도 심으래 와도 항상 못 심영강 그 하르바지가. 잡아가젠 와도 항상 못 심영가니까, 이제는 느 세상을, 이젠 올히가(올해가) 천명이니까 올히 혼 해만 가와서 내년은 이제 나 갈길 가야 허겠다 해서 배에 쏙 시끄고 물 시끄고 이제 그 소선 삼대선, 소선에 이젠 중동 우미소 안통 어염에(부근에) 배를, 그 하르바지가 배를 노니까. 그디 간 딱 나오니까 오늘 거

---

104) 김현선 · 현용준 · 강정식, 앞의 책, 331면.

추룩 은하 딱 끼고 ㄱ랑비 살살 오다가 이제 거기서 딱 일뿔 두 개민  
열 나홀 아니? 십사일을 가당보면 그 안에 들어와지고, 가당 보면 육지  
안 강 그 안에 들어가지곡 해연. 십사일을 이제 그 안에서만 도놀닥 도  
놀닥 허단에 이젠 허난. 나가 이제 세상을 떠비어야 이 해녀덜 강 벌영  
오지 경 안허민 나 하나로 이 해녀덜을 고생시킨다고.

이젠 하르바지가 방석을 깔안 앓았다가 배에 영 이렇게 보선 신고 영  
헨 이렇게 앓았다가 확 이젠 배 안에, 그 바닷가에서 ‘뽕’허게 그 쇠방석  
을 던지니깐 혼 뗏 발까지 떠 가. 쇠방석이 떠가니까 이 쇠방석이 집어  
던져서 나 앞더레 돌아오면은 나가 거기 앓아가고 나 이 물 아래 골라  
앓을거고(가라앓을 거고) 그냥 던진디 골라 앓으면은 나가 아니 가질겨  
니까, 이제 너네가 나 골라앓으면 내부려두고 해녀벌이 가랜. 경헨 말은  
해서 하르바지가. 확 해된에 이젠 가신디 이렇게 편안히 앓았다가 쇠방  
석을 탁 던지니까 이제 동글 동글 꼬어. 쫘썩 쫘썩 쫘썩 그 배 어염에  
끼지 와. 오니까 이젠 하르바지가 통대 하나 심고 맨 보선 창에 그 우  
의 간 톱 허게 앓으니가, 그 쇠방석이 뱅뱅뱅뱅 돌면서 그 알러레 소르  
르허게 골라앓아 부러서.<sup>105)</sup>

위에서 부대각은 해녀들을 태우고 육지로 떠나는데 풍운조화로 인하여 발이  
뭉이게 되자 쇠방석을 타고 바다 속으로 가라앓아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부대  
각 전설이 송당계 본풀이의 화소를 공유하면서도 창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음을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105)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편, 「부대각(2)」, 『백록어문』 11, 백  
록어문학회, 1995, 276~277면.

## V. 결 론

아기장수형 부대각 설화는 제주도의 부대각이라는 장수에 관한 설화로서 아기장수 설화의 독특한 변이형에 해당되는 작품이다. 본고는 아기장수형 부대각 설화의 전승현장의 성격 및 서사문학적 특징을 고찰함으로써 이 설화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부대각 설화의 양상을 총체적으로 개괄하였다. 여기에서는 연구자가 채록한 새 자료 10편을 합하여 총38편의 부대각 설화를 유형, 형식, 제목, 연행 일시 및 장소, 연행자를 밝혀 정리하였다. 그리고 부대각 설화에는 아기장수 유형, 장사 유형, 오뎁힘내기 유형, 과거 급제 유형, 원사 유형, 여걸 유형이 있음을 밝히고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Ⅱ장에서는 아기장수형 부대각 설화의 전승현장의 특성을 알아보았는데, 우선 전승자 집단의 양상을 살피고 전승 의식을 분석하였다. 아기장수형 부대각 설화는 본풀이와 전설의 두 가지 갈래로 나뉘어 전승되는데 본풀이는 심방과 집안 공동체의 전승으로서 심방은 계보 및 소속 지역과 개인적 특성에 의하여 사설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집안 공동체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씨족 집단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중심이 된 집단이며 생활공동체의 의미를 강하게 지니는 집단이다. 이들은 본풀이의 연행을 통해 조상신을 즐겁게 함으로써 씨족 집단의 우환이 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 한편 부대각 전설은 구좌읍의 마을 공동체 및 제주부씨라는 가문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여 전승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전승의 배경이자 증거물이 존재하는 평대리가 구심점이 되고 있다. 그리고 부대각 전설의 연행자는 거의 모두 남성이며 집단의 대표이다. 이와 같은 전승 집단들은 모두 역사 전수의 의식을 강하게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대각 설화는 전승 집단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 전승현장이 해체되면서 부대각 설화의 전승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Ⅲ장에서는 이러한 전승현장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아기장수형 부대각 설화가 일반적인 아기장수 설화와 구분되는 서사문학적 특징을 인물 · 구조 ·

갈래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1절에서는 인물의 특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아기장수가 ‘살해된 아기장수’, ‘살아남은 아기장수’, ‘달아난 아기장수’, ‘영웅이 된 아기장수’의 네 가지 형상으로 다변화되어 있다는 점을 밝혔다. ‘살해된 아기장수’는 유년기에 날개가 잘려 죽게 되는 인물형으로, 비극적인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민중영웅의 끊임없는 생명력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살아남은 아기장수’는 날개가 잘렸을 때 죽지 않는 대신 영웅적 능력이 다소 상실되어 힘센 장사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를 통해 아기장수가 현실에 순응하여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 또한 이 인물형은 ‘달아난 아기장수’를 원조자로 동반하여 민중영웅의 도래에 대한 기대감도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로 ‘달아난 아기장수’는 날개가 제거되지 않은 채 날아가 자취를 감추는데, 이는 제주라는 주변부에서 영웅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현실을 전복시킬 영웅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날개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현실에서 다양한 영웅적 과업을 성취하는 ‘영웅이 된 아기장수’ 유형은 전승자들이 부대각에게 성공한 민중영웅에 대한 기대를 강하게 투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부대각 설화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부대각의 형상과 다채로운 결말은 상보적인 역할을 하면서 전승자들이 구체적인 맥락에서 현실을 사유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한편, 부대각의 적대자는 중앙 권력으로 일원화되어 있다. 이는 주변부를 힘으로 굴복시키는 중심부이자 폭력적인 국가 체제를 의미하며, 제주도의 무속 신앙을 거부하는 유교식 통치 체제를 상징한다. 그리고 부대각은 이에 맞서는 제주의 영웅이자 무속 신앙으로 대변되는 제주도의 정신적 뿌리를 상징하는 인물로서 중앙 권력의 통치체제에 대한 비판 정신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2절에서는 구조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우선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제주와 서울 간의 공간 이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는 민중영웅의 탄생과 죽음의 공간으로, 그리고 서울은 성취의 공간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부대각이 영웅으로서의 큰 포부를 품고 주체적으로 탈향하는 장면과 결국 바다에 수장된 비극적 영웅의 모습으로 귀향하는 장면이 대립되면서 지배체제의 속성 및 주변부로서의 제주의 한계가 폭로된다. 한편, 부대각은 공격 대상을 한양의 조정이 아니라 ‘대국’으로 간접화시키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중층

화된 대립 구조가 형성된다. 여기에는 대국에 맞서는 한양의 욕망을 대리해 성취시켜 주면서 동시에 제주의 한양 극복의 욕망을 우회적으로 성취하려는 구조적 전략이 내재되어 있다.

3절에서는 갈래의 특성을 논하였다. 먼저 부대각 신화와 부대각 전설의 상호성을 살펴보았다. 부대각 신화는 전설의 신화화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자아와 세계의 역설적 관계를 통하여 신화적 성격을 획득한다. 그리고 이러한 신화적 성격은 다시 부대각 전설에 영향을 준다. 다음으로 부대각 설화가 송당계 본풀이로 대표되는 제주도 당신화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양상을 살폈다. 이를 통하여 부대각 설화는 송당계 본풀이와 영웅적 형상 및 ‘무쇠석갑’ 화소를 공유하면서도 이를 변형하여 창조적인 해결책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 < 부 록 > 부대각 설화 채록본

### ① <부대각> (#3)

조사일 : 2013.2.19.

조사장소 : 제주시 서사라 장호다방

조사자 : 김규래, 윤준섭

연행자 : 양창보(남, 81)

원래 그 대각이라 한 사람이 장수였잖아. 원래 고향은 어디냐문 구좌읍 평대. 부침[夫家]에서 났는데 본래가 삼형제가 탄생을 해가지고 그때는 뭐 공부도 제대로 못할 때고 한문이나 조금 공부허곡 그런 시절인데, 열둘이 넘어가니까 제주도는 농토지가 되어가지고 소나 말덜 방목하고 뭐 고런 거 대게 열두살 때 허는데 부대각이 삼형제 중에 켈 작은아들이야. 작은아들인데, 그제 열 살이 넘어가니깐 삼형제가 그 소나 말을 그대로 몰고 올라가는데, 부대각 아버지가 이 놈들이 보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거를 보기 위해서 이제는 먼 데로 가서 지켜 보는거야. 먼 데를 지켜보는데 가만히 아이들을 보니깐 삼형제가 여기서 소하나 가져가지고 던지면은 저디 가서 받고, 여기서 던지면은 여기 가서 받고, 이건 사람으로 아니 무거운 건데 던지면 받고 그런단 말이야.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제는 집에 오라서 혹시나 하고 누워 자는 놈들이나 몸이나 검사해 본다고. 보니깐 그 겨드랑이 밑으로 날개가 나온단 말이야. 이것이 그냥 났다가 큰일날 꺼나 불로 지저부러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부대각 아버지가, 인두라는 거 알어? 불에다 구워가지고 지저부렀단 말이야. 지저부렀는데.

그때 후에는 위엣놈들은 다 달아부르고(달아나버리고) 막내만 집에서 사는데 여기서 성안<sup>106</sup>드레(성안으로) 오고 성안서 펫짝(필쩍) 날른 평테드레(평대로) 그러면서, 이제는 그런 거를 부대각 아버지가 알아가지고선, 그쪽 우에는 혼 살 두 살 막 먹어간에(먹어서) 이 성안 오란서(와서) 가만히 보니깐 집에다 도둑놈들이 들었거든. 소를 훔쳐갈(훔쳐가려고) 이제 들어간. 들어오니깐, 이젠 안 되

---

106) 성안[城内] : 제주시내를 말함.

겠다 해가지고 날아가지고 집에 도둑놈들 잡았어. 소는 두고 쫓아 내 두고 거기서 있다가,

그 옛날 한양에서 이 국매[國馬]라고 하며는 아나? 국마라 하는 것은 나라에서 키우는 말. 그것이 살아서 내려와가지고 사람을 해친단 말이야. 사람을 해를 주니깐 그거 잡아줄 사람을 아무나 사람이 있으면은 천금을 봉해 준다 그랬어. 천금만큼을 다 봉해줄테니까 나오라 해가지고, 이 부대각 하르방이 나와가지고 서울 올라가가지고 남산에 떡 앉아있더니 산에서 말이 그냥 막 허허하게 오라가거든. 게서 이제 부대각 하르방이 나와가지고 서가지고, 너 사람을 몰라서야 되느냐, 내가 누군 줄 아느냐, 해가지고 하니까 말이 앞발을 딱 꼰드레(꼰드레). 앞발을 딱 꼰러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다음부터는 그냥 가자, 그러든 잡아가지고 관아에서 데려가서 저그 그 국마 잡아 왔습니다, 하니까 그러냐고. 해서 이제는 나라에서 천금상 만금을 딱 봉해 주니까 나 이런거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야. 요구가 뭐야, 군사를 하나 만들어 달라 이거야. 만들어주면 어떠하겠느냐 하니까, 대국을 쳐보겠다 이거야. 대국을 한번 쳐보겠다 하니깐, 군사를 딱 그젠 말을 해주니, 배를 지어다가 배를 얼마나 주면 되겠느냐 하니깐, 스물아홉 척 배를 딱 놔. 배 스물 아홉 척을 딱 허여 두고, 그 배를 타고 대국을 치러 갔을 때 기왕에 가면 내가 죽어서 돌아올는지 살아서 돌아올는지 모르니깐 기왕에 갈 바에는 고향에 가서 한번 딱 돌아보고 이제는 가야 되겠구나 해가지고선, 제주도를 들어와가지고 제주도 성안 포구에서 배를 매 두고, 너희들 군사들은 배에 있어라 하고, 부대각 하르방만 이젠 평대로 들어가가지고, 산에다 참배를 하고 조상들.

참배를 해 가지고 돌아가는데 친족들이 모여가지고 저 작두를 뿔다가 집안 뿔뿔이 된다고 해서 밖으로 못나가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뭐 평대 우에다 산[墓]이 선조 그게 모신 산이 하나 있는데, 산 그 멧 땅으로 조그만한 바우가 자꾸 커. 그 장군석. 그러니깐 친족들이 올라가가지고 그 바우를 부셔버려. 부셔버리니까 아이 그 영감이 대각 하르방이 이제는 제주시로 와서 배를 띄우라 배를 띄우라 하는데, 부대각 하르방이 눈이 어두와부런(어두워져 버렸어). 야 오늘은 이렇게 안개가 켜이니까, 눈이 안 보이는건 생각하지 않고 안개가 켜다고 하는 거지. 사흘도 있고 그 석달 이상이나 배에서만 살고 살아가니까, 그 군사들 물

도 다 떨어져가고 경헨 하루는 가만히 하늘을 쳐다보고 내가 안개 찢게(긴 게) 아니라 눈이 어둡구나, 그제사 깨달아가지고 배를 돌려가지고 제주로 들어가. 나는 못 간다 해가지고 배를 돌려두고, 그 하르방이 뚫어앉아가지고 하느님에 비었어. 머를 소원을 했느냐 하면, 무쇠방석, 무쇠로 만든 방석 깔고 앉는 방석을 하나 내려주세요, 하니 하늘에서 방석이 딱 내려가지고 그 무쇠방석 위에 부대각 하르방이 앉았. 하르방이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그 지휘봉인가, 그 말처럼 한번 때리니까, 물드레(물로) 쓱 들어갔는데, 하르방도 쓱 드렁가부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죽었어.

건디(그런데) 대각 하르방이 죽었덴(죽었다고) 하니까, 친족들이 그 우에다가 산[墓]이 하나 있는데 그디(거기) 신체가 없는 산이 있어. 그 산에 대각 하르방 혼만 불러다 놓고 묘를 써가지고 일년에 제를 지내 거기에. 그 자손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그 하르방이 직접 자기 혈로 난(낳은) 손자가 아니라. 그래도 어떡하냐. 자기네 조상인데. 겐(그래서) 벌어져가지고 지금까지도 이 부대각이라 이러면은, 어느 가집니까 흐믓, 평대 자손이라 그래. 이러면은 이집이 옛날 부대각 하르방이 이서난 집이로구나. 그거 평대 부칩이가 그러한 유명한 하르방이 있었다는, 소위 말하면 전설이지. 전설이라기보다도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부대각 하르방은 본풀이가 들리지를 잘 알아.

## ② <부대각> (#4)

조사일 : 2013.2.19.

조사장소 : 구좌읍 평대리 고산옥 심방 자택.

연행자 : 고산옥(61 · 여) (동참자 : 김옥선)

조사자 : 김규래, 윤준섭

여기 평텐데, 그 오라방도 기운이 장상[壯士]이고, 누이도 기운이 장상하게 나서. 나도 들은 말이라. 나도 옛 할망들한테 들은 말인데, 난 이빨 좀 한다고 해부니까 말이 좀 이상케 들릴 수도...[조사자 : 예, 잘 들립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부대각 하르바님이, 나라의 국매(國馬)가 저 서울 장안을, 국매를 잡는 자는 기운이 장상이라, 하도 해치니깐 그거를 잡는 자로 기운이 누게가 세었느냐, 그딴<sup>107)</sup> 장수를 잡지 못하난 아맹해도(아무래도) 여기 부대각 하르바님을 칭혼 거라. 겐(그래서) 제주 절도(絶島)로 부씨 부대각 하르바님이 기운이 장상하다, 그래가지고 서울 가서 그렇다고 해.

국매를 죽였던 허는 사람도 있고, 거기 있는 사람이, 옛날 말 흐는 것도 다 틀려. 들은 대로 곧는(말하는)거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마을을 못 살게 군 그런 사람이 이서가지고 기운이 세니까 그 사람을 죽였든, 그 국매를 죽였든, 그 잡으니까,

“너는 무슨 벼슬을 받겠느냐?”

“대각 벼슬을 받겠습니다.”

부대각, 대각. 게난(그래서) 부대각 하르바님이라.

경헌에 그 하르바님이 와가지고 모든 정리를 호고 방상<sup>108)</sup>에 다 홀 일을 다 해놓고 서울을 올라가게 되니까, 그 선후사공들 있잖아. 막 뒤에 딸르는(따르는) 사람들.

그니까 이제 서울에서 흐는 말이, 한양, 옛날은 한양이라 했거든, 서울을 보고. 한양에서 이제 흐는 말이,

“제주 대각 하르바님이 오면 우리는 못 산다, 게니까 죽여불자.”

해서 이제 막 패 들러 오난(오니),

“나는 나 혼자 죽지, 왜 선후사공들이 죽게 하겠느냐.”

겐 그 대각 하르바님이 무쇠방석을, 거기서 준 거라. 게난 무쇠방석을 탄(타서) 오고 무쇠방석을 탄 갈 때에, 이제 그 선후사공ㄴ라(선후사공에게),

“무쇠 방석을 느래오라(놓으라고 해라).”

겐 무쇠방석을 노랜 헨, 물 아래 술술 끌아전(가라앉았어),

“나 흐나 죽으면은 너네들은 다 살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살아나가지고 그랬던 해여, 그 하르바님이. 그래서 몇 명을 위해 가지고, ‘나 혼자 목숨을 죽어버리든 너네들은 살지 안흐겠느냐.’ 그래가지고 무

---

107) 그딴 : 그곳의. 서울을 말함.

108) 방상 : 일가붙이의 집안.

쇠방석을 느래와가지고 그 무쇠방석에 앉아서 그냥 죽어가지고 혼 불러가지고  
여기 부침이[夫家]서는 그 비석<sup>109)</sup> 해 놓고. 또 선죽단은 하도<sup>110)</sup>에 있고. 게니  
까 건 옛날 헛봉분인지, 정말로 건져서 했는지는, 거는 잘 몰라 나도 중간에 들  
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현 건데, [김옥선 : 언니 본풀이 할 때 거 나오지 안습  
네까? 거 허는 거 아니?] 게 나오주게. [김옥선 : 언니 헛게 되든 거 헛는거?]   
게. 경행 막 이 본풀이도 이 사름 저 사름 다 틀리매. 국매 죽였젠(죽였다고) 헛  
는 사름, 거 하도 기운도 장상이고 동네를 못 살게 구는 사름을 때렸젠(때렸다  
고) 헛는 사름, 기운도 장상이고 그디서 막 쉼 장군을 죽였젠 헛는 사름. 게니까  
국매 죽인 사름은 제주도 고침이[高家] 고동지 영감이라고. [김옥선 : 건 고침이  
서 나온 것파?] 어, 부대각 하르방. 부침이서. 이데가. [이 건너도 부침이잖아.]

응. 경혼디, 요즘엔 새 즈손들 몰라. 우리는 옛날 할머니암폐서(할머니에게서)  
들으면서 전해져서 내려오니까, 우리 일<sup>111)</sup>을 헛젠 하면, 일월을 거느리젠 헛면  
은, 그런 높은 벼슬을 해난 사름을 거느리젠 헛면은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사  
름들은 관여 없거든. 신경을 안 쓰지게. 우리같은 사름은 신경을 쓰지. 게니까  
나도 이디 큰 할망안테 들은 말이 틀리고, 또 탄 사람안테 들은 말이 틀려. 그  
래가지고 나 일본에서 굿할 때는 한동<sup>112)</sup> 부침이 사람들이 강 한동에서 굿 헛는  
디, 나가 물어봤거든, 나가 잘못 거느리면은 안 되거든. 내가 물어보니까 헛는  
말이, 이제 그 한양에서 막 너무 국매가 들언, 막 저길 헛니까 경헛던 헛는데,  
고치비 고동지도 국매를 죽였젠 혼애(해서) 동짓벼슬(동지 벼슬)을 내려완 글로  
막 내려완 막 헛거든. 나도 이거는 확실히 국맨지, 기운 장상한 사람인지, 몰인  
지는 몰라. 그건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국매를 죽였다는 사람 있고, 또 저 고치  
비 고동지는 국매를 죽여서 ‘똥 벼슬을 헛겠느냐’ 헛난 ‘동짓벼슬을 헛겠다’, 게  
난 동짓벼슬을 받을 때에 고동지 영감 선훈사공 일월을 거느리거든? 건디 나도  
그 점에서 나 아는데까지만 말해주는 거. 말해주랜 헛니까. 게니까 부대각 하르  
바님이 부침이서 저 선조 산을 비석 세워놓고 했어. 부침이서. 산도 다 헛봉분

109) 제주부씨 종친회에서 평대리 중동 해안가에 세운 부시흥(夫時興)의 비석을 말한다.

110) 하도 : 구좌읍 하도리.

111) 심방 일을 말한다.

112) 한동 : 구좌읍 한동리.

이라. 옛날엔 사람 죽으면은 본피를 놓기 위해서 혼 불러가지고 무덤을 한 거. 그 한바당에서 죽었는디 어떻게…[김옥선 : 게난, 거기에도 게, 이름난 그 뭐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비석을 세웁든, 한 뭉클 하든 하지. 아무나 경 할 수가 이 서게] 게난 부침이는 똑똑하잖아. 그 하르방 신령으로 다. 게니까.

### ③ <평대 부대각 하르방> (#6)

조사일 : 2013.2.20.

조사장소 : 구좌읍 하도리 고북자 심방 자택

연행자 : 고순안

조사자 : 김규래

이제, 평대 부대각 하르방 베슬은, 부대각 하르방 부인이 아길 배니깐, 아들을 뱀 때는 딸 임신해시카 해가지고 허는 게 물을 잡아먹고, 딸 뱀 때는 아들 배시카 해가지고 쉼을 잡아먹었어. 그 부인이. 경허니까 하르바지가 나니까 이 놀개가 하나 더 돌려가지고 나왔어. 경허고 그 오누이가 키와가지고 김녕으로 해서 시집을 갔는디, 부대각 하르방은 이 싸움을 허레 나오렌 하르는, 나라에, 오천명 군사를 내놓고 칠천 명 군사를 내노면은 썸을 그렇게 잘했어. 하르방이. 싸움을 잘 해가지고 하르방을 이제 어느 장수라도 이겨낼 장수가 없었어. 경허니까 그 누님이 여자라도 싸움을 잘 해났대. 게서 제주에서 서쪽에는 김녕이고, 그난 그디는 딸이 시집간 데고, 평대는 아들인디, 게서 그 만장굴 있잖아, 이디 만장굴이, 만장굴이 큰 단지 모살이라고 행 모살께(모래톱)라고 해가지고 이제 동춘(東村)에서 소춘(西村)에서 이제 나오렌 해가지고 헨 했는디 부대각 하르방이 나왕 싸움을 하는데, 누님은 남자 옷을 입어가지고 가서 싸움을 하니까 하르방을 앓단(들러다) 사람을 앓단 매다천 씨러지왔거든(쓰러뜨렸거든), 씨러지우니까 하르방이 저, 게니깐(그러니까) 세번째 하는 말이, 왜 너는 나를 모르겠느냐, 경허니까 영 베려보니까(보니까) 자기 누님이거든. 게니깐 하르바님 이길 장수는 그 누님이 이겨가지고 싸움을 했다허여. 경해서 부대각 하르바님은 혼 날개를 더

달아가지고 부대각 베슬을 해여서 한 조상이 있고. [조사자 : 누님은 날개가 없고 부대각 하르방만?] 응, 부대각 하르방만 날궐 돈앙 나왔덴 허주. 게가지고 큰 베슬, 부대각 베슬 해서 나온 조상이 있고.

하도 부칩이는, 아기씨 난에 키웁젠 흥난, 공들이멍 공들이멍 키웁젠 흥난, 그 조상의 큰곳만 했어. 큰곳을 하면 그 집이는, 마지막엔 신임 하소령을 놀아. 아기씨 전상을 놀아. 경흥니까 아기씨 전상을 해서 삼 삼으면서 해서 꼬리 삼으면서 아기를 좇아가지고 해서 공을 들이면서 살아온 집안이고. 평대 부칩인 그렇게 놀개돈앙 나온 부대각 하르방이고. 굴동네 부대각 하르방은 부대각 하르방 베슬이 큰 뭘 해도 큰 뭘 허영 막 질진 안해. 간단간단. [조사자 : 동동네는 어디?] 동동네가 아니고 굴동네라고, 굴동네광, 그 부칩이 가지는 그 가지는 산신 책불이 이서. 책불이라며는 정시, 정시엔 허믈 산에 가그네 산터를 본다니 경허연 허면서 허고 헌 부대각 하르방 베슬이고. 책불이엔 헌 거는 옛날 책을 봐가지고 이제같으며는 철학관 같은거. 그런 식이라. 철학관 같은거 해가지고, 사주를 글로 풀이해가지고 허는 부대각 하르방 베슬이 있고. 부대각 베슬을 크~게 막 깊은 뭘가 없어. 깊은 역사는. 몰라. 딴 데는 어떻게 뭘롱가 모르주마는 우리 구좌 관련은 서울에 가서 과거 헨 온거 뿐이고 과거 헨 와서 조상들 이렇게 정성을 해가지고 했다 허고 곳헨 때는 부대각 옛날 삼 삼아가지고 이제 신임 하소령 놀아가지고 아기씨 전상해가지고 꼬리삼으멍 헨 그 조상이고. 또 저디는 책불이엔 헌 거는 정시, 정시허고, 정시는 나경파는 정시고, 책불은 스주를 판단 흥는 책불이 이서. 그 책불 하르방, 정시 하르방이 있고, 게니까 이 구좌 관련은 큰 깊은 부대각 하르방 역사는 베랑(別한) 깊은 역사가 없어. 부대각 베슬만 했다, 서울 상시관에 가서 부대각 베슬을 해서 나라에 와서 허곡 즈손들 어신 만민 백성들 구명도식해서 술았다 헌거 하고 그거 뿐이지.

[조사자 : 전설같은 데 보면 평대 부대각은 날개가 달렸다가 잘리고...] 놀개를 찢라부니깐 그 할아버지가 죽었지. 그것이 이녜의(자신의) 사주에, 말하자르는 이, 난 날 난 시에 그 서불암의 집에서 나온 건디 거 보기 싫잖아. 경흥난(그러니까) 부대각 하르방이 저걸로 해서 나라의 군사들 내노면은 하르방이 나가면은 그 싸움을 이경 오지만은 하르방이 안 나가며는 싸움을 못했지. 경흥니까 한국 일대 나사서(나서서) 그 하르방이 칼을 일러서 싹 그걸 흥나 싸움을 흥나 해

도 그 하르방을 이길 수는 어서 나서. 경 해노난 그 놀개를 뿌러졌어. 끊어진거 아니, 뿌러지니까 그때야 하르방이 그걸 해서 이젠 그 하르방을 막 죽일라고, 역적으로 막 몰려가지고이, 말하자면 옛날에는 역적역적 해가지고, 역적에 몰려가지고 하르방을 죽이젠 해 가니까 봉고파직해서 제주도 왔지.

[조사자 : 날개는 어떻게 하다가?] 날개는 뿌러졌어, 뿌러졌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뿌러지니까. 크게 현 거지. 경해서 역적에 몰려가지고 이제 같으면 막 당파싸움 하는거 가추룩, 아무 때라도 옛날 조금 요망진 사람은 이 사람 죽이자~ 해가지고, 그 시기지. 경하니까 누님도 여자로 나도 참 그렇게 똑똑하고 싸움을 그렇게 잘 허었어. 어린 때라도. 싸움을 잘 하니까 여자가 말하자면 여자가 지집년, 옛날에는 여자가 조금 차이 이서 났자나. 올레 베꼈디로(바깥으로) 나가지 말라, 공부도 하지 말라, 그렇게 해신디, 부대각 하르방 누님은 그렇게 싸움을 잘 하고 막 그냥 여자라도 막 남자 골추룩(처럼) 헐, 막 경 땡겨나니까 그 동생하고 싸우면은 하르방이 지었어. 전 했는디 나라에선 부대각 하르방 나와서 싸움을 하면은 부대각 하르방이 이겼지. 게난 부대각 하르방 이길 장수가 있겠느냐, 영 흥난애(하니까) 지가, 누님이, 나가 가겠다고, 나가 가켄(가겠다고), 하르방을 나아가서 이기겠다 허영 하니까, 그럼 경 흥랜 헐, 남죽 옷을 탁 하게 입어가지고 가서 싸움을 해서, 한 번 두르매단 지고, 두 번 두르매단 지고, 세 번째 딱 두르매단 지니깐 하르방을 딱 눌렀어. 넌 나 이래도 나를 모르겠느냐, 겐헐(그렇게 해서) 베레보니깐(보니까) 누님이거든. 아, 우리 누님이, 누님백엔 나를 이길 스람이 없는데, 우상흥다(이상하다) 해가지고, 아 누님이 이서났구나, 경해서, 싸움을 해서 하르방이 지고 할망이 싸움을 이겨서 흥고, 하르방은 흥단보니까 놀개가 뿌러져부니깐 그 멍(命)대로 살아야 될 건디, 이넉 멍대로 살아야 할 건디, 멍대로 못 살아서 부대각 하르방은 죽었지.

날개가 뿌러사 저신지, 꺾어사 저신지 몰라. 말하자면, 역적으로 몰려서, 잠 자는데 와서 그걸 머를 해 뺐는가 그건 모르겠어. 그 깊은 내막은 모르고. 그 하르방이 경헐 해배니까, 찢라가지고 돌아가셨는가 해가지고.

#### ④ <부대각 전설> (#10)

조사일 : 2013.2.20.

조사장소 : 구좌읍 평대리 중동 마을회관

연행장 : 김성화(79, 남, 평대리 노인회장), 이규경(77, 남), 평대리 노인(이름 · 나이 미상, 남)

조사자 : 김규래

김성화 : 옛날에는, 저희들도 어릴 때 들은 이야깁니다마는, 부대각이라고 해가지고 그 분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하고 이제 같이 사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보니까, 부대각 거드랑이에 날개가 이서가지고, 그래서 이제 꿔울라고 하니까, 꿔어불려고 하니까, 이제 그 부대각이 바다 쪽으로 날아가다가 그래서 이제 그 바다에 떨어져서 돌아가셨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조사자 : 아, 날개가 잘려서요?]

김성화 : 날개가 잘렸는가? 하튼, 아마 몸이 무거워서 날아가다가 떨어졌는가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 정도고. 부대각의 후손들은 없고, 그래서 부침이서(부씨 집안에서) 그래도 자기네 조상들이기 때문에 저런 기념비<sup>113)</sup>라도 하나 해 놓자 해가지고 전설에 의해서 일케(이렇게) 해 놓은 거고. 거기 보면은 내용이 대강 써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이상은 아시는 분 없을 겁니다. 부씨 집안 사람들도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야 이제 저희 또래들밖에, 그 이상 어르신들은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셨기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젠 뭐 관심도 안 갖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마을 그런 어떤 유래들 뭐 이런 것을 머릿속에는 넣어 두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헛당(하다가) 들은 풍월로 이야기하는...

이규경 : 그것도 적어 저신가? 부대각이 죽을 때는 여기서 뭐 헨에(해서), 관에서 잡으러 온덴 하니까 도망을 가면서 바다를 건너야 되니까, 지치면은 바다에 나가가지고 영(이렇게) 봐야 돼서, 거 뜨면은 좀 쉬엄갈려고, 그렇게 생각해서, 뜨는 걸 가정(가지고) 날아갔는데, 가정 간 게 이런 그냥 돌멩이, 돌을 그냥 가정 온 거라. 켄디(그런데) 지치니까 바다에서 좀 쉬엄가젠(쉬어가려고) 돌멩이

---

113) 제주부씨 종친회에서 평대리 중동 해안가에 세운 부시흥(夫時興)의 비석을 말한다.

뜨는 거랜 났거든. 근데 가라앉아부니까 그래서 거기서 죽었젠, 그런 얘기라.

김성화 : 그 어머니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밤에 누워 자는데, 겨드랑이에 보니까 날개가 있어가지고,

이규경 : 경하난 정부에서가...

김성화 : 이 사람은 큰 일을 홀 사람이다,

이규경 : 경 험에 이제 잡으레 온 거주게. 잡으레 오니까 도망 간 게 그렇게 해서 그냥 쉬어가젠 한 게 이게 헛물, 등돌(들음돌)을 들러메고 강 가정가분 게 (가져가 버린 것이) 가라앉언...

평대리 노인(이름 미상) : 비석에는 그런 건 적어있지 안 해.

이규경 : 거 전설이주.

김성화 : 예, 게난(그러니) 하나의 전설인데. 우린 그 정도백엔 뭐...

평대리 노인 : 그 전설도 있고, 산[墓]에다가 돌이 두 개 나왔는데, 하날 찢라 부니까(찢라버리니까) 부대각이 죽었다는 전설이...

김성화 : 아니, 아니, 건 날개고.

평대리 노인 : 날개? 게, 전설이 여러 가지야.

## ⑤ <부대각과 범천총> (#13)

조사일 : 2014.1.26.

조사장소 : 구좌읍 한동리 마을회관

연행자 : 오문봉(남, 83, 한동리 前노인회장)

조사자 : 김규래

그 부대각이랜 현 분은 이, 그 사람이 뭐엔가 그, 한동 살다가 막 팽대로 간 거 아는데 이, 아주 그 힘이 장사고 이, 옛날에 이 놀개에, 여기 뭐 겨드랑이에 뭐, 놀개 붙여 나났던 그런 사람이여. 그니까 힘이 원체 세가지고서 이, 나무, 예 를 들어서 소나무가 있잖아 이, 저것도 뿔 뿔 거렇게 그 차력으로 뿔 뿔 그렇게 아주 그 사람을 건잡을 사람이 어서 나서. 게난 그 사름은 불의에만 항거하는

사람. 그 자기 그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만 항거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주. 부대각이라고 혼 사람이. 그랬다고 혼 전설이 내려오는 거주. 그분이 힘이 그렇게 장대하고, 그렇게 좀 아주 그, 일반 사람들 곱지(말하지) 않고 특이한 사름이 살았다는 거주.

그리고 또 여기 이쪽이 범천총이랜 허는 분이, 그 말 들은... 한동에 그거 (들어본 적) 없어? [조사자 : 예, 범천총도 있는데요.] 그 분이 왜 범천총이라면 이, 눈이 범 같아가지고서 이, 눈이 이렇게 영 트면은 말이야 아주 그 저 뭐인가 범 눈 곱이 사람헌티 허른 사람이 아무도 그 자리에 쓰러져나서. 계난 그 분이, 옛날에는 그 뭐인가 육지 그 소이수, 거 도비상이라고 해서, 에~ 것 ㄴ라 표준말로 뭐라고 하나, 보부상, 보부상과 또 이제 거러지가 상당히 많아서. 거지. 거지라고 하지. 거지가 옛날엔 동냥바치라고 하지, 그것 많았거든 이. 계난 그 범천총내 있는 집에 들어간 거라 이. 들어가서 이제는, 계십니까, 계십니까, 계십니까, 해도 그 분이 대답을 안 했거라 이. 경헐 한 서너 번 소리치니까, 거 누구냐, 행 눈 번쩍 뜨니깐 이, 그냥 겁냥 똥을 쏜 거라 옷에 이. 겐 똥을 쏘는데, 이제는 그런 풀이 없어, 제주도에는 올레 곱은 디 췌기풀이라는 거 이서. 그 저 췌기풀이라는 건 손으로 만지면 막 그 쏘여, 벌 쏘인 듯이. 계난 똥을 싸니깐 올레에 도망와가지고서 이, 옷 벗영 췌기풀로 이, 그 뭐인가 쓰질 았했나 이, 게니까 그 향문이 말이야 막 그냥 말이야 곱헐게 뭐행 붙어떠지고 허니까, 아이고 제주도 사람 못 살겠다, 겁나가지고 도망갔다 그러고.

또 그 분이, 지금 같으면 구좌읍장이지 이, 계난 제주도 관덕정에서 회의를 할 적에, 여기는 흥년이 들고, 그분이 꺾이 많은 분이랴. 꺾이 많은 분이랴노니까, 옛날도 세금을 많이 매기거든 이, 그러니까 여기는 특히나 흥년 들고, 구좌 관련행 흥년 들고, 이렇게 허기 때문에, 무시란 게 이서. 느네는 모르지만은 우리 세대에는 이, 일제 말기에 식량이 없어가지고서 이, 일본놈덜이 우리가 그 곡식을 예를 들어서 열 섬을, 열 마다리를 우리가 허면은 말이야 이, 아홉 마디는 가정가고 한 마디밖에 안 주거든. 경헐 우리가 생계를 헐 수가 없어. 그니깐 초근목피라고 생활했덴 허거든. 초근목피 뭐이나, 풀초, 나무 목 자거든. 나무뿌리, 풀로 그렇게 생활했덴. 그때 무시란 거 이서 밭에. 그 밭을 이제 숲아가지고서 이, 그것을 식량으로 대응했거든. 겐디 밭을 아무리 잘 숲아도 막 그 우리

제주돛말로 막 야가지가 으지저 게, 싫어. 경헌디 그때 회의가 잇는 때 게 잘  
 숭아진 것을, 그 뭐인가 일본말로 벤또라고 하는데, 도시락, 도시락을 두 개를  
 허 간 거여 이. 게가지고서 이, 물론 그거 피를 쓸라고 헌 것이지. 게난 이제는  
 잘 익은 걸 갖다가 이렇게 막 집어먹어 가니깐 이, 목사가 영 보니깐 상당히 맛  
 있게 먹고 있거든 말이야. 그러니까 아 그 저 뭐인가, “구좌 범천총 거 먹는 거  
 뭐이냐?” 경행 보난 “예, 못을 먹고 있습니다.” “거 못이 뭐이냐?” “하여튼 우리  
 식량이 없어 이걸 먹고 있습니다.” 먹는 거는 상당히 맛있는 거, 그걸 가정오라  
 하니까, 덜 숭아진 걸, 더 쓰지 그거 이, 그걸 갖다줬단 말이야. 목사한테 갖다주  
 니까, 아 입이 혼 직 놓으니까 이, 뺨을 수도 없고 해가지고 재우 그걸 삼켰거  
 든. 경해가지고서 목사가 아 이걸 어떻게 먹고 사느냐고 말이야. 경허니까 범천  
 총이 허는 말이, “우리 구좌에는 이것까지도 못 먹고 있습니다. 다 기아 상탭니  
 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고비를 넘겨서 우리 읍민을 이렇게 했단 허주.

[조사자 : 부대각은 어떻게 된 거예요?] 부대각은 힘만 썼지 뭐 특별히 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요, 옛날에도 뭐인가 도적떼 깡패들이 많았지 이,  
 소위 그 일제시대에도, 빨치시대 전의 막 그 옛날 조선시대에도 말이야. 그런  
 것을 제압하고 하여튼 부락에 평화를 가져왔단 그분이 그렇게 헌 거라. [조사자  
 : 깡패들 물리치고 뭐...] 지금 같으면 깡패지, 그 당시에요 그 도적놈들이 이섯  
 지게. 남의 집에 가서 말이야 그 뭐인가, 돼지 질르는 것도 훔쳐다가 잡아먹고  
 막 이런 깡패들이 옛날도 잇을 거라. 지금 말로 깡패지, 그때는 도적이랜 했잖  
 아. 그런 것을 갖다가 부락에서 침입하는 걸 갖다가 그 사람이 다 방지하곡, 부  
 대각이, 그렇게 의로운 일을 많이 하곡 헌 사람이지. 게난 그것을 자기가, 그 기  
 술을, 힘을 이용해서 남을 압박한 것이 아니라, 부락을 지키고, 안정을 위해서  
 그런 나쁜 놈들을 다 제거하기 때문에 아주 유명해진 부대각이라. 그래서, 그분  
 이 보통 사람으로, 사람이면서도, 뭐 날아뎡긴다는 이런 말까지, 이렇게 축지법  
 을 쓰고 그렇게 했다고.

[조사자 : 나중에 죽었다는 내용은...] 그 내용은 뭐 하여튼 죽은 내용은 우리  
 도 잘 모르겠어. 뭐 저격당했단 말, 뭐 헛단 말, 허곡 하니까 이. 게난 그 사람이  
 죽은 것이, 요기 그 형제가 이셨는데, 여기 그 날개를 기냥 꼬차부니까, 그래서  
 그 죽었다는 말, 그게 정설이라. 여기 저드랑이에 옛날 장수덜 날개가 났는데

관에서 알면은 그 사람을 죽여야 돼나서 옛날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반혁명, 지금 같으면 일으킬까부덴, 그래서 이 날개를 찢르니깐 그 사람이 죽었다 현 말. [조사자 : 누가 날개를…?] 그건 나 자세히 모르겠어. 거기까지는. [조사자 : 부대각은 평대리에 있는 그…] 응, 거기도 아마 비석 있고 이, 원래는 한동 출신이라났는데 평대가서 살았지. 한동에서 나서, 한동엔 부씨가 많주게. [조사자 : 옛날엔 평대랑 한동이랑 같은 리…] 응, 옛날엔 합쳐났는데 이젠 갈라졌주. 그래서 평대 지경이난, 현재루 갈라지니까 평대 지경이니깐 거기 강 비(碑)가 세웠주.

## ⑥ <부대각 1> (#19)

조사일 : 2013.2.13.

조사장소 : 조천읍 선흥리 부봉룡 자택

연행자 : 부봉룡(75 · 남, 제주부씨종친회 부회장)

조사자 : 김규래, 현희숙

부대각이 쌍둥이라나서(쌍둥이였어). 근디 태어날 때부터 날개가 이서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서 날개를 끊어붙고, 보통 사람으로 만들지 안 하면은 살아남지를 못한다, 방법을 얘기해달라 해가지고 얘기를 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아주 그 독주, 독주를 해서 먹이면은 벨(別)한 장사도 잠을 잔다, 게서 이제 형제를 술을 다 먹였거든, 먹여가지고 잠을 재웠는데, 그 날개를 도끼를 잘 갈아가지고 말이지 형부터 먼저 찢라시면은(잘랐으면은) 할 건데 부대각을 먼저 찢랐단 말이야, 동생을. 게니까 형은 조금 자랐으니까, 컸으니까, 눈을 번쩍 뜨고 보니까 자기 날개를 찢르려고 하는 흉계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날개를 쳐가지고 천장에 붙었다 땅에 붙었다 이렇게 해서 범접을 못하게 하니까, 문 어떻게 열어서 뛰쳐나가부렀단 말이야. 그런 전설이 있고, 게 이제 부대각이 과거를 몰려고 서울을 가는데, 배에서 보니까 형이 있더라는 거야. 형을 만났다는 거야. 그래도 형이라고 얘기를 못 했다는 거야. 그래서 성도 변해버리고 아마 그렇게 했다는

전설이 있어. 게서 이제 부대각이 쌍둥이였다, 그런 전설이 있어.

## ⑦ <부대각 2> (#20)

조사일 : 2013.2.13.

조사장소 : 조천읍 선흘리 부봉룡 자택

연행자 : 부봉룡(75 · 남, 제주부씨종친회 부회장)

조사자 : 김규래, 현희숙

부대각이 나서부터 상당히 힘이 장사였어. 천총이 뭐냐, 찾아보면 조선조 때, 훈련도감, 군의영, 어영청, 총통청, 진무영 등에 속한 정 삼품 벼슬이라. (부친층에 관한 전설 네 편이 수록된 『월간관광제주』를 펼쳐놓으며) 네 편을 이제 해논거야 여기. 근데 이 외에 여기 들어가지도 않고 여기 들어가지도 않은 말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힘이 장사고, 자라갈수록 굉장히 힘이 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말대로 제주 목사가 중앙으로 보고를 한 거야. 굉장히 센 사람이 나왔다고. 잘못하다 역적이 될 수도 있고, 그런다. 그런데 그 왕궁 근처에 자꾸 호환, 호환이라면 호랑이가 자꾸 사람을 해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호환을 잡아줄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보내라고 말이지. 거기 가서, 이제 저기 하니까, “니가 진짜로 산 호랑이를 잡을 수 있느냐.” “아, 염려 마십시오. 맨손으로 잡아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왕산 호랑이를, 호랑이가 다니는 길목에 숨었다가 호랑이가 달려드니까 그냥 맨손으로 잡아서 왕궁에 가져다 바쳤거든. 그러니까 검사복이라고 하는 벼슬이, 세자를 지키는 벼슬이야. 검사복도 우리말 사전에 찾아보라고. 세자를 지키는 호위병인데, 잘 흐니까, 또 세자가 크니까 소원을 들어준다 해서 소원이 뭐냐 하니까 제주도로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검사복의 비슷한 벼슬을 만호 벼슬을 줘 가지고 제주로 온 거야. 오는데 여기 이제 그 내용이 써져 있어. 목사가 간계를 써 가지고 손발을 묶으고 말이지, 몸에다가 돌을 달아서 바다에 수장시켜부렸단 말이야. 근데 그런 줄도 모르고 앞에 이제 미리 집에 연락하는 배가 이제 평대로 들어오는데,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부대각은 못 들어오지. 그런 전설 아닌 전설처럼 내려오는 입장이 있고. 그 옛날에 무당들이 굿을 할 때 이 본풀이를 하는 것이 전설로 내려오는 거야.

## ⑧ <평대리 부시홍 망사비> (#21)

조사일 : 2013.2.19.

조사장소 : 구좌읍 평대리

공(公)은 을나왕(乙那王)의 후예(后裔)로 세보상7대(世譜上七世)이신 평대파(平垞派) 선조(先祖) 어모장군(禦侮將軍) 휘열공지현손(諱悅公之玄孫)으로서 위로 육대(六代)에 걸쳐 어모장군(禦侮將軍) 벼슬에 오른 무가(武家)의 혈통(血統)을 이어 고어모장군휘경필공(考禦侮將軍諱景弼公)과 숙부인(淑夫人) 김해김씨(金海金氏) 사이에 장남(長男)으로 출생(出生) 준골(俊骨)이 역발산기개세(力跋山氣蓋世)하여 후세(后世)사람들이 부대각(夫大脚)이라 칭송(稱頌)하고 이 고장의 수호신(守護神)으로서 봉송(奉頌)되어지고 있다. 공(公)은 서기(西紀) 1678년(一六七八年) 숙종4년(肅宗四年)에 문무과(文武科) 제1위(第一位)로 급제(及第) 겸사복장(兼司僕將)이 되었으며<sup>114)</sup> 훗날 조정(朝廷)에서 통정대부(通政大夫) 만호(萬戶)를 제수(除授)하다. 그러나 당시(當時) 제주목사(濟州牧使)는 공(公)의 6대조(六代祖)인 어모장군휘유겸공(禦侮將軍諱有念公)의 묘(墓)가 식산봉정상(食山峯頂上)에 있는 장군석(將軍石)과 대면(對面)하여 희세(稀世)의 대장군(大將軍)이 탄생(誕生)한다는 설(說)을 믿고 군사(軍事)를 보내어 장군석(將軍石)을 자르고 못사람들이 경외(敬畏)하고 있는 공(公)을 제거(除去)할 것을 시도(試圖)하던 중 공(公)의 경관직(京官職)을 떠나 명월만호(明月萬戶)가 되어 배를 타고 건너올 때 암계(暗計)를 써서 수장(水葬)시켰다고 한다. 공(公)의 신임칙지(新任勅旨)를 갖인 종자(從者)의 배만이 평대리(平垞里) 중동(中洞) 선입포구(船入浦口)에 도착(倒着) 공(公)의 배를 기다렸으나 끝내 행방(行方)이 묘연(杳然) 불귀혼(不歸

114) 『무오정시문무과방목(戊午庭試文武科榜目)』에 따르면 부시홍은 숙종 4년의 무오(戊午) 정시(庭試) 을과(乙科)에서 1위를 하였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문무과 제1위”라는 비석의 기록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魂)이 되시다. 그 애석(哀惜)한 사연(事緣)과 공(公)의 위덕(威德)을 그려 서기(西紀) 1937년(一九三七年) 윤3월(閏三月) 이곳에 한시(漢詩)로 망사비(望思碑)를 7대손(七代孫) 행송(幸松) 근지(謹誌)로 후세(後世)에 전(傳)하다.

英姿軒昂士兼與裘  
望高北斗溢流南州  
位經方伯名耀千秋  
水宮寥寥塵夢悠悠  
江魚難填天地爲愁  
追遠感慕一片龜頭

해설(解說)

영용(英勇)한 자태(姿態) 우뚝 뛰어나 벼슬을 겸하여 집안을 일으키고  
명망(名望)은 북두칠성과 같아 은택(恩澤)은 남주에 넘쳐흘렀다  
벼슬은 한 고을을 다스리어 이름은 천추(千秋)에 빛났네  
공(公)이 잠든 바다는 고요하기만 한데 세상 어지러운 꿈은 끊이지 않네  
영혼이 바다에 잠들어 평안치 못함으로 온 세상(世上)모두가 슬픔에 잠겼네  
훗날 오래도록 잊지 못하는 마음을 한조각 비석에 세우다

오호(嗚呼)라 한라(漢拏)의 정기(正氣) 뻗어내려 대평원(大平原)을 형성(形成)한  
평대리(平垔里) 망망대해(茫茫大海)넘어 수평선(水平線)을 바라보며 공(公)께서  
웅비(雄飛)의 나래를 펴고 대한대부(大韓大夫)의 기상(氣象)을 만천하(萬天下)에  
펼치던 일을 아로새기며 못다 이룬 천추지한(千秋之恨)을 후예(後裔)들에게 전  
승(傳承)하고 다짐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제종(諸宗)의 미성(微誠)과 재일본(在  
日本) 7대손(七代孫) 대철(大哲)의 숭조상문지사상(崇祖尙門之思想) 및 감모(感  
慕)의 지성(至誠)으로 마손(磨損)된 비(碑)를 고쳐세우고 길이 추모(追慕)하나이  
다.

?비(?碑) 6대손(六代孫) 만실(萬實) 근수(謹堅) 서기(西紀) 1990년(一九九0年) 경

오(庚午) 청월(淸月)

회장대윤(會長大允) 총무소윤(總務昭潤) 근찬(謹撰)

평대리(平垞里) 부씨종친회(夫氏宗親會) 근수(謹堅)

## ⑨ <하도 부대각 하르방> (#35)

조사일 : 2013.2.20.

조사장소 : 구좌읍 하도리 고복자 심방 자택

연행자 : 고복자

조사자 : 김규래

하도 진올레<sup>115)</sup> 부대각 하르방이 옛날에 베슬하기는 부대각 베슬은 서울 상시 관에 강 과거를 허난 그 부대각 하르바님이 부대각 베슬을 해서 하도리에 입도를 했어. 하도리에 입도를 허고 입도를 허니까 옛날엔 종하님이 있었어. 말하자면 종하님이 있어서 이제 종하님은 종하님도 있고 그 정월이 이월이 삼월이 스월이 오월이 아 시월이까지, 정월에 오니까 정월이, 이월에 오니까 이월이, 삼월에 들어오니까 삼월이, 사월에 그 날 때 대로 이제 그 종하님이 그 집안의 종으로, 시월이까지, 시월달까지 들어오니까 계서 그 정월이, 이월이, 삼월이, 스월이, 시월이까지지. 그 종하님이 이서났고, 그 하르바님이 가묘를 이서나서. 옛날에는 큰 가묘, 우판이라고. 부대 집에는 우판이 그 옛날 벼슬해 난 그 문채가 그 대대로 내려오는 채갑이 이서나서. 경해서 그 하르바님이 가묘를 모시고 우판을 모시고 종하님을 부런 사니까, 그 아기씨가 딸아가 낳는디 하도 공들이명 외 딸아기를 나서. 외딸아기를 나서 막 공들이명 공들이명 키와가지고 하다보니깐 그 아이가 열 다섯이 넘으난, 일러부러가지고, 아기를 일러부러가지고, 어땡하면 조코(줄을꼬) 해가지고 그 수장님하고 수하님하고 그 밖에 종하님, 아기씨 낳는 여자 종하님을 막 좇아도 이제 좇질 못한 거. 좇질 못하니까 옛날에 큰곳을 했어. 큰곳을 해가지고 이제 아기씨 좇젠 헛단 보니까 이제 옛날엔 삼이, 삼 삼는

---

115) 하도리 내의 지명.

거는 초신(초신), 신발, 초신도 삼고 옛날에는 그 종들이 케가지고 막 아기씨 좇는다고 이제 막 삼 삼으면서 이제 꼬리 감으면서 그 삼을 삼아가지고 아기씨를 그 집에 좇아가지고 살단(살다가) 그 아기씨가 이제 그 집에서 그냥 살면서 이제 이 세상을 하직했 죽었넌(죽었다고) 허주게(하거든). 그 아기씨 일당하고 집 안에서 뭐하고.

부대각 하르방은 옛날 과거를 해가지고 부대각 벼슬 헐에, 외지 벼슬하고 내지 벼슬하고 현감 부대각 벼슬을 해서. 부대각 벼슬을 해가지고 이제 그 서울에서 살다가 구향(故鄕)으로 이제 나이들어 가니까 그 집안이 막 부재로 살았어. 부재로 사니까 그 하르방이 자손대에 그 굿을 몇 년 한 번 씩 굿을 해주게. 굿을 하면서 이제 즈손들 편안하게, 이제 같으면은 굿인(굿은) 운이라도 막아줍센 해가지고, 그 조상을 우협호는 거야. 게난, 하르방이 나죽거들랑 삼년 일테에 오년 일테에<sup>116)</sup> 그 조상을 잘 놀림성<sup>117)</sup> 가묘 물던 조상도 잘 거느려주곡, 수하님의 종하님들을 잘 해서 너네들, 이루제라도(나중에라도) 종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부리지 말고 종이옌(종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굿할(굿게) 허지 말아서 잘 해서 이제 이루제라도 쟁해야(그렇게 해야) 자손 대에, 그럭허게(그렇게) 산다는 거는 부재로 산다지, 부재로 살 거니까 나 돌아가고 되고되나<sup>118)</sup> 너희들랑 잘 영해주라, 해서 그 하르방이, 부대각 벼슬을 해서 종하님 거느리는 조상이고.

## ⑩ <시흥리 부대각> (#37)

조사일 : 2014.01.26.

조사장소 : 성산읍 시흥리 경로당 앞

연행자 : 현무행(남, 77세)

조사자 : 김규래

(조사자가 이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부대각 이야기를 청하자) 부대각은 아

116) 삼 년 일테에 오 년 일테인 : 삼 년에 한 번이나 오 년에 한 번.

117) 본풀이에서 조상들이 잘 놀고 가도록 하는 것을 말함.

118) 나 돌아가고 되고되나 : 나 죽은 후에.

니고, 그 저 부침이에서 기운 센 사람은 있긴 있었는데, 그건 할머니라. 그래서 우리 각 부락에 영 들으는 돌들 있잖아게. 기름돌이라고 이서이(있어). 그걸 잘 들러. 지금도 우리 리사무소 앞에 그 돌이 있는데 그걸 잘 들르기 때문에 그래서 부대각이라고 하는데, 큰 그런 뭘 없고, 여자라, 여자. [조사자 : 아, 여자예요?] 응. 동네 사람들이 그걸 영 들들라고 하니까, 못 들르잖아게.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할머니는 물, 물허벅, 있잖아. 물허벅 저가지고 그걸 들어서, 그래서 그게 전설로, 힘 센, 해서 역돌리. 보통 사름 치고는 여기 시흥리 사람들이 힘이 켜주게. 옛날에. 게난 역돌리라고 했는디. (벽에 손가락으로 힘 력(力) 자를 쓰며) 힘력 자하고 (이름 돌(돌) 자를 쓰며) 돌. [조사자 : 여기 원래 심돌이라고…] 아 게, 심돌이 그거라. 힘이 역돌리라. 힘 력. 역돌리주게(역돌리거든). 게난이(그러니까) 부대각, 부대각, 경(그렇게) 흘거라. 여자주게(여자거든). 본래는 할머니라. 부침이라. 부침엿 메뉴리라. [조사자 : 아, 며느리요? 딸이 아니라?] 응 메뉴리. 강윤. 강윤이라. 그 손지는 살아 있어.

## ⑪ <시흥리 부대각> (#38)

조사일 : 2014.01.26.

조사장소 : 성산읍 시흥리 부종식 씨 자택

연행자 : 현무행(남, 77세) , 부종식(남, 83세)

조사자 : 김규래

현무행 : 잘 알아(말해) 줘서(주세요). 부대각이랜(부대각이라고) 하난에(하니까) 부대각이 아니라 강윤 할머니엔(할머니라고).

부종식 : 강윤 할머니가 아니고 강명돈(姜明敦).

현무행 : 강명돈이? 이름이 강명돈?

부종식 : 응.

현무행 : 겐 잘 알아 줘서게. 물허벅 저그냉(저서) 어떻게했 했는지. 할머니, 심돌, 저 기름돌, 허벅, 할머니가 지었으니까, 이러저러 했다, 자초지종을.

부종식 : 게난(그러니까) 우리 증조 할머... 우리 할아버지의 모친 될 거지이, 증조 할머니니까, 그 할머니가 요기 성 강씨(姓 姜氏)네 할머니디, [조사자 : 여기 사시던 분이세요?] 응. 으쪽에(이쪽에), 으쪽에.

현무행 : 아니아니, 돌아가셨주게.

부종식 : 돌아가셨주 그 때. 켜디 그 으기서 그 우리 증조할머니가 이 허벅, 허벅이엔 흐른 알아질 건가? [조사자 : 예, 예, 알쥬, 물허벅.] 그거 지언에 이제 아맹해도(아무래도) 우리는 어린 때 들은 말이라노니깐 물을 진 양 했는지 물 안 진 양 했는지 모르지만은, 물허벅 진 양 그 돌을 으끗(번쩍) 들런에(들어서), 으기, 으기, 으 집 지선(지은), 으 뒤에 집이 논밭이라 났는데, 그 옆에 놀다가 그어기서 “에라, 그까짓 것 못 들림시냐(들고 있냐).” 흐멍 으끗 들런에 앓이다(가져다) 혹(획) 그레(거기에) 던지난에(던지니) 그렇게 힘이 켜덴해. (웃음)

현무행 : 게난이, 강명돈. 당조(當祖) 할머니는 강윤이고, 증조 할머니는 성 강씨. 강명돈. 그 할머니가 심돌. 기름돌이랜 해. 기름돌. 기름돌을 물허벅 진 차로, 여러 사람이 드는데 못들으잖아게. 나 저기서 이야기하듯이. 게니깐 그 할머니가 물허벅 진 차로, 들어서, 던져분거라.

## 참 고 문 헌

### 1. 자 료

- 『고순안 심방 본풀이』 (허남춘 외 8인 편저, 보고사, 2013).
- 『國文學報』 9(濟州大學 國語國文學會, 1988).
- 『白鹿語文』 11(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편, 1995).
- 『白鹿語文』 24(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편, 2008).
- 『神들의 故郷』 (고대경, 증명, 1997).
- 『양창보 심방 본풀이』 (허남춘 외 9인 편저, 보고사, 2010).
- 『월간관광제주』 29(월간관광제주사 편집부, 월간관광제주사, 1987).
- 『월간관광제주』 30(월간관광제주사 편집부, 월간관광제주사, 1987).
- 『월간관광제주』 31(월간관광제주사 편집부, 월간관광제주사, 1987).
- 『제주민속유적』 (제주도문화체육과 편, 제주도, 1997).
- 『濟州 說話集成』 (金榮敦 · 玄容駿 · 玄吉彦,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5).
- 『제주도전설』 (현용준, 서문당, 1996).
- 『濟州道 傳說誌』 (濟州道文化公報擔當官室 編, 濟州道, 1985).
- 『제주도 조상신본풀이연구』 (김현선 · 현용준 · 강정식, 보고사, 2006).
- 『濟州의 人脈』, 강용삼, 泰光文化社, 1980).
- 『耽羅遺史』 (탐라유사편집위원회, 夫氏門中會總本部, 1988).
- 『坪代里』 (제주도 · 북제주군 · 평대리지편집위원회, 평대리지편집위원회, 1990).
- 『한국구비문학대계』 9-1(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 『한국구비문학대계』 9-2(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 『한국구비문학대계』 9-3(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 2. 단 행 본

- 고찬화 편, 『耽羅史資料集錄⑤ 지난 歲月의 濟州人物錄 -國朝文科榜目外 16目 案員簿記錄-』, 성민출판사, 2002.
- 김구한 외, 『역동적 소통의 현장 이야기관』, 민속원, 2012.
- 김기옥 외, 『이야기꾼과 이야기의 세계』, 민속원, 2013.
- 김영희, 『한국 구전서사의 ‘부친살해’』, 월인, 2013.
- , 『구전이야기 연행과 공동체』, 민속원, 2013.
- , 『연행 주체란 누구인가』, 민속원, 2013.
- 김현선 · 현용준 · 강정식, 『제주도 조상신본풀이연구』, 보고사, 2006.
- 북제주군, 『북제주군의 문화유적 II』, 북제주군 · 제주대박물관, 1998.
- 신동훈, 『역사인물 이야기 연구』, 집문당, 2002.
- 임재해, 『설화작품의 현장론적 분석』, 지식산업사, 1991.
- 임철호, 『설화와 민중』, 전주대학교출판부, 1995.
- 제주특별자치도 · 국립민속박물관, 『하도리 민속지』, 국립민속박물관, 2007.
- 조동일, 『구비문학의 세계』, 새문사, 1980.
- , 『설화와 민중의식』, 정음사 1985.
- , 『민중영웅이야기』, 문예출판사, 1992.
- 외, 『구비문학의 연행양상』, 민속원, 2011.
- 조현설, 『마고할미 신화연구』, 민속원, 2013.
-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02.
- 최래옥, 『한국구비설화의 연구』, 일조각, 1981.
- 허남춘 외 9인 편저, 『양창보 심방 본풀이』, 보고사, 2010.
- 외 8인 편저, 『고순안 심방 본풀이』, 보고사, 2013.
- 현길언, 『제주도의 장수설화』, 홍성사, 1981.
- 현용준, 『제주도 신화』, 서문당, 1997.
- ,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_\_\_\_\_,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르네 지라르, 『폭력과 성스러움』, 김진식 외 옮김, 민음사, 2000.

\_\_\_\_\_, 『희생양』, 김진식 역, 민음사, 1998.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이상섭 옮김, 문학과지성사, 2005.

블라디미르 프로프, 『민담 형태론』, 유영대 옮김, 새문사, 2007.

시모어 체트먼, 『이야기와 담론』, 푸른사상사, 2003.

테리 이글턴, 『우리 시대의 비극론』, 이현석 옮김, 경성대학교출판부, 2006.

피터 브룩스, 『플롯 찾아 읽기』, 박혜란 옮김, 강, 2011.

### 3. 논 문

강봉근, 「중국 조선족 설화에 나타난 아기장수 설화의 변이 양상」, 『한국언어문학』 52, 한국언어문학회, 2004.

강유리, 「<아기장수> 설화 연구 : 이데올로기 수용의 관점에서」, 『한국고전연구』 2, 한국고전연구학회, 1996.

강진옥, 「한국 전설에 나타난 전승집단의 의식구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곽정식, 「아기장수 전설과 홍길동전의 비교 고찰」, 『문화전통논집』 1, 경성대학교 부설 한국학연구소, 1993.

권도경, 「호남지역 ‘아기장수 전설’의 유형적 특징과 지역적 특수성에 관한 연구」, 『코기토』 64,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8.

김수엽, 「아기장수이야기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김영희, 「아기장수이야기의 전승력 연구 -서사적 특성과 전승 의미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_\_\_\_\_, 「아기장수이야기의 신화적 주제 탐색」, 『구비문학연구』 10, 한국구비

- 문학회, 2000.
- , 「구전이야기 연행과 공동체 경계의 재구성」, 『동양고전연구』 42, 동양고전학회, 2011.
- , 「마을 지형 및 지명 유래담의 공동체 구성력 탐구」, 『비교민속학』 46, 비교민속학회, 2011.
- 김의숙, 「단종신앙과 제의 연구」, 『강원문화사연구』 2, 강원향토문화연구회, 1997.
- 도영록, 「「아기장수 전설」 연구 : 거창 「아기장수 전설」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박성순, 「아기장수 전설과 민중의식」, 『국어국문학 논문집』 16,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부, 1993.
- 박신정, 「동신신앙의 일고찰 : 김부대왕 신격화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박정희, 「병와 이형상의 삶과 도학의 시적 표현에 대한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박종수, 「용인지역 구비설화에 나타난 인물설화의 양상」, 『인문사회논총』 15, 용인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8.
- 박종오, 「공동체 신앙과 씨족 인물의 신격화 : 전북 군산시 선유도 사례를 대상으로」, 『남도민속연구』 17, 남도민속학회, 2008.
- 부양숙, 「제주 날개달린 아기장수 전설」, 『백록어문』 2,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백록어문학회, 1987.
- 부영근, 「병와 이형상의 한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서종원, 「서해안 임경업 신앙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 「실존인물의 신격화 배경에 관한 주요 원인 고찰」, 『중앙민속학』 14, 중앙대학교 한국문화유산연구소, 2009.
- 신동훈, 「아기장수설화와 진인출현설의 관계」, 『고전문학연구』 5,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0.
- 신현주, 「아기장수 설화의 비극성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심정섭, 「전설의 문학적 구조」, 『문학과지성』 27, 문학과지성사, 1977.

- 오세정, 「구비설화의 상상력과 지역적 특성 -‘이성계 설화’ 전승의 공백성-」, 『우리말글』 37, 우리말글학회, 2006.
- 이경엽, 「장수전설의 전승양상과 전승의식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 , 「순천의 성황신앙 · 산신신앙과 역사적 인물의 신격화」, 『남도민속연구』 6, 남도민속학회, 2000.
- 이기태, 「사회계층에 따른 역사적 인물의 신격화 과정과 제의 전통의 창출」, 『비교민속학』 15, 1998.
- , 「역사적 인물의 신격화 과정과 전통의 창출」, 『비교민속학』 17, 비교민속학회, 1999.
- 이미령, 「아기장수이야기 연구 : 집과 힘의 관계구조와 문화적 의미해석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이창식, 「단종전승의 구조와 의미」, 『강원민속학』 12, 강원도민속학회, 1996.
- 이혜화, 「아기장수 전설의 신고찰」, 『한국민속학』 16, 한국민속학회, 1983.
- 임성원, 「병와 이형상의 악부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임재해, 「구비문학의 연행론, 그 문학적 생산과 수용의 역동성」, 『구비문학연구』 7, 한국구비문학학회, 1998.
- , 「설화에 나타난 호랑이의 다중적 상징과 민중의 권력 인식」, 『실천민속학연구』 19, 실천민속학회, 2012.
- 장장식, 「아기장수전설의 의미와 기능」, 『국제어문』 5, 국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4.
- , 「구비담론으로 본 군자봉 성황제 -군자봉 성황당신화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40, 한국민속학회, 2004.
- 정진희, 「제주도 당본풀이의 유형과 변천 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 「제주도와 미야코지마 신화의 비교 연구 : 외부 권력의 간섭과 신화의 재편 양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조동일, 「영웅의 일생, 그 문학적 전개」, 『동아문화』 10,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1971.

- \_\_\_\_\_, 「영웅이야기의 유형 : 분류 방법 모색을 위한 시도」, 『구비문학』 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1981.
- 조성운 · 박찬식,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지배체제와 주민의 신앙」, 『탐라문화』 19,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8.
- 조현설, 「제주 무속신화에 나타난 이중의 외부성과 젠더의 얽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 천혜숙, 「전설의 신화적 성격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 \_\_\_\_\_, 「동신당(洞神堂) 수난의 마을사와 민중적 기억의 재현」, 『역사민속학』 38, 한국역사민속학회, 2012.
- 최래옥, 「아기장수 전설의 연구 -한국설화의 비극성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11, 민속학회, 1979.
- 최명환, 「단종설화의 전승양상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최정운, 「‘아기장수 설화’의 비극적 결말의 지속에 대하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하창수, 「아기장수전설의 형성과 기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 한승철, 「전설의 삼분법에 대한 再考 : 전설에 나타난 신화적 요소를 중심으로」, 『기전어문학』 5, 수원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90.
- 한정훈, 「설화에 나타난 실존 인물의 의미화와 전승주체의 의식 -김제 정평구 설화를 대상으로」, 『구비문학연구』 36, 한국구비문학회, 2013.
- 허춘, 「제주 설화의 특성 연구」, 『제주도연구』 16, 1999.
- 현길언,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인식 -이형상 목사의 신당 철폐에 대한 설화적 인식-」, 『탐라문화』 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3.
- 현승환, 「제주도 신화와 공동체 그 현대적 변용 양상」, 『구비문학연구』 22, 한국구비문학회, 2006.

## Abstract

### Study on Baby Warrior-type Boodaegak folktales

Kim, Gyu-ra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Baby Warrior-type Boodaegak folktale, which is a story about a warrior named Boodaegak, is identified as a unique type of a variation among the Baby Warrior-type folktales. By examining the features of the tradition of the Baby Warrior-type Boodaegak folktales, and its characteristics of the literary narrative, this thesis aims to identify the significance of this folktale.

Prior to studying this folktale in depth, I begin with a general summary which introduces the types of Boodaegak folktales. Including the 10 pieces of new material, which were selected and recorded by the author, a total of 38 pieces of Boodaegak folktales were summarized. 22 Baby Warrior-type pieces out of the 38 were later confirmed as the subject of research.

In chapter 2, the features of the tradition field of Baby Warrior-type Boodaegak folktales were separately observed in two groups: the aspect of tradition community and the consciousness of the tradition community. The

Baby Warrior-type folktales have been passed down into two parts which are *Bonpuri* and legends. While *Bonpuri* refers to the tradition of the *Shimbang* and the household community, legends are traditions of a village community called Gujwa-Eup, and the family community of the Boo family from Jeju. *Shimbang* is a professional performer for *Bonpuri*, which may affect the story that have been retained by the genealogy, region, and individual personality. The household community is a regional based clan, which demonstrates characteristics of a life community and is female-oriented and also shares faith towards their ancestors. On the other hand, village communities and family communities are male-oriented and the representative person of the family leads the tradition. Such tradition groups exhibit a strong sense for transmitting its history and also attempt to build an identity of a tradition community based on the Boodaegak folktales.

In chapter 3, I have analyzed features of the literary narrative of the Baby Warrior-type Boodaegak folktales in three dimensions: characters, structure, sections. In part 1, I have discussed the traits of the characters. Particularly, I have revealed that the baby warrior was diversified into 4 different forms: a murdered baby warrior, a baby warrior that survived, a baby warrior that escaped and a baby warrior that became a hero. These various forms of the baby warrior play a complementary role which help transmitters to reason reality in a concrete context. Moreover, it also has contributed in clarifying that the enemy of the Boodaegak has been unified as a central power. The central authority refers to the violent government system and symbolizes the Confucian ruling system which refuses the shaman faith of Jeju Island. Boodaegak, in this context, is a hero fighting against the central power and also symbolize the spiritual heritage of Jeju Island which is often well known for its shaman faith.

In part 2, I have analyzed the structural features. Primarily in the

Boodaegak folktales, I have clarified that the chronological structure of the hero was closely related to the space movement between Jeju and Hanyang. Likewise, Jeju was a place of birth and death while Hanyang was presented as a place for accomplishment which in turn disclosed the features of a governing system as well as the limitations of Jeju as a periphery. On the other hand, Boodaegak is indirectly showing that the subject for attack was against the Great Power instead of the government of Hanyang. As a result, this has formed a conflicting structure which has been shaped into a multiple narrative. This in turn accomplishes Hanyang's desire to stand against the Great Power in a substituting manner, and inherently contains a structural strategy in trying to achieve Jeju's desire to overcome Hanyang.

In part 3, I have dealt with the characteristics of sections. First of all, I have looked at the reciprocity of the Boodaegak myths and the Boodaegak legends. The Boodaegak myths are examples which display the mythicization of legends from which a mythical personality is attained from a paradox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 and the world. Such mythical personalities may influence the Boodaegak legends. Then I have observed to what extent the Boodaegak folktales and the Jeju Dang myths, which are most famous for its *Songdang Bonpuri*, have had a mutual influence on each other. I have found that the Boodaegak folktales share the flow of the *Songdang Bonpuri*, and the form of its hero and its story segment of ironstone box. Yet, parts of it were modified which later contributed to revealing a creative solution.

Keywords: Boodaegak folktales, Baby Warrior, Jeju hero, *Josangsinbonburi*

Student Number: 2011-20002